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 이론의 장단점



2022년 12월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이현걸

#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 이론의 장단점

지도교수 김 준 결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월 4일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이 현 결



# 논문인준서

이현걸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9일

주심 전 현 상



부심 김 준 걸



부심 오 은 영



## 감사의 글

이 글이 논문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김준걸 선생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의 주제와 방향을 설정하는 일부터 초고 작성과 수정까지, 선생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글을 읽어주시고 친절한 조언과 함께 격려를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논문을 결코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심사를 맡아주신 전현상 선생님과 오은영 선생님께도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불친절한 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날카롭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조언을 아껴주시지 않은 선생님들 덕분에 조금이나마 글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초고 탈고 이후에 저의 글을 함께 읽어주시고 수정에 도움을 주신 몇몇 철학과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초고 탈고 이후 지쳐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성의 덕분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 논문 작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사 과정 동안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시며 갇을 길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신 부모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차례

국문초록 .....	iii
일러두기 .....	v
약칭 .....	vi
머리말 .....	1
본론 .....	7
<b>I. 믿음에 관한 퍼즐과 논의</b> .....	7
1. 믿음에 관한 프레게의 퍼즐 .....	7
1.1 믿음에 관한 프레게의 퍼즐 : 대체 실패 현상과 인지적 의의 .....	7
1.2 프레게적 해결책과 그에 대한 비판 .....	11
2. 믿음에 관한 크립키의 퍼즐 .....	13
2.1. 크립키의 비판과 퍼즐 : 탈인용 원리와 번역 원리를 중심으로 .....	13
2.2 퍼즐 분석에 대한 직접지시 이론의 기여 : 발화에 의해 표현된 의미적 내용에 관한 신프레게주의-신러셀주의 논쟁 .....	20
3. 믿음에 관한 리차드의 퍼즐 .....	23
3.1 리차드의 비판과 퍼즐 : 안긴문장 바깥의 단어의 변화를 중심으로 .....	23
3.2 퍼즐 분석에 대한 화용론의 기여 : 함의론을 중심으로 .....	26
<b>II.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 이론의 장점</b> .....	32
1.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 .....	32
1.1 신프레게주의와 신러셀주의의 장점을 모두 받아들인 이론 .....	32
1.2 대물적 제시 방식과 심적 정보철의 동일시 .....	37
1.3 르카나티의 진리 조건적 화용론 : 말해진 바를 중심으로 .....	43



1.4 믿음 보고의 투명·불투명 맥락의 구별 : 화자 의미론을 중심으로 .....	48
1.5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관한 화용론 : ‘자유 풍부화’ 처리와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	52
2. 믿음에 관한 퍼즐 해명 .....	56
2.1 믿음에 관한 프레게의 퍼즐 해명 .....	57
2.2 믿음에 관한 크립키의 퍼즐 해명 .....	62
2.3 믿음에 관한 리처드의 퍼즐 해명 .....	72
2.4 결론 :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 이론의 장점 .....	75
<b>Ⅲ.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 이론의 단점 .....</b>	<b>78</b>
1. 말해진 바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의 단점 .....	79
1.1 말해진 바에 관한 바흐의 비판 : ‘대화적 암시’를 중심으로 .....	79
1.2 믿음 보고의 일원론에 관한 비판 .....	87
2. 최소적 명제에 관한 르카나티 이론의 단점 .....	94
2.1 최소적 명제의 비실재성에 관한 르카나티 이론 비판 .....	94
2.2 최소적 명제의 정보적 가용성에 대한 르카나티의 입장 .....	98
2.3 르카나티의 환유 이론에 대한 재반박 .....	103
<b>맺음말 .....</b>	<b>108</b>
<b>참고 문헌 .....</b>	<b>109</b>
<b>Abstract .....</b>	<b>112</b>



## 국문초록

본고는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을 소개 및 검토한다. 믿음 보고란, 화자가 믿음 주체의 믿음을 청자에게 보고하는 표현 혹은 행위이다.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은 믿음에 관한 퍼즐이라는 현상을 해명한다. 믿음에 관한 퍼즐이란 믿음 귀속 문장에 등장하는 지시 표현을 동연적 지시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그 문장의 진릿값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프레게에 의해 최초로 문제로서 제기된 이후, 믿음에 관한 퍼즐은 언어에 관한 실증적 이론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자들 간에 이뤄진 열띤 논쟁의 중심에 위치해 왔다. 그 논쟁의 배경에는 사고의 내용에 관한 신프레게주의와 신러셀주의간의 논쟁, 폴 그라이스가 마련한 기반 위에 발전하였던 화용론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크립키와 리차드는 믿음에 관한 퍼즐의 기원에 대한 탐구의 과정에서 변용된 형태의 퍼즐을 제시하였고, 믿음에 관한 퍼즐에 대한 프레게의 대답이 결코 완전한 대답이 될 수 없음을 보였다. 본고는 1장에서 믿음에 관한 프레게의 퍼즐, 크립키의 퍼즐, 그리고 리차드의 퍼즐을 기술한다. 그리고 그 퍼즐에 대한 학자 본인의 혹은 학자의 이론에 따라 제시된 해명을 기술한다. 이후 그 해명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지적한다. 2장에서는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을 소개한다. 르카나티의 이론은 사고의 내용과 인지적 의의에 관한 신-프레게주의와 신-러셀주의적 통찰을 모두 수용한다. 또한 그의 이론은 성공적 믿음 보고의 맥락을 화자의 의도에 따라 나누는 화용론-기반 화자 의미론이다. 르카나티의 이론을 도입한 이후에, 그것을 프레게의 퍼즐, 크립키의 퍼즐, 그리고 리차드의 퍼즐에 적용하여 퍼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시험해 본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르카나티 이론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르카나티의 이론은 믿음 주체의 믿음에 관해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둘째, 믿음 보고에 의해서 말해진 바에





관한 변화무쌍한 직관을 포용할 수 있다. 셋째, 믿음 보고에 관한 그의 이론은 믿음에 관한 퍼즐의 발생의 근원을 규명하게 한다. 3장에서는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의 단점을 다루며 그의 이론을 비판해 본다. 3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에서 특히 문제시되는 환유의 이론과 관련되어 있다. 이 논의를 통해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 이론의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측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Key Words)**

르카나티(François Recanati), 믿음 보고(belief report), 믿음 귀속(belief ascription), 믿음에 관한 퍼즐(puzzle about belief), 명제 태도(propositional attitude), 명제 태도 보고(propositional attitude report), 의미론(semantics), 화용론(pragmatics)



## 일러두기

1. 내주 표기는 (저자, 연도:페이지)의 형태로 하였다.
2. 자주 사용하는 저술의 내주 표기는 처음 등장하는 내주에 약칭을 달고 그 후에는 약칭으로 해당 저서를 지시한다.
3. 페이지 수 외에 특정한 장을 언급하고자 할 때 약칭 바로 옆에 몇 장에서 나온 내용인지를 표시하였다. (약칭+장:페이지)의 형태이다. 예) DR12.3:213에서 12.3은 12.3장을 표시한다.
4. 재인용의 경우 원문과 재인용된 부분 순으로 쌍반점(:)으로 분리하여 표시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참고문헌이 있는 경우에도 쌍반점을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5.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를 참조한 경우, PDF로 다운로드했을 시 표기되는 페이지를 기준으로 페이지수를 명시하였다.
6. 번역어를 사용하는 경우 번역어를 먼저 작성한 뒤 위 첨자로 원 표현을 최초로 명시하였고 그 후에는 첨자 없이 번역어를 사용하였다.



## 약칭

### DR

Recanati, François. “Direct Reference: From Language to Thought.” (1993)

### FR

Frege, Gottlob. “Sense and Reference.” *The philosophical review* 57.3 (1948): 209-30.

### PAR

Nelson, Michael. “Propositional Attitude Report.”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9/entries/prop-attitude-reports/>.”

March 21, 2019. Web.

### PB

Kripke, Saul A. “A Puzzle about Belief.” *Meaning and Use*. Springer, 1979. 239-283.

### SR

Neale, Stephen. “Silent Reference.” *Meanings and other things: Essays in honor of Stephen Schiffer* (2016): 229-344.

### VR

Evans, Gareth, and John Henry McDowell. *The Varieties of Reference*. Oxford: Clarendon, 1982.



## 머리말

본고의 논의의 배경에는 ‘나’, ‘여기’, ‘저것’과 같은 맥락-의존적인 표현들과 고유명과 같은 표현들에 관련된 직접지시론과 기술구 이론 간의 오랜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구 이론은 이러한 표현들을 기술구의 축약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나’와 같은 표현은 ‘발화를 하는 화자’와 같은 기술구의 축약이며, ‘저것’은 ‘화자가 지시하고자 하는 대상’과 같은 기술구의 축약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직접지시론은 이런 표현들이 근본적으로 비-기술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직접지시론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을 활용하여 표현된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구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것이 지시하는 사물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직접지시론에 따르면 지표시<sup>indexical</sup>나 고유명과 같은 표현들을 포함하는 문장이 표현하는 사고를 구성하는 것은 그 표현들을 활용해 화자가 지시하는 사물 자체이다.

프레게(Gottlob Frege)의 믿음에 관한 퍼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한다면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관문이다. 왜냐하면, 프레게의 믿음에 관한 퍼즐은 얼핏 보기에 직접지시론과 같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며 기술구 이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현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듯해 보이기 때문이다. 프레게의 믿음에 관한 퍼즐이란, 믿음 귀속 문장의 안긴문장에 등장하는 직접지시적 표현을 동일한 지시체를 가지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그 문장의 진리값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직접지시론이 옳다면, 믿음 귀속 문장의 안긴문장에 등장하는, 동일한 사물을 지시하는 두 표현이 상호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믿음 귀속 문장의 진리값은 보존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진리값은 변하는 것처럼 보이며, 진리값의 변동은 직접지시론의 한계를 가리키는 현상인 것으로 여겨졌다. 반면에 기술구 이론에 속하는 프레게의 이론은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답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프레게는 뜻



sense과 지시체<sup>reference</sup>를 구별하였으며, 믿음 귀속 문장의 안긴문장에 등장하는 지시 표현이 안은문장의 진리값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그것의 지시체가 아니라 뜻이라는 답변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크립키(Saul Kripke)가 『이름과 필연』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믿음에 관한 퍼즐을 다룬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크립키는 『이름과 필연』을 통해 기술구 이론을 통렬히 비판하며 직접지시론을 옹호하였기 때문이다. 크립키는 직접지시론의 약점으로 치부되곤 하였던 믿음에 관한 퍼즐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만 했다. 크립키의 목적은 믿음에 관한 퍼즐을 재구성하여 보임으로써 믿음에 관한 퍼즐이 결코 직접지시론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크립키의 전략은 대체 원리를 호출하지 않고 믿음에 관한 퍼즐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크립키에 따르면 믿음에 관한 퍼즐은 지시 표현의 대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크립키의 작업이 성공적이라면 이는 믿음에 관한 퍼즐이 직접지시론에 대한 반론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크립키뿐만 아니라 리차드(Mark Richard) 또한 재구성된 믿음에 관한 퍼즐을 제시하였다. 리차드의 퍼즐의 핵심은 믿음 귀속 문장의 안긴문장 바깥에 등장하는 지시 표현의 대체를 통해서도 믿음에 관한 퍼즐이 발생함을 보이는 것이었다. 리차드는 믿음 귀속 문장의 안긴문장 바깥에 등장하는 지시 표현을 대체하는 것 또한 문장의 진리값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제시한다. 이는 믿음에 관한 퍼즐에 대한 프레게적 답변에 대한 반론으로 기능한다. 프레게적 전략은 오직 제한된 종류의 믿음에 관한 퍼즐에만 답변을 제시할 수 있었다. 프레게적 답변은 믿음 귀속 문장의 안긴문장 안에 등장하는 지시 표현의 대체 불가능성에 관해서는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안긴문장 바깥에 등장하는 지시 표현의 대체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없다. 이는 프레게적 기술구 이론이 제시하는 답변이 임시방편적이었으며 결코 완전한 해명이 될 수 없음을, 따라서 믿음에 관한 퍼즐의 해답으로 선택되기에 불



완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듯 크립키와 리처드의 퍼즐은 믿음에 관한 퍼즐의 해명에 있어 기술구 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직접지시론이 퍼즐의 근원이 아니라는 함의를 직접지시론과 기술구 이론의 논쟁에 가져옴으로써 직접지시론을 변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다면 믿음에 관한 퍼즐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는가? 크립키는 믿음에 관한 퍼즐의 근원이 내용과 명제의 개념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믿음 귀속에 사용된 문장들은 언어적 의미상으로 충돌한다. 이는 곧바로 문장이 표현하는 의미적 내용<sup>semantic content</sup>상의 충돌으로 해석되었다. 그것은 믿음 귀속의 화자조차 당황스럽게 만들며, 모순에 빠지게 만든다. 즉 믿음에 관한 퍼즐은 의미적 내용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의미적 내용이란 곧 화자의 의미이다. 크립키와 리처드의 퍼즐을 거치며 믿음에 관한 퍼즐의 근원을 규명하는 작업에서 점점 더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한 것은 단순히 문장의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 문장을 통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포착하는 것이었다. 이는 폴 그라이스의 의도-기반 의미론<sup>intention-based semantics</sup> 이후 점점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던 화용론을 바탕으로 한다. 분명해진 것은 더 이상 문장의 의미나 문장의 진리값을 따지는 작업만으로는 언어를 활용하는 소통 현상의 모든 측면을 탐구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문장의 의미는 화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이며, 문장은 화용론적인 의미의 애매성을 가진다. 따라서 화자의 의도에 기반하여 화자가 문장을 발화하면서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 믿음에 관한 퍼즐의 근원을 규명하는 작업 또한 이제 화자의 의미의 소통과 해석에 관한 화용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믿음에 관한 퍼즐에 믿음 귀속<sup>belief ascription</sup>뿐만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대화적 상황을 가정하는 믿음 보고<sup>belief report</sup>의 맥락 또한 관여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곧 발화를 통해 화자에 의해서 말해진 바<sup>what is said</sup>인 의미적 내용<sup>semantic</sup>



content에 관한 신-러셀주의와 신-프레게주의의 대치와 맞물린다. 신-러셀주의와 신-프레게주의는 고유명, 지표사<sup>indexical</sup>와 같은 표현을 담은 문장의 발화(이하 ‘발화’라 칭한다)의 의미적 내용이 사물을 직접적으로 수반하며, 발화의 의미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을 식별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직접지시적인 입장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신-러셀주의는 발화의 의미적 내용이 단칭적 명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신-프레게주의는 발화의 의미적 내용이 단칭적 명제뿐만 아니라 인지적 의의를 포함하는 대물적<sup>de re</sup> 사 고라는 입장을 가졌다. 이는 믿음 보고의 의미적 내용에 관한 각각의 입장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신-러셀주의자는 믿음 보고의 의미적 내용을 단칭적 명제라고 보는 반면, 신-프레게주의자는 믿음 보고의 의미적 내용을 단칭적 명제 이상의 것이라고 보았다. 믿음에 관한 퍼즐의 근원에 대해서도 둘은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놓는다. 신-러셀주의는 단칭적 명제와 구별되는 함의를 통해 믿음에 관한 퍼즐을 해명하고자 하는 ‘함의론’으로 이어진다. 반면 신-프레게주의적 입장은 믿음 보고의 의미적 내용에 ‘제시 방식’이 포함됨을 주장하며 제시 방식에 대한 호소를 통해 믿음 보고에 관한 퍼즐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프레게주의자들은 대화의 참가자가 어떻게 발화의 의미적 내용에 단칭적 명제뿐만 아니라 제시 방식을 포함하여 소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소통 이론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다면 제시 방식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신-러셀주의적 반박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었다.

르카나티는 믿음 보고에 관한 신-러셀주의적인 직관을 포용한 신-프레게주의적 소통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르카나티는 의미의 애매성에 관한 그라이스적인 그림을 보완한 이론인 진리 조건 화용론<sup>truth-conditional pragmatics</sup>을 제시한다. 그라이스적인 그림에서 의미의 애매성은 문장의 언어적 의미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과, 대화적 함의를 통한 화용론적 애매성으로 분리되었지만, 르카나티는 화자에 의해 말해진 바<sup>what is said</sup>에도 의미적 과



소결정성이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는 작업의 성격을 화용론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의미에 관한 세 층위가 존재함을 말하였다. 르카나티에 따르면 믿음 보고 의미적 내용은 화자에 의해 말해진 바<sup>what is said</sup>에 속하는 준-단칭적<sup>quasi-singular</sup> 명제로 해석된다. 준-단칭적이라는 개념은, 의미적 내용이 진리 조건적으로 무관한<sup>truth-conditionally irrelevant</sup> 제시 방식과 진리 조건적으로 개별화되는 단칭적 명제의 특성을 모두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언표하는 개념이다. 화자에 의해 말해진 바의 결정에도 화용론적 원리들을 호출하는 르카나티의 진리 조건 화용론은 제시 방식의 소통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신-프레게주의적인 소통 이론이다.

르카나티의 이러한 입장은 믿음 보고에 관한 이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은 믿음 보고를 행하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소통 이론의 틀을 통해 퍼즐을 조명할 수 있게 한다. 르카나티는 믿음 보고의 상황을 화자와 청자 간의 긴밀한 소통-의도의 교환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적 상황으로 재설정하고, 화자의 소통-의도에 따라 믿음 보고의 맥락을 투명한 맥락과 불투명한 맥락으로 구별한다. 믿음 보고의 투명한 맥락에서 화자는 믿음 주체의 제시 방식을 생략한 채 진리 조건적 내용만을 전달하고자 하는 반면에, 믿음 보고의 불투명한 맥락에서 화자는 믿음 주체의 제시 방식을 포함한 화자의 의미를 청자에게 소통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별에서 강조되는 것은 믿음 주체의 믿음 상태뿐만 아니라 화자와 청자 간의 소통 의도이다. 즉 르카나티의 믿음 보고 이론에서는 믿음 주체의 정보적 상태가 중요시되는 만큼 화자와 청자 간의 정보적 상태 또한 중요시된다.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은 퍼즐의 발생의 근원에 대한 규명을 제공함과 동시에 퍼즐에 대한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성공적 믿음 보고의 상황에서는 믿는 자의 대물적 제시 방식에 관한 소통-의도가 분명히 성립하는 반면에, 믿음에 관한 퍼즐은 그러한 소통-의도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믿음에 관한 퍼즐이 발생하는 맥락은 믿음 주체의 제시 방식에 관





해 소통하고자 하는, 소통에 관한 직관이 개입하는 맥락이 아니라, 언어적 의미의 층위에서 발견되는 모순에 주목하는 사변적 직관이 개입하는 맥락이다. 바로 이 점에 의해서 퍼즐은 인위적인 것으로 비판될 수 있는데, 퍼즐이 일상적 소통에 개입하는 화용론적 직관을 배제하고 무시하며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소통에 참여하는 대화의 참가자는 문장의 의미에 관한 직관뿐만 아니라 화용론적 직관 또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은 이러한 점들을 조명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르카나티의 이론은 믿음에 관한 퍼즐을 해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르카나티의 이론은 몇몇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3장에서 르카나티의 이론을 형이상학적 측면과 인식론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절에서, ‘말해진 바’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이 그라이스적 기획에 대한 개입에 가져오는 함의를 분석하고, 이를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검토 및 비판한다. 둘째 절에서, 최소적 명제에 관한 르카나티와 바흐의 논쟁을 따라가 보면서 르카나티 이론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검토 및 비판해 본다.



## 본론

### I. 믿음에 관한 퍼즐과 논의들

#### 1. 믿음에 관한 프레게의 퍼즐

##### 1.1 믿음에 관한 프레게의 퍼즐 : 대체 실패 현상과 인지적 의의

프레게는 동일성 판단의 인지적 의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셋별과 개밥바라기가 같은 대상을 지시한다면, 왜 ‘셋별은 셋별이다’는 사소한 분석적 참인 반면에, ‘셋별은 개밥바라기이다’는 종합적이고 경험적인 참인가(FR:209)? 프레게는 뜻과 지시체 이론을 제시하여, 고유명<sup>1)</sup>이 뜻<sup>sense</sup>과 지시체<sup>reference</sup>를 가진다고 하였다(FR:214). 뜻에는 대상의 제시 방식<sup>mode of presentation<sup>2)</sup></sup>이 담겨져 있으며, 이는 인지적 의의<sup>cognitive significance</sup>를 가진다(FR:210). ‘셋별은 셋별이다’와 ‘셋별은 개밥바라기이다’의 인지적 의의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셋별’과 ‘개밥바라기’가 지시하는 대상이 같더라도 그것이 표현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이다(FR:210). 그 차이에 의해 ‘셋별은 개밥바라기이다’는 지식을 확장하는 문장이 되

1) 고유명뿐만 아니라, 단어, 기호sign, 기호의 조합, 표현에도 해당한다.

2) ‘제시 방식’이란 표현은 사고의 주체가 사고에서 *대상을 제시하는* 방식과 사고의 주체에게 *대상이 제시되는* 방식이라는 두 가지의 관점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제시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주체가 사고에서 *대상을 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상의 제시 방식’, ‘대상에 대한 제시 방식’과 같은 표현은 모두 같은 관점을 담아낸다. 또한 본고는 ‘주체의 제시 방식’이라는 표현을 주체가 대상을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축약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대상의 제시 방식’과 ‘주체의 제시 방식’은 같은 표현에 대한 축약이다.



는 반면(McGinn, 2015:20), ‘셋별은 셋별이다’는 사소한 참이 된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이상의 기호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표현에도 뜻과 지시체의 구별이 적용될 수 있다. a,b,c를 삼각형의 꼭짓점과 그 맞변의 중점을 잇는 각각의 선들이라고 할 때, ‘a와 b의 교점’, ‘b와 c의 교점’, ‘a와 c의 교점’은 모두 삼각형의 내심을 가리키지만, 제시 방식에서, 즉 그 뜻에서 차이가 난다(FR:210).

더 나아가 문장에도 뜻과 지시체의 구별이 존재한다. 프레게에 따르면 문장은 사고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사고는 문장의 뜻에 해당한다(FR:214). 만약 사고가 문장의 뜻이 아니라면, 문장에서 등장하는 지시어를 동연(同延)적 지시어 *coextensive referring expression*로 대체할 때 문장이 표현하는 사고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셋별은 태양에 의해 빛나는 천체이다’라는 문장과 ‘개밥바라기는 태양에 의해 빛나는 천체이다’라는 두 문장에서 등장하는 ‘셋별’과 ‘개밥바라기’라는 지시어는 비록 다르더라도 동연적이다. 하지만 두 문장이 표현하는 사고는 분명 다른데, 왜냐하면 전자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후자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장의 뜻을 사고로 간주한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문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셋별’의 뜻과 ‘개밥바라기’의 뜻 뿐이다. 두 뜻에서의 차이가 두 문장이 표현하는 사고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한편으로 문장의 지시체는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진리값이다. 일상적 소통 맥락에서 대화의 참여자들은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진리값을 알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며, 문장의 뜻에서 그것의 지시체인 진리값으로 이행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한다(FR:216).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진리값은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진리 조건이 실제 세계에 의해 만족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명제는 진리 조건적으로 개별화되므로, 명제가 곧 진리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형성에는 문장의 구성요소들이 기여하므로, 문장의 구성요소들은 문장의 진리 조건 형성에 기여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프레게에 따르면 뜻은 언어에 충분히 능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



다(FR:210). 뜻은 소통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공통적인 소통 도구로서 활용되며, 언어와 관습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b,c를 한 삼각형의 꼭짓점과 그 맞변의 중점을 잇는 각각의 선들이라고 할 때, ‘a와 b의 교점’, ‘b와 c의 교점’과 같은 기술구가 표현하는 뜻은 객관적인 제시 방식을 담아 내고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 뜻은 달이라는 객관적 대상과 주관적 망막상 사이에 존재하는 광학상과 같다(FR: 212). 달을 관찰하는 현미경의 렌즈에는 달이 일정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와 맺힌다. 그 광학상은 공유되고, 그 광학상을 바탕으로 개인마다 다른 망막의 형태 위에 망막상이 맺힌다. 제시 방식 또한 광학상과 같이 언어의 일상적 사용자에게 공유되어 각 개인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수용한다.

문장과 사고, 그리고 진리값에 관한 프레게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될 수 있는 **대체 원리**를 전제하고 있다. 문장의 지시체가 진리값이라면, 문장의 일부가 같은 지시체를 가지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었을 때에도 그 값은 동일해야 한다(FR: 217,218). 그러나 대체 원리에 대한 반례가 될 수 있는 현상이 프레게에 의해 발견된다. ‘아무개는 [안긴문장]을 믿는다’, ‘아무개는 [안긴문장]을 욕망한다’, ‘아무개는 [안긴문장]를 안다’와 같은 명제 태도 보고<sup>propositional attitude report</sup>의 안긴문장에 등장하는 지시 표현을 동연적 지시 표현으로 대체했을 때 안은문장의 진리값이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FR:218). 영화 *슈퍼맨*을 참고하여 예시로 들 수 있는 문장 ‘로아 레인은 슈퍼맨이 강하다고 믿는다’를 보자 (DR:335).

(1) “로아 레인은 슈퍼맨이 강하다고 믿는다”

영화의 설정에서 슈퍼맨은 클락 켄트이다. 대체 원리가 적용된다면 안긴문장 안에 등장하는 지시어가 동연적 지시어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안은문장의 진리값



은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영화의 설정에서 로아 레인은 슈퍼맨이 클락 켄트라는 것을 모른다. ‘로아 레인은 슈퍼맨이 강하다고 믿는다’에서 슈퍼맨이라는 단어를 그 동연적 지시어인 클락 켄트로 바꾼 ‘로아 레인은 클락 켄트가 강하다고 믿는다’는 문장은 직관적으로 거짓이다.

(2) “로아 레인은 클락 켄트가 강하다고 믿는다”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 키케로에 관한 또다른 사례를 보자. 존은 키케로가 유능하며 많은 재산을 쌓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존은 키케로가 부자라고 믿는다’라고 할 수 있다.

(3) “존은 키케로가 부자라고 믿는다”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는 툴리우스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존은 키케로와 툴리우스가 전혀 상관 없는 인물이며 툴리우스는 오히려 가난하다고 생각한다고 가정하자. ‘존은 툴리우스가 가난하다고 믿는다’는 직관적으로 참이다.

(4) “존은 툴리우스가 가난하다고 믿는다”

여기서 ‘키케로’와 ‘툴리우스’는 동연적이다. 따라서 대체 원리에 의해 ‘키케로’는 ‘툴리우스’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5) “존은 키케로가 가난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안긴문장에 등장하는 단칭어인 ‘툴리우스’를 동연적 지시어인 키케로로



대체한 ‘존은 키케로가 가난하다고 믿는다’는 어딘가 부적절해 보이며, 거짓인 것처럼 보이고, 전자와는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믿음에 관한 퍼즐이라 불린다.

## 1.2 프레게적 해결책과 그에 대한 비판

프레게는 모든 상황에서 문장의 지시체가 진리값인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문장의 지시체가 문장에 의해 표현된 사고, 즉 문장의 뜻일 수 있음을 통해 퍼즐을 설명하고자 한다(FR:219). 프레게는 인용의 사례를 들어 화자가 단어의 지시체가 아니라 단어 자체 혹은 그 뜻에 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호소한다. 예를 들어 표현 ‘A’가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라 ‘A’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화자는 “표현 ‘A’의 뜻”이라는 구를 사용하여 ‘A’의 지시체가 아니라 간접적 지시체, 즉 뜻을 가리키고자 할 수 있다. 문장의 인용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뉘며, 직접 인용은 문장 그 자체를 지정<sup>designate</sup>하고, 간접 인용은 사고를 지정한다(FR:218). 프레게에 따르면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은 문장의 간접 인용에 해당한다(FR:219). 따라서 안은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은 안긴문장의 진리값이 아니라 안긴문장의 뜻이며, 이는 믿음 주체의 사고이다. 안은문장의 진리값은 안긴문장의 진리값과 상관이 없다는 점 또한 안긴문장의 뜻이 안은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듯하다(FR:219). 예를 들어, ‘존은 툴리우스가 가난하다고 믿는다’라는 문장의 안긴문장인 ‘툴리우스는 가난하다’는 거짓이지만, 그것은 문장의 진리 조건과 상관이 없다.

만약 믿음 동사의 범위에 있는 안긴문장의 지시체가 사고라는 프레게의 주장이 옳다면, 대체 실패 현상은 겉보기에만 그러할 뿐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 실패로 보이는 현상은 안긴문장의 지시체에 관한 혼동에서 비롯된다. 프레게



에 따르면 믿음 보고의 맥락에서 안긴문장에 등장하는 지시 표현을 동연적 지시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은 안긴문장의 뜻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안긴문장의 뜻을 변화시키는 것은 안은문장의 지시체 결정에 기여하는 구성요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안은문장의 지시체는 진리값이므로, 안은문장의 지시체 결정에 기여하는 구성요소를 변화시키는 것은 곧 안은문장의 진리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믿음 보고의 맥락에서 안긴문장에 등장하는 지시어를 동연적 지시어로 대체하는 것은 안은문장의 진리 조건에 변화를 일으킨다. ‘슈퍼맨’과 ‘클락 켄트’라는 단어는 안긴문장 바깥에서는 같은 대상을 지시하지만, 안긴문장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믿음 보고의 퍼즐로 보이는 현상은, 실제로는 다른 지시체를 가지는 표현이 같은 지시체를 가진다는 착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르카나티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프레게의 이론을 비판하였다. 그들의 비판의 공통점은, 프레게의 입장이 지시어의 의미적 습성<sup>semantic behavior</sup>이 단순한 문장에서든 복잡한 문장에서든 동일해야 한다는 순수성의 원리<sup>Principle of Innocence</sup>를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것이다(PAR:8; DR:327). ‘존은 키케로가 가난하다고 믿는다’라는 믿음 보고는 존과 키케로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에 대해서 묘사하며, 존과 키케로를 각각 지시해야만 한다(DR:326). 르카나티에 따르면 믿음 보고에 관한 프레게의 입장은 지시어가 일상적 방식으로 의미를 기여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전략인 ‘제한 전략’ 중에서도 극단적인 경우에 속하며, 브라이언 로어는 이를 ‘가장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평가하였다(DR:326). 르카나티에 따르면, 순수성의 원리는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해 보이는데, 그런 이론이 더 “단순하고 우아”하기 때문이다(DR:327). 예를 들어 ‘책과 질은 언덕을 올라갔고 책은 그녀가 먼저 올라갔다고 믿는다’라는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등장하는 ‘그녀’와 같은 대명사의 의미적 기여는 대명사의 뜻이 아니라 대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PAR:8).

또한 믿음 보고에 관한 프레게의 이론에는 다른 문제들도 존재하는데, 이는



믿음 맥락에서 지표사<sup>indexical</sup>와 직시사<sup>demonstrative</sup>3)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프레게에게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은 믿음 주체가 믿음의 대상에 관해 표상하는 방식, 즉 믿음 주체의 제시 방식을 표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믿음 보고 화자의 지표사의 사용과 연관된 관점이 믿음 주체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믿음 주체가 믿음 대상을 직시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믿음 보고 화자는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직시사를 포함하여 발화할 수도 있다(PAR:13). 또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한 집단적 믿음 보고 또한 프레게의 이론에 대한 반례로 지목된다. 이 경우 집단적 믿음 보고 문장은 다수의 믿음 주체가 믿음 대상에 관해 표상하는 방식을 일일이 포착하지 못한다는 문제, 즉 뜻의 다양성 문제가 발생한다(PAR:13).

이어지는 절에서 본고는 크립키의 퍼즐을 다뤄보며 믿음 보고에 관한 퍼즐에 크립키의 통찰이 기여하는 바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절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리처드의 퍼즐을 살펴보며 프레게적 해결책이 가지는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짚어본다.

## 2. 믿음에 관한 크립키의 퍼즐

### 2.1 크립키의 비판과 퍼즐 : 탈인용 원리와 번역 원리를 중심으로

크립키는 『이름과 필연』을 통해 프레게-러셀식의 이름에 관한 기술구 이론 *descriptive theory of name*을 비판하였다(Kripke, 1972). 이름에 관한 기술구 이론은,

3) 지표사<sup>indexical</sup>는, '나', '여기'처럼 발화의 맥락을 대입하면 그 지시체를 구별할 수 있는 표현이다. 직시사<sup>demonstrative</sup>는 '그', '이', '저'처럼 과소결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성<sup>plausibility</sup>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청자가 지시체를 결정해야 하는 표현이다.





이름은 어떠한 기술구의 축약이며, 이름의 지시체가 그러한 기술구의 만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직시사와 지표사로부터 프레게적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듯이 크립키는 이름에 관해서 그것의 사용에 공통적인 프레게적 뜻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지적하였다(PB:134).<sup>4)</sup> 대신 크립키는 대안적인 이론인 이름에 관한 인과 이론<sup>causal theory of name</sup>을 제시한다. 이름에 관한 인과 이론은 이름의 사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어떤 그림을 제시한다. 첫째, 이름에 대한 최초의 명명 의식이 존재한다. 둘째, 이름 사용 관습은 인과적 고리를 통해서 전달된다. 셋째, 이름 사용자들은 지시-보존 의도를 가지고 이름 사용 관습에 참여한다(Kripke, 1972). 이름에 관한 인과 이론은 이름의 사용을 통해 표현된 사고가 사물을 직접적으로 수반한다는 직접지시론적 입장을 함축하고 있다. 이름을 활용해 표현된 사고의 진리 조건에 유관한 것은 이름의 지시체이며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크립키의 이론은 믿음에 관한 퍼즐을 발생시킨다. 직접지시론은 명제 태도 동사의 범위 내에 있는 동연적 지시 표현의 대체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PAR:52). 크립키는 믿음에 관한 퍼즐을 다루면서 직접지시론을 직접적으로 변론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대신 동연적 지시 표현의 상호 대체 가능성이 퍼즐의 실제 근원이 아님을 보임으로써 간접적으로

4) 프레게적 사고에 속하는 것은 영원하며,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 프레게적 뜻은 마치 함수처럼 화자의 발화 맥락을 입력받아 지시체를 출력하지 않으며, 지시체와의 직접적 관련 속에서 그것을 유일하게 결정한다. 다시 말해, “뜻은 화자의 발화맥락으로부터 지시체로 데려가 주지 않고, 곧바로 지시체로 데려간다” (Perry:1977, 479). 직시사와 지표사는 이런 뜻 이론에 문제점이 된다. 화자의 자기중심적 맥락에 민감한 직시사와 지표사의 ‘성격<sup>character</sup>’ 혹은 ‘역할<sup>role</sup>’은 프레게 철학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떠한 개념으로도 환원 불가능하다(Perry:1977, 479). 문장이 직시사 혹은 지표사를 담고 있고, 그것이 프레게적 뜻을 가진다면 그 문장의 발화를 통해서 표현된 사고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오늘 러시아와 캐나다가 싸웠다’는 8월 1일에 발화되었을 때는 참이고, 8월 2일에 발화되었을 때는 거짓이라고 하자. 두 사고의 진리값이 서로 다르므로, 표현된 두 사고는 서로 다르다. 프레게에 따르면 사고와 뜻이 동일하므로, 8월 1일의 ‘오늘’에 의해서 보충되는 뜻과 8월 2일의 ‘오늘’에 의해서 보충되는 뜻은 달라야만 한다. 그리고 그 보충되는 뜻은 직시사 혹은 지표사의 성격이나 역할과 동일시할 수 없다. 두 사고가 다르다면 성격이나 역할은 고정되어 동일할 수 있지만, 뜻과 사고의 동일시에 의해 뜻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시사의 대상은 변화하기 때문에 직시사의 뜻은 어떠한 고정된 기술구의 축약일 수 없다. 결국 직시사와 지표사의 뜻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실패한다(Perry,1977:486-487).



로 직접지시론을 변론하고자 하였다(PAR:52). 크립키는 대체 원리를 호출하지 않고 그보다 더 일반적인 원리들을 호출하여 믿음에 관한 퍼즐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퍼즐이 직접지시론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본고는 크립키가 믿음에 관한 퍼즐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보고, 믿음에 관한 퍼즐 해명에서 유의미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 이번 절에서 크립키의 퍼즐을 살펴본 후, 2장의 2.2절에서는 크립키의 퍼즐을 해명해 본다.

크립키는 먼저 탈인용 원리<sup>disquotation principle</sup>(문맥 이동 원리<sup>context-shift principle</sup>)<sup>5)</sup>를 도입한다. 탈인용 원리는 일상적인 한국어 화자가 진중한 반성을 통해 ‘p’에 동의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질 때 그는 p를 믿는다고 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PB:137)<sup>6)</sup>. 예를 들어, 피터가 진중한 반성을 통해 “신은 존재한다”에 동의한다면 그는 신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화자가 진중한 반성을 통해 ‘p’에 동의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p를 믿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른 언어 화자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진술할 수 있다. 이는 문장이 특정한 언어에서 참을 표현한다면, 그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문장 또한 참을 표현한다는 번역 원리<sup>translation principle</sup>이다(PB:139). 만약 피에르가 “Dieu existe.”에 동의한다면 그는 신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크립키에 따르면 이러한 원리들만으로 믿음에 관한 퍼즐을 유도할 수 있다. 대체 원리를 가정하지 않고도 믿음에 관한 퍼즐을 만들 수 있다면, 대체 원리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은 설득력을 잃는다.

프랑스를 한번도 떠나지 않은 프랑스어 사용자인 피에르가 “Seoul est jolie”라고 발화한다고 하자.<sup>7)</sup> 화자는 여기에 탈인용 원리를 적용하여 ‘Pierre croit

5) 문맥 이동 원리라는 표현은 PAR에서 크립키의 탈인용 원리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6) 여기서 p는 직지사나 지표사를 배제하고 기술되어야 한다고 크립키는 말한다. (Kripke, 1979: 137)

7) 원문에서는 서울이 아니라 런던에 관한 믿음 귀속 문장을 논의한다. 본고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피에르가 이사한 장소를 런던이 아니라 서울이라고 설정하고, 피에르가 배운 외국어도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라고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que Seoul est jolie'라는 문장을 얻을 수 있고, 번역 원리를 적용하여 '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라는 문장을 얻을 수 있다.

(6) 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

피에르는 서울로 이사를 하고, 빠듯한 예산으로 인해 빈민촌에서 살게 된다. 그곳은 피에르가 프랑스에서 서울에 대해서 들었던 것과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피에르는 그가 지내는 곳이 '서울'이라는 것 또한 학습한다. 그때, 피에르는 "서울은 아름답다"라는 문장에 동의하기를 거부할 것이다. 여기에 화자는 탈인용 원리를 적용하여 '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지 않는다'를 얻을 수 있다.

(7) 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지 않는다.

피에르가 "서울은 아름답다"는 한국어 문장에 동의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이전에 프랑스에서 했던 'Seoul est jolie'라는 문장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후자의 믿음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굳건하다. 그가 서울에 대해서 마음을 바꿨다거나, 그의 이전의 믿음을 포기했다고도 할 수 없다. 화자는 그의 프랑스어 발화와 한국어 발화를 모두 존중해야만 하며, 탈인용 원리와 번역 원리와 같은 일반적 원리를 따른다면, 피에르에게 모순된 믿음을 귀속시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고, 또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지 않는다. 크립키에 따르면 이러한 모순적인 믿음 귀속은 피에르에게 결코 정당하지 않은데, 피에르는 합리성을 지닌 철학자이자 논리학자이므로 어떠한 모순적인 믿음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서울'과 'Seoul'이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만약 두 단어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스스로의 믿음의 모순성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에게 논리적인 불합치성<sup>inconsistency</sup>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PB:146). 크립키는 피에르뿐만 아니라 믿음 보고 화자에게도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프랑스어 화자로서의 피에르를 통해서 화자는 그가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고 결론내렸고, 한국어 화자로서의 피에르를 통해서 화자는 그가 서울이 아름답지 않다고 믿는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크립키는 번역 원리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탈인용 원리만을 사용해서도 퍼즐이 유효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한다(PB: 154). 크립키가 직접 사용한 예시에서, 피터는 유명한 폴란드인 피아니스트의 이름으로 ‘파데렙스키’라는 이름을 학습한다. 화자는 다음과 같은 믿음 귀속을 도출할 수 있다. “피터는 파데렙스키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믿는다.” 이후에 피터는 ‘파데렙스키’라는 이름을 폴란드 총리의 이름으로 믿는다. 그리고 피터는 그 정치인의 음악적 재능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는 “파데렙스키는 음악적 재능이 없다”는 말에 동의한다. 탈인용 원리에 의해, 화자는 “피터는 파데렙스키가 음악적 재능이 없다고 믿는다”는 문장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이전의 믿음 귀속과는 모순되므로, 퍼즐의 상황이 연출된다.

따라서 이는 수수께끼다. 일상적 언어의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원리들은 이러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 모순을 발생시킨다(PB:147). 만약 여기서 ‘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가, 아름답다고 믿지 않은가?’와 같은 질문을 맞닥뜨린다면, 화자는 어떠한 명확한 대답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각각의 믿음 보고와 관련한 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사실적 묘사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결코 아니다(PB:147). 믿음에 관한 퍼즐의 사례들은 일상적 언어의 사용자가 믿음 귀속에서 사용하는 일반적 원리들이 모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PB: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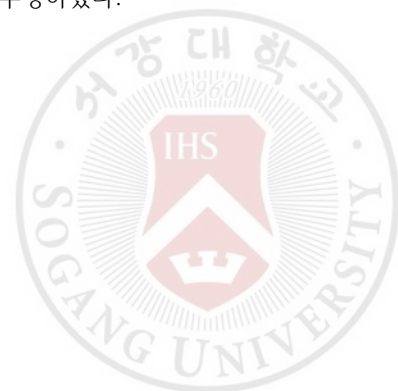
크립키의 퍼즐은 앞선 절에서 존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믿음에 관한 프레게



의 퍼즐과 매우 흡사하다. 존의 사례 역시, 탈인용 원리와 번역 원리를 통해서 재구성되어 이해될 수 있다(PB:156).<sup>8)</sup> 직관적으로, 존이 ‘키케로는 부자이다’와 ‘툴리우스는 부자가 아니다’에 동의할 수 있는 근원은, 피에르가 ‘Seoul est jolie’와 ‘서울은 아름답지 않다’에 동의할 수 있게 하는 근원과 동일하다(PB: 157). 그리고 탈인용 원리만을 이용하여 퍼즐을 구성할 수 있음은, 대체 원리가 퍼즐의 근원이 아님을 보여준다. 퍼즐의 상황의 연출 과정에서 대체 원리는 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믿음에 관한 퍼즐의 현상이 ‘믿음 맥락에서 동연적 지시어가 진리값의 변화 없이 대체가능하지 않다’라는 식의 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에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크립키에 따르면, 오히려 믿음에 관한 해석과 귀속에 일반적 원리들을 사용하는 관습이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관습은 더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망가진다. 그 관습과 함께 망가지는 것은, 그 귀속이 표현하는 명제 혹은 내용의 개념이다(PB:158). 믿음에 관한 퍼즐의 발생의 근원은 단칭어의 대체 가능성에서 찾아질 수 없다. 그 역설은 ‘내용<sup>content</sup>’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발생하며(PB:160), 이는 대체 가능성과는 상관없음을 고려했을 때, 믿음에 관한 퍼즐은 이름에 관한 직접 지시적 이론을 포기하고 프레게적 기술구 이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도 없다.

크립키는 믿음 주체에게 발생하는 모순과, 귀속 행위의 주체에게 발생하는 모순 모두에 주목한다. 전자의 모순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합리성의 원리**에 의해 그러한 것처럼 보인다: 주체가 한 명제와 그것의 부정을 동시에 믿는다면 그는 비이성적이다(PAR:22). 이러한 합리성의 원리에 의해서 피에르에게, 그리고 피터에게 비합리성이 귀속된다. 하지만 이는 **수정된 합리성\*의 원리**를 도입한다면 비교적 손쉽게 해결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믿음 주체가 같은 방

<sup>8)</sup> 본문에서는 존(John)이 아니라 존스(Jones)를, 그리고 ‘존은 키케로가 가난하다고 믿는다’가 아니라, ‘존은 키케로가 대머리라고 믿는다’의 사례를 사용하였지만, 편의를 위하여 수정하였다.



식으로 같은 시간에 한 명제와 그 부정을 믿을 때 그는 비이성적이다(PAR:22). 피에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 명제와 그 부정을 믿으므로, 피에르의 합리성은 변론 가능하다.

그러나 크립키가 주목하는 문제는 단순히 믿음 주체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 이상이다. 크립키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귀속을 행하는 화자에게서 발견한다. 앞서 행한 귀속과, 이후에 행한 귀속은 언어의 의미상에서 서로 충돌한다. 이는 귀속이라는 언어적 행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귀속을 행하는 화자가 모순에 빠지도록 옳아맨다. 믿음 귀속을 수행하는 화자는 스스로 행한 귀속이 서로 언어적으로 충돌하며 모순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화자의 말에 의해 일어나는 이러한 충돌을 명백하게 해결할 도구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믿음 주체뿐만 아니라 믿음 귀속을 행하는 화자에게서 모순이 발견된다는 것은 곧 화자의 발의 '내용'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퍼즐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믿음에 관한 퍼즐이 화자의 사고의 표현과 소통에 관한 문제임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논의의 진행에 앞서 화자의 사고의 표현과 소통에 관련된 다음의 구별을 도입할 있다. 이번 절에서 사용된 믿음 귀속이라는 표현은 크립키의 논문에 등장하는 'belief ascription'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믿음 귀속'은 탈인용 원리와 번역 원리만을 사용하여 얻어지며, 반드시 청자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는 믿음 보고<sup>belief report</sup>와 구별되는데, 믿음 보고는 '보고'라는 표현이 그러하듯 청자를 염두에 둔 표현이기 때문이다. 즉 보고는 대화적 소통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발화이다. 믿음 보고는 믿음 귀속을 활용하기 때문에, 믿음 보고는 믿음 귀속을 포함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표현은 혼용되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믿음 귀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둘은 개념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몇몇 믿음 보고는 단순히 탈인용 원리와 번역 원리만



이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본고에서 성공적 믿음 보고는 단순한 믿음 귀속과는 구별된다. 성공적 믿음 보고에 관한 내용은 2장에서 소개된다.

## 2.2 퍼즐 분석에 대한 직접지시 이론의 기여 : 발화에 의해 표현된 의미적 내용에 관한 신프레게주의-신러셀주의 논쟁

믿음 귀속에 관한 현대의 논의는 크립키의 직접지시론의 바탕 위에서 전개된 한 흐름의 논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 논쟁은 직접지시적 표현을 담은 문장의 발화<sup>9)</sup>에 의해서 표현된 의미적 내용<sup>semantic content</sup>을 사고<sup>thought</sup>로 보아야 하는지 단칭적 명제<sup>singular proposition</sup>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신-러셀주의와 신-프레게주의의 논쟁이다(DR:26-41). 신-러셀주의와 신-프레게주의는 『이름과 필연』에서 제시된 크립키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신-러셀주의와 신-프레게주의는 고유명, 지표사, 그리고 직시사와 같은 표현을 담은 문장의 발화의 의미적 내용이 사물을 직접적으로 수반하며, 발화의 의미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을 식별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직접지시적인 입장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신-러셀주의와 신-프레게주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편의를 위해 ‘고유명, 지표사, 그리고 직시사와 같은 직접지시적 표현을 담은 문장의 발화’를 간단히 ‘발화’라고 말하자. 신-러셀주의자는 발화의 의미적 내용이 단칭적 명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신-프레게주의자는 발화의 의미적 내용이 사고라고 주장한다. 르카나티는 이 둘의 차이가, 지시체에 대한 사고 주체의 제시 방식을 의미적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는가의 여부라고 말한다. 신-러셀주의자는 지시체에 대한 사고 주체의 제시 방식이 의미적 내용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다(DR:32). 신-러셀주의에서 의미적 내용은 (사물을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단칭적 명제로 표상되며, 그 단칭적 명제는 진리 조건적으로 개별화

9) 이 절에서 ‘직접지시적 표현을 담은 문장의 발화’를 간단히 ‘발화’라고 표현할 것이다.





된다. 명제가 진리 조건적으로 개별화된다는 것은 곧 두 명제의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조건이 같을 때 두 명제가 동일하며,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조건이 다르다면 두 명제는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신-러셀주의자들은, 지시체의 제시 방식은 발화의 진리 조건에 무관하기 때문에, 발화의 의미적 내용의 일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그<sup>he</sup>는 대머리이다”라는 발화에서 ‘그<sup>he</sup>’라는 표현은 지시체의 제시 방식을 담아낸다. 이는 그 표현이 지시하는 사람이 남성이라는, 언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제시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시 방식은 저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진리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저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화자에 의해 지시되는 그 사람이 대머리라는 것일 뿐이다.<sup>10)</sup> 이에 반해 신-프레게주의자는 지시체의 제시 방식이 발화에 의해서 표현된 의미적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의미적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언어적으로 표시된 지시체의 제시 방식이라기 보다는, 그보다 한층 더 나아가 식별된 대상에 관해 형성된 제시 방식이다. 적어도 어떤 발화는 대상에 대한 주체의 제시 방식에 관해 청자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청자는 그 발화를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식별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브라이언-로어의 다음과 같은 예시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스미스와 존스는 매일 아침 기차에서 어떤 사람을 본다. 그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TV 인터뷰에 등장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 기차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스미스가 TV를 가리키며 ‘그는 증권 중개인이다’라고 말한다고 해 보자. 존스는 스미스가 기차에 있는 사람을 지시한다고 생각한다. 존스는, 스미스의 발화의 지시체를 우연히 옳게 식별하였다. 하지만 존스는 스미스

<sup>10)</sup> 화자는 지시체의 성별을 착각하였을 수도 있지만, 직접지시문에서는 이것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사고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 그 경우에 그 표현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가지는 어떤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기만 할 뿐, 화자가 표현하는 사고의 진리 조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의 발화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이 지점은 신-프레게주의와 신-러셀주의 사이의 논쟁이 믿음에 관한 퍼즐과 맞닿는 지점이다. 다음과 같은 명백한 퍼즐의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존스는 대화의 주제였던 그 사람에 관한 ‘그는 증권 중개인이다’라는 스미스의 발화에 동의한다. 여기서 화자는 ‘존스는 그 사람이 증권 중개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믿음 보고를 할 수 있다.<sup>11)</sup> 하지만 존스는 기차에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한 ‘그는 증권 중개인이다’라는 문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존스는 그가 증권 중개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역설의 상황이 연출되는데, TV 인터뷰에 등장하는 사람이 증권 중개인이기 때문이다(Loar, 1976:357; DR:53). 이는 믿음에 관한 퍼즐이다. 만약 신-러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단칭적 명제만이 발화에 의해서 표현된 의미적 내용이라면, 이러한 역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사례는 사고 주체가 대상에 관해서 사고하는 구체적인 제시 방식이 소통되는 바에 매우 본질적임을 말해준다(Loar, 1976:357; DR:53). 사고 주체가 대상에 관해 사고하는 구체적 방식을 대물적<sup>de re</sup> 제시 방식이라고 한다. 이 사례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사고 주체의 대물적 제시 방식이다. 스미스의 발화에서 등장하는 ‘그’라는 대명사의 지시체에 대한 스미스의 대물적 제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스미스의 발화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프레게주의자는 스미스의 발화(‘그는 증권 중개인이다’)가 ‘그’라는 대상에 대한 —TV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대물적 제시 방식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이 스미스의 발화의 의미적 내용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말한다. 적어도

11) 여기서 믿음 귀속이 아니라 믿음 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탈인용 원리에 대해서 크립키가 한 제약 때문이다. 크립키는 탈인용 원리에서 안긴문장에 등장하는 지시 표현이 직시사나 지표사를 제외하고 기술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직시사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크립키의 제약에 걸린다. 따라서 믿음 귀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그’라는 직시사가 상황에 맞게 식별될 수 있도록 화자와 청자를 전제하는 대화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보고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청자가 발화의 의미적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리 조건적 내용뿐 아니라 대물적 제시 방식 또한 이해해야 한다. 스미스의 발화의 의미적 내용은 ‘그[TV에 등장하는 사람]는 증권 중개인이다’으로 표상될 수 있으며, 만약 존스가 스미스의 발화의 의미적 내용을 ‘그[기차를 탄 사람]는 증권 중개인이다’로 이해한다면 스미스의 발화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만약 정말로 발화의 의미적 내용에 믿음 주체의 제시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표현의 의미적 내용에 제시 방식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르카나티의 이론은 의미적 내용에 제시 방식을 포함시킬 수 있는 한 방식을 제시한다. 2장에서 르카나티의 이론을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 3. 믿음에 관한 리차드의 퍼즐

#### 3.1 리차드의 비판과 퍼즐 : 안긴문장 바깥의 단어의 변화를 중심으로

리차드는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 바깥에 등장하는 표현의 변화만으로도 믿음에 관한 퍼즐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리차드의 퍼즐에는 안긴문장 안에서 등장하는 단칭어의 대체에 관한 해법이었던 프레게적 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곧바로 그 예시로 들어가 보자. 빌은 샬리와 통화하면서 한 증기 롤러가 전화부스로 돌진하는 것을 본다. 빌은 그 전화부스 안에 있는 사람이 샬리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Richard, 1983:439). 빌은 “너[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샬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발화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빌은 따라서 “나는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샬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라고 스스로에 대해 믿음 보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샬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



고 믿지 않는다”라고 보고<sup>12)</sup>할 것이다.

(8) “나[빌]는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셸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9) “나[빌]는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셸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반면 빌은 “그녀[전화 부스에 있는 사람]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발화에는 동의한다. 따라서 “나는 그녀[전화 부스에 있는 사람]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와 같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0) “나[빌]는 그녀[전화 부스에 있는 사람]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전화 부스 안에 있는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고 믿는 빌은 그녀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서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면서 경고한다. 전화 부스 안에 있는 셸리는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자신이 위험에 빠져 있다고 믿으며 손을 흔들어 경고한다고 생각한다. 셸리는 통화로 빌에게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한다. 빌은 셸리의 말을 믿고, (11)“창문 밖에서 너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은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셸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에 동의할 것이다.

(11) “창문 밖에서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셸리]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은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셸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창문 밖에서 셸리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사람은 빌이다. (8)과 (11)의 안긴문장은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셸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로 서로 동일하다. (8)과

<sup>12)</sup> 각주 11과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나’와 ‘너’라는 직접지시적인 표현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청자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대화적 상황에서 사용되므로, ‘믿음 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1)의 차이는, 안긴문장의 바깥에 있는 지시 표현이다. 그 지시 표현 각각 ‘창문 밖에서 너를 향해 손 흔드는 사람’과 ‘나’으로 서로 다르다. 믿음에 관한 퍼즐에 대한 일반적인 프레게적 해결책은,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등장하는 지시 표현의 지시체가 관습적 지시체가 아니라 간접적인 지시체라고 하는 제한 전략이었다(DR:326). 그러나 프레게의 전략을 따라서 안긴문장 안에 등장하는 지시 표현이 문장의 진리 조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는 대체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안긴문장의 바깥에 등장하는 표현의 대체까지 제약할 수는 없다. 문장의 지시체인 진리값을 결정하는 것은 문장의 구성요소들의 지시체이며, 안긴문장의 바깥에 등장하는 표현은 지시체를 진리 조건에 기여한다. 따라서 안긴문장의 바깥에서 한 표현을 그것과 동일한 지시체를 가진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은 문장의 진리값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빌의 발화에서 ‘나’와 ‘창문 밖에서 너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그 대체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11)은 ‘창문 밖에서 너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을 ‘나’로 대체한 (11’) “나는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샬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와 동일한 진리값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11’) “나[빌]는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샬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11’)는 (8)과 형식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11’)는 (11)로부터 파생되므로, (11)은 (8)을 진리 조건적으로 함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빌은 (8) 대신 (9)를 스스로에 대한 믿음 보고로 선택할 것이다. (8)과 (9)는 모순적이다. 문장의 언어적 의미에 의해, (8)이 참이라면 (9)는 거짓이어야 하고, (8)이 거짓이라면 (9)는 참이어야 한다. 그러나 (9)와 (11)은 각각 상황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11)은 (8)을 진리 조건적으로 함축한다. (8)은 (9)와 모순적이다. 즉 모순적인 믿음 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빌에 관해, ‘빌은 샬리가 위험에 처



해 있다고 믿는다'와 '빌은 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역설이다. 리처드의 퍼즐은 일반적인 프레게적 해법이 와해되는 지점을 조명해준다. 리처드의 퍼즐은, 믿음에 관한 퍼즐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 바깥에 등장하는 지시어의 대체에 의해 연출되는 역설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해준다. 본고는 다음 장에서, 르카나티의 이론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론은 일반적인 프레게적 상황뿐만 아니라, 크립키와 리처드의 사례 또한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 3.2 퍼즐 분석에 대한 화용론의 기여 : 함의론을 중심으로

리처드는 (8)과 (9)의 차이를 함의론<sup>implicature theory</sup>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Richard, 1983; PAR:57). 함의론은 폴 그라이스의 화용론<sup>pragmatics</sup>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라이스에 따르면 함의<sup>implicature</sup>란 말해진 바<sup>what is said</sup>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말해진 바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전달되는 화자의 의미이다(Grice, 1989:24). 함의는 소통-의도<sup>meaning-intention</sup>를 기반으로 발생하며 전달된다. 대화적 함의<sup>conversational implicature</sup>의 예를 들어 소통-의도에 기반한 함의의 발생에 대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화의 참가자들은 협력 원칙<sup>the Cooperative Principle</sup>을 바탕으로 파생된 여러 격률<sup>maxim</sup>들을 지켜야 한다. 격률들은 양<sup>Quantity</sup>, 질<sup>Quality</sup>, 관계<sup>Relation</sup>, 태도<sup>Manner</sup>로 크게 네 가지의 범주로 나뉘질 수 있다(Grice, 1989:26). 대화적 함의는 대화에 관한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파생된 여러 격률들을 의도적으로 공공연하게 위반하며<sup>flout</sup> 발생한다. 격률은 함의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용<sup>exploit</sup>된다. 함의를 소통하고자 하는 화자는 대화의 격률을 원용하면서 청자에게 함의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을 청자가 알아차리기를 의도한다. 청자 또한 그러한 화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청자가 함의를 이해하기를 화자



가 의도했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상호적 앎에 근거한 복잡한 화자의 의도를 소통-의도(meaning-intention, M-intention)라고 부른다. 화자가 청자-지향적인 소통-의도를 가질 때, 화자는 특정한 상태를 청자에게 불러일으키려고 하며, 그 상태의 성립이 청자가 화자의 소통-의도를 알아차림에 적어도 일부분은 근거하기를 의도한다. 간단히 말해, 함의는 소통-의도된다. 예를 들어 대화의 참가자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는 양의 격률을 지켜야 한다. 만약 화자가 한 주제에 관한 대화의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함의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함의된 바는 말해진 바에 추가적인 의미의 전달이므로 말해진 바와는 구별되는 명제이며, 취소가능성을 가진다(Grice, 1989). 또한 ‘그리고’, ‘혹은’과 같은 부사는 그것의 논리연결사적 의미에 더해서 때때로 추가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왜<sup>why</sup>, 언제<sup>when</sup>, 어디서<sup>where</sup>, 무엇을<sup>what</sup>과 과 같은 의문사를 담은 질문에 대해 ‘혹은’을 포함하여 대답을 한다면, 화자는 어떠한 비진리함수적인 기반에 의해 그러한 대답을 한다는 것 또한 의미할 수도 있다. 예컨대 화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a인지 b인지 헷갈리는 상황일 수 있으며, 이 때 부정확한 정보를 주는 대신 ‘a 혹은 b’라는 대답을 하여 차라리 불명확하더라도 안전한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화자에 의해 말해진 바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라이스는 이 추가적인 의미를 함의라고 말한다(Grice, 1989). 중요한 것은 함의가 소통-의도를 기반으로 발생하며 전달된다는 것이다. 함의의 발생은 화자가 말해진 바에 더해 추가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소통-의도에 의존적으로 이루어진다. 소통-의도에 기반하여 함의가 발생하고 전달된다는 사실은, 대화적 함의뿐만 아니라 일반화된 대화 함의, 비관습적 함의에도 해당하는 일반적인 원리로서 여겨진다.

믿음에 관한 퍼즐을 해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함의론적 입장의 골자는, 일상적 대화의 참여자의 소통적 직관이 말해진 바뿐만 아니라 함의된 바에까지 걸쳐



있으며, 믿음 보고에 함의된 바에 관한 직관이 믿음에 관한 퍼즐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믿음 보고에 관한 함의론에 따르면, 믿음 보고는 문장에 의해 말해진 바에 더해 함의를 추가적으로 전달한다. 예를 들어서, ‘존은 키케로가 가난하다고 믿는다’라는 믿음 보고는, 존이 ‘키케로는 가난하다’는 문장에 동의할 것이라는, 즉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믿음 주체가 동의할 것이라는 함의 또한 담고 있다고 함의론자들은 주장한다(DR:329). 리차드에 따르면, 청자의 소통적 직관은 그 함의를 소통된 내용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이는 믿음에 관한 전통적 프레게적 해법이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지점 또한 설명해 준다고 함의론자들은 주장한다. (8)과 (9)에서 믿음 보고는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셸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안긴문장에 대한 서로 다른 함의를 전달한다. (8)은 빌이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동의할 것이라는 함의를 전달하는 반면, (9)는 빌이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함의를 전달한다. 통화 상대방으로서의 셸리가, 증기롤러가 돌진하고 있는 전화부스 안의 사람으로서의 셸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빌의 믿음 상태에 (9)가 가지는 대화적 함의가 부합한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는 (11)로부터 (8)을 도출할 수 있지만, 이는 빌이 안긴문장에 동의할 것이라는 잘못된 함의를 전달할 것이다. 따라서 문장의 진릿값에 대한 직관은 설명된다고 함의론자들은 말한다.

르카나티는 함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한다. 함의 이론은 믿음 보고의 진리 조건에 관한 우리의 직관을 왜곡한다. 함의 이론에 따르면 (8)과 (9)의 말해진 바의 진리값은 각각 참과 거짓이다. 믿음 보고의 진리 조건에 대상에 대한 제시 방식을 포함하지 않은 단칭적 명제만이 유관하기 때문이다. 함의론자들에 따르면 믿음 보고의 진리값에 대한 직관이 일상적인 직관과 어긋나는 이유는 대화의 일상적 참가자의 직관이 말해진 바와 함의된 바를 잘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함의 이론에 따르면 (8)의 안긴문장은 단칭적 명제를 표현하고, 그 문장이 표현하는 것은 빌이 셸리에 관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빌은 비록



전화 부스 안에 있는 사람이 셸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만, 전화 부스 안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셸리이므로 빌은 셸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잘못된 함의를 전달할 뿐이다. 일상적 화자들이 이 문장이 거짓을 표현한다는 직관을 가지는 이유는, 이 직관이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셸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에 빌이 동의할 것이라는 함의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 직관에 따라 청자는 빌이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셸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에 동의할 것이라는 함의를 거짓이라고 판단할 것이며, 그 때문에 그 발화가 거짓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르카나티는 함의론자들이 말해진 바와 함의된 바 간의 구별에 대한 일상적인 직관을 과소평가하였다고 말한다. 함의된 바는 말해진 바와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명제를 추가적으로 전달하며, 우리는 이러한 함의를 다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전이론적<sup>pre-theoretical</sup> 직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능력을 가지고 있다(DR:338). 대신 르카나티는 함의와는 구별이 되지만 축자적으로<sup>literally</sup> 말해진 바에 더해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요소가 존재하며,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일상적 직관이 구별하기 어려운 화용론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르카나티에 따르면, 믿음에 관한 퍼즐의 해명에서 함의론자들이 실제로 호소하고 있는 화용론적 요소는 함의와는 다른, 발화에 의해 말해진 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소이다. 즉 함의론자들이 ‘함의’라고 부르며 호소하는 어떤 요소는 사실은 믿음 보고를 통해서 말해진 바와 깊게 연루되어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sup>13)</sup>

말해진 바에 관한 일상적인 직관이 보전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르카나티는 “빌은 셸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믿지 않는다”와 같은 복잡한 문장에 관한 직관에 대해서 함의론자들이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놓지 못함을 지적한다. 르카나티의 논증은 부정문의 의미론과 연관되어 전개된다(DR:343-344). 함의론자들은 “빌은 셸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믿는다”가, 단칭적 명제를 말하고, 그 함의는 “셀

<sup>13)</sup> 말해진 바에 관한 르카나티의 입장은 2장 1.3절에서 자세하게 서술된다.





리가 위험에 처했다”라는 안긴문장에 대해서 빌이 동의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빌이 쉐리에 대해서 ‘쉐리’라는 제시 방식 아래에서 사고할 것이라는 점을 함의한다고 말한다. 부정어는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는 논리적 연결사 전반은— 단순한 문장에 의해 일반적으로 말해진 바를 부정하므로, “빌은 쉐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믿지 않는다”는, “빌은 쉐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믿는다”라는 단칭적 명제의 부정이다. 여기서 함의론자들은 단순한 문장에 의해 함의된 바 또한 부정문에 의해 부정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말해진 바에 속하지 않는 함의의 부정이 어떻게 말해진 바에 속하는 부정어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설명이 부재하다. 부정어뿐만 아니라, 부정어를 포함하는 논리연결사 전반이 단순한 문장의 함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미론이 제공되지 않았다. 복잡한 문장에서 논리적 연결사가 하는 역할이 말해진 바뿐만 아니라 함의된 바에까지 적용된다고 전제할 수 없다. 만약 함의된 바가 부정연산자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말해진 바의 바깥에 있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는 함의된 바가 말해진 바와 구별된다는, 함의된 바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에 모순된다. 함의론자들은 부정어와 함의 간의 논리적인 연관관계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함의가 어떻게 부정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함의론자들은 믿음 보고에 대한 그들의 설명에 결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르카나티는 함의 이론은 포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말해진 바와 함의된 바를 분리하는 함의론자들의 전략은 복잡한 문장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논리적 연결사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더욱 복잡한 믿음 문장들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함의론자에 의해서 함의로 말해진 것들은, 화용론적으로 결정되어 말해진 바에 기여하는 요소여야 한다. 만약 믿음 보고 문장에서 함의론자들이 함의된 바라고 일컫는 것이, 말해진 바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해진 바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혹은 말해진 바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논리적 연결사가 초래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설명하는 데에도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DR:341-342).

비록 믿음 보고에 관한 함의론의 입장은 비판되었지만 퍼즐 분석에 대해 함의론을 포함하여 화용론 전반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화용론은 의미의 층위를 다양하게 구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이는 믿음 보고의 내용에 관한 논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화용론은 믿음 보고에 의해서 —반드시 함의일 필요는 없는— ‘소통된 바’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해석은 후에 말해진 바에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요소가 존재하고, 그것이 믿음 보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르카나티의 이론을 형성하는 데에 바탕이 되었다.



## II.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 이론의 장점

### 1.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

#### 1.1 신프레게주의와 신러셀주의의 장점을 모두 받아들인 이론

르카나티는 ‘나’, ‘여기’와 같은 지표사<sup>indexical</sup>, ‘저’와 같은 직시사<sup>demonstrative</sup>, 고유명 등이 해당하는 직접지시적 표현을 포함하는 문장의 발화에 의해 표현된 의미적 내용에 관한 신-프레게주의와 신-러셀주의의 통찰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 간의 화해의 핵심은 직접지시적 표현을 포함하는 문장의 발화에 의해서 표현된 의미적 내용을 준-단칭적<sup>quasi-singular</sup> 명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준-단칭적이라는 표현은, 단칭적 대상과 속성으로 구성되는 단칭적 명제뿐만 아니라, 진리 조건적으로 무관한<sup>truth-conditionally irrelevant</sup> 대물적<sup>de re</sup> 제시 방식 또한 의미적 내용에 포함한다는 것을 뜻한다. 대물적 제시 방식은, 사고 주체가 단칭적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상하는 방식이다. 르카나티의 이론에서, 대물적 제시 방식은 비록 진리 조건적으로 무관하지만 사고 주체의 행동과 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사고의 ‘인지적 의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내용으로서 인정되며, 이는 프레게적 직관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르카나티의 이론은 인지적 의의를 담고 있는 정보는 사고의 진리 조건에 무관하다는 입장을 택함으로써 진리 조건에 대한 신-러셀주의의 직관을 존중하며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르카나티의 이론은 프레게적 틀 안에서 ‘세계-수반성<sup>world-involvingness</sup>’과 ‘진리-조건적 무관성<sup>truth-conditional irrelevance</sup>’을 모두 포용한 신-프레게주의적 이론이다(DR11.1:193).<sup>14)</sup>



지표사, 직시사, 그리고 고유명과 같은 직접지시적 표현이 등장하는 문장의 발화를 통해 진리 조건적으로 무관한 제시 방식을 포함하는 대물적<sup>de re</sup> 사고가 표현된다는 르카나티의 주장은, 그러한 사고가 사물을 수반하는 객관적이고 진리 조건적인 요소인 ‘넓은 내용<sup>wide content</sup>’과, 주관적인 내적인 요소인 ‘좁은 내용<sup>narrow content</sup>’으로 나뉘질 수 있다고 말하는 두-요소 그림<sup>two-component picture</sup>과 맞물리며 구체화된다(DR11:193-224). 두 사고가 동일한 객관적 진리-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자에게 동일한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두 사고가 동일한 주관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진리-조건들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 의해 두-요소 분석을 옹호할 표면적<sup>prima facie</sup> 증거<sup>15)</sup>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내일은 크리스마스이다’와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이다’가 12월 24일에 발화된다고 하자. 그 발화에 의해 표현된 두 사고는 동일한 진리 조건을 가지지만 둘의 인지적 의의는 서로 다르다. 날짜 감각이 없는 사람은,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이다’에 동의하면서도, ‘내일은 크리스마스이다’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나와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도플갱어는 나와 동일한 방식의 사고를 할 수 있지만 그의 사고의 진리 조건은 나의 사고의 진리 조건과는 다를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넓은 내용과 좁은 내용을 서로 구별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이 그림은 원본적인 프레게의 이론이 가지는 몇 가지 원리의 포기를 수반한다. 먼저, 사고가 하나의 개체로서 인지적 의의 역할과 진리값의 담지자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원리의 포기이다(DR11.1:195). 프레게가 사고를 개별화하는데 사용하는 두 가지의 기준(진리 조건 기준, 인지적 의의 기준)이 두-요소 그림에서

14) 신-프레게주의와 신-리셀주의간의 논쟁에 관해서 1장의 2.2절을 참고하라.

15) 표면적이라는 표현은 맥도웰-에반스와 같은 강한 프레게주의자로부터의 반론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르카나티는 DR 11장에서 두-요소 이론에 대한 맥도웰-에반스로부터의 반론을 다루면서 두-요소 이론을 옹호한다.

이런 반론들을 모두 다루는 것은 본고의 목적에 불필요하므로 생략하겠다.



는 분화된다(DR11.1:196). 두-요소 그림에서 사고의 개별화에 대한 첫째 기준인 진리 조건 기준은 사고의 객관적 부분, 즉 넓은 내용을 개별화하는 반면, 둘째 기준인 인지적 의의 기준은 사고의 주관적 부분, 즉 좁은 내용을 개별화하는 것으로 나뉜다. 좁은 내용과 넓은 내용이 모두 존재하는 사고만이 완전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각<sup>hallucination</sup>과 같은 상태에서 주체가 향유하는 사고는 그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좁은 내용만 존재한다. 그러나 그 경우 완전한 사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환각을 겪는 주체의 심적 상태와 행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기능적<sup>functional</sup> 설명항이 필요하다(DR11.4:206-207). 좁은 내용은 그런 설명을 제공해 주는 개념이다.

이어서 두-요소 그림을 옹호하는 것은 뜻<sup>sense</sup>은 대상을 구성요소로서 가질 수 없다는 프레게의 원리 또한 포기하게 만든다. 프레게에게 뜻<sup>sense</sup>과 지시체<sup>reference</sup>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예컨대 프레게의 이론에서 문장이 표현하는 뜻은 사고였으며, 문장의 지시체는 진리값이었다. 프레게가 뜻과 지시체를 구별했던 이유는, 사고의 인지적 의의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몇몇 경우에 표현의 지시체를 식별하지 않고도 주체는 표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다’라는 표현에서 ‘프랑스의 왕’이라는 한정기술구가 실제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식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직접지시적 표현을 담은 문장이 표현하는 사고에 관한 만큼은, 어떤 사람이 그 사고를 완전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표현의 언어적 의미<sup>semantic meaning</sup>(언어적 제시방식<sup>linguistic mode of presentation</sup>)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화자가 직접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지시하고자 의도한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표상을 형성해야만 한다. 즉 그 직접지시적인 표현이 지시하는 사물을 식별해야만 한다. 따라서 직접지시적 표현을 담은 문장이 표현하는 사고는 사물을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대물적<sup>de re</sup> 사고이다. 그리고 그 식별된 사물에 관해 형성되는 구체적인 표상은 대물적 뜻<sup>de re</sup>



sense이다. 대물적 뜻은 대상의 존재를 전제하는 대상-의존적이고 비-기술적인 것이기에, 대상과 제시 방식의 순서쌍으로서 가장 잘 포착된다(DR11.1:196). 르카나티에 따르면, 뜻에 대상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원리는 전혀 신성시될 필요가 없으며, 대물적 뜻에 관한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신-프레게주의자들은 어떠한 불편함도 느낄 필요가 없다(DR11.1:196). 왜냐하면, 대물적 뜻을 사물과 대상의 순서쌍으로 포착한다면 사고의 인지적 의의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물적 뜻은 사고의 내용과는 진리 조건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역할이 명확히 제한된다. 뜻은 사고의 좁은 내용의 형성에 기여하며, 진리 조건적 내용인 넓은 내용이 더해져야만 완전한 사고가 된다. 직접지시적 표현을 담은 문장이 표현하는 대물적 사고에 관한 두-요소 그림에서 뜻과 사고 간의 관계는 동일성 관계가 아니라 부분-전체의 관계이다.

신-러셀주의자들이 직접지시적 표현을 담은 문장이 표현하는 의미적 내용과 대물적 사고간의 신-프레게주의적 동치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사고 주체의 대물적 제시 방식<sup>16)</sup>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DR3.2:48). 직접지시적 표현을 담고 있는 발화에 의해 표현된 대물적 사고의 객관적 측면인 진리 조건적 내용이 안정적으로 소통 가능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주관적 측면인 좁은 내용, 즉 대물적 제시 방식이 소통 가능한지를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프레게는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어떤 것이 소통된다고 대답하였다(DR3.2:48). 르카나티 또한 사고의 소통은 사고의 해석<sup>interpretation</sup>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르카나티는 스피버와 윌슨의 이론을 경유하여 해석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소통에서 해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 설명한다(DR3.2:50). 스피버와 윌슨에 따르면 해석이란 “명제적 층위에서의 닮음<sup>resemblance</sup>에 의해 두 재현<sup>representation</sup>들 간에

16) 본고는 ‘믿음 주체의 대물적 제시 방식’이라는 표현을, ‘믿음 주체의 대물적 사고의 좁은 내용을 구성하는 대물적 제시방식’이라는 표현에 대한 축약으로 사용할 것이다.



성립하는 관계(Sperber & Wilson, 1986:230; DR3.2:50)”이다. 언어적 소통에서 “화자는 그의 사고의 공적 해석으로서 발화를 생산하고, 청자는 그 발화와 원본적 사고의 심적 해석을 생산하는 것”이 수반된다(Sperber & Wilson, 1986:230; DR3.2:50). 르카나티에 따르면, 타자와의 언어적 소통에 있어서 해석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스퍼버와 윌슨의 주장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단칭적 대상에 대한 사고(대물적 사고)는 해석 없이는 직접적으로 소통될 수 없기 때문”이다(DR3.2:50). “대물적 사고는 맥락-상대적이고 다른 맥락에 있는 자들과는 공유될 수 없기에, 소통에서 전달되는 것은 화자의 완전한 사고일 수는 없으며, 사고의 맥락-상대적인 구성요소들을 사상하고 얻어진 사고의 해석일 수밖에 없다”(DR3.2:50). 대물적 소통에 등장하는 해석의 유형은 페리를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질 수 있다. 세 가지 유형은 맥락에 덜 민감한 의미를 가진 해석적 문장을 찾는 상향적 해석<sup>Interpreting up</sup>, 더 민감한 해석적 문장을 찾는 하향적 해석<sup>Interpreting down</sup>, 그리고 같은 정도로 민감한 해석적 문장을 찾는 횡적 해석<sup>Lateral interpreting</sup>이다(Perry, 1986a:352; DR3.2:52). 화자는 자신의 사고를 상향적으로 해석하여 발화하고, 그것은 다시 청자의 하향적 해석을 통해 이해된다. 그 결과, 청자의 사고는 화자의 사고와 ‘횡적 해석’의 관계로 서로 관련된다.

주관성의 소통에 관한 러셀주의 반박에 대해서 르카나티는 다음의 흐름을 통해서 변론하고자 한다. 소통에서 해석이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지만, 그 사실로부터 주관성이 소통 불가능하다는 극단적인 결론이 귀결되지는 않는다. 화자가 자신의 사고의 주관적 측면을 완벽히 보존하여 소통할 방법은 없으나, 어느 정도는 보존하여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르카나티는 약한 의미의 소통 가능성과 강한 의미의 소통 가능성의 구별을 통해서 주관성의 소통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주관적 사고에는 어떠한 매개를 거치지 않고는 전달될 수는 없다는 강한 의미의 소통 불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화



자의 일인칭적(주관적) 사고에는 발화에 의해서 ‘표현되며’ 청자에 의해서 그러한 것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약한 의미에서의 소통 가능성 또한 있다 (DR3.2:54). 르카나티는 발화에 의해서 화자와 청자에 의해서 공유되는 정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피곤하다’라는 발화에는 ‘이 발화를 하는 사람은 피곤하다’라는 청자와 화자 간의 공통된 정보가 존재한다(DR3.2:56). 이런 식으로 발화의 의미적 내용은 적어도 ‘제시 방식의 기초 rudiments of modes of presentation’ 들을 포함한다고 말해질 수 있으며(DR3.2:57), 그렇게 소통된 제시 방식의 기초에 의해서 제시 방식의 소통 가능성은 인정된다. 대물적 제시 방식의 소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로서 제시 방식의 기초는 화자의 사고의 해석을 거쳐서 화자에 의해 표현되고, 청자의 해석을 거쳐 청자에게 인지된다. 그러나 그것은 발화에 의해서 표현된 —진리 조건적으로 개별화되는— 명제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진리 조건적으로 무관하게 내용에 포함된다.

직접지시적 표현을 담고 있는 문장의 언어적 의미의 해석에서 요구되는 것은 직접지시적 표현의 지시체를 식별하여 사고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직접지시적인 표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대물적 제시 방식은 ‘소통되고 있는 것에 본질적’ 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며, 브라이언 로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몇몇 경우에 화자는 청자가 지시체를 특정한 대물적 개념 아래 사고하기를 의도한다 (DR16.2:303-304).

## 1.2 대물적 제시 방식과 심적 정보철의 동일시

직접지시적인 표현이 수반하는 대물적 제시 방식 *de re mode of presentation*의 특징은 그것에 관한 소통 이론을 성립하는 것을 특히 어렵게 만든다. 대물적 제시 방식의 특징은 대화의 참여자들간의 사고의 교환에서 좁은 내용의 소통이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소통 이론을 성립시키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 주체의 믿음에 관한 보고의 이론을 성립시키는 것 또한 어렵게 만든다. 르카나티는 대물적 제시 방식의 특성들을 살펴보며 믿음 보고에 관한 이론을 성립시키기 위한 예비 작업을 한다. 르카나티는 대물적 제시 방식을 기술적인 *descriptive* 제시 방식과 대조적인 특징을 가진 비-기술적 *non-descriptive* 제시 방식으로 정의하며 다음의 특성들을 짚어낸다.

첫째, 대물적 제시 방식과 대상과의 관계는 만족적 *satisfactional*이라기보다는 관계적 *relational*이다. 르카나티는 바흐를 따라 유형 *type*으로서의 제시 방식이 어떻게 맥락에 따라서 사례 *token*로서의 제시 방식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그것은 프레게적 뜻과 같이 만족적으로 대상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사고와 유관하기 위해 한 대상이 가져야 하는 맥락적 관계를 결정하는 심적 지표사 *mental indexical*처럼 기능한다(Bach, 1987:12; DR6.2). 성공적인 대물적 사고는 대상과 경험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고의 대상과 경험적인 연결고리를 요구하지 않는 기술적 사고방식과 대조적이다. 둘째, 대물적 제시 방식은 진리 조건적 무관성을 띤다. 기술적 표상과는 달리, 비-기술적 표상은 만족 조건과 지시 조건이 분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DR6.3:104). 표상의 만족 조건은 답음의 조건이며, 표상의 지시 조건은 표상의 지시체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비록 대물적 표상의 두 조건이 분화한다고 하더라도, 두 조건 모두 대물적 사고의 진리 조건에 무관하다. “표상의 만족 조건이 그 표상이 등장하는 대물적 사고의 진리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혹은 표상의 지시 조건이 그 표상이 등장하는 대물적 사고의 진리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기술적 표상은 진리 조건적 무관성을 띤다”(DR6.3:105; DR7.1:119). 비-기술적 제시 방식에서 이러한 진리 조건적 무관성은 매우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르카나티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에 대한 지각에 기반한 제시 방식은 진리 조건적 무관성뿐만 아니라 도상성 *iconicity*에 의해서도 비-기술적인 것으로 과대결정된다(DR6.6:113).



지각적 재현의 도상성이란 관점성<sup>perspectival</sup>, 동형성<sup>isomorphism</sup>, 그리고 아날로그성<sup>analogic</sup>으로 정의된다(DR:113). 그것은 비-개념성으로 말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지각에 기반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판단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지만 판단의 대상은 아니다(VR:227, 239). 판단은 필연적으로 개념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런 정보를 호출하려는 의도는 매우 복잡하고 의식으로부터 멀어져있을 수 있다(VR:311). 르카나티는 대물적 제시 방식의 두 가지 하위 범주를 구별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 비-기술적 특성이 과대결정된 지각-기반의 제시 방식과, 그 대상으로부터의 기술적 정보에 기반한 대물적 제시 방식을 구별하는 것이다. 전자는 강하게 비-기술적인 반면에 후자는 오직 약하게 그러하다(DR:114). 이는 지표사와 고유명 사이의 심리적 차이를 묘사할 수 있게 한다. 지표사는 지각-기반 제시 방식의 특정한 범주와 유관하다(DR:115). 이와는 반대로, 고유명의 지시체는 대물적 제시 방식 하에서 비-기술적으로 사고되어야 하지만, 강한 의미에서 비-기술적인 지각-기반 제시 방식 하에서 사고될 필요는 없다.

이런 특성들을 가진 대물적 제시 방식에 관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르카나티에 따르면 대물적 제시 방식을 심적 자료철로서 상정한다면 대물적 제시 방식에 관한 소통을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다. 르카나티는 대물적 제시 방식을 대상으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저장하는 심적 자료철(혹은 그것의 지침<sup>pointer</sup>)과 동일시한다. 자료철에 관한 최초의 정의는 그라이스에게서 발견된다. 그라이스는 “한정기술구의 집합이 동일한 대상에 의해서 만족된다고 한 주체에 의해 여겨지고,  $\delta$ 가 그 집합에 포함될 때, 그 주체는  $\delta$ 에 관한 자료철을 가진다(Grice, 1989:140; DR6.5:109에서 재인용)”라고 자료철을 정의하였다. 자료철에 저장되는 정보는 대상에 관한 것이며, 지각적 정보부터 기술적 정보(사전항<sup>encyclopedia entry</sup>)까지 다양하다(DR7,1:119-130). 르카나티는 심적 자료철에 대한 선구적 연구자로서 에반스를 인용한다. 에반스는 정보가 ‘믿음-독립성’을 가진다고 말하며, 정보의 지위를 믿음이나 감각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말한다(VR:123). 주



체는 믿거나 감각하지 않으면서도 정보를 파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언은 정보를 전달해주지만, 증언에 대해서 듣는 사람은 그것이 반드시 진실이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 환영은 지각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지만, 이는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언과 환영은, 주체에게 특정한 정보적 상태를 유발한다. 정보는 그 정보와 인과적으로 관련된 사물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VR:124). 대상에 관한 자료철을 가지는 정보적 상태에서 사물과 정보간의 관계는 만족적이라기보다는 관계적(지시적)이다. 정보적 상태를 불러 일으킨 정보가 기술하는 내용이 실제 사물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보적 상태는 사물에 관한 것일 수 있으며, 사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체는 정보적 상태에 있을 수 있다(VR:128). 자료철 내에 저장된 정보로서의 기술구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대상에 관해 틀린 묘사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시체-고정적 혹은 만족적이라기보다는 정보적이다(DR6.5:111). 정보가 도출된 근원에 관해 그 정보가 실제로 만족되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진리 조건을 결정하는 데에는 무관하다(DR7.1:119). 또한 르카나티에 따르면 심적 자료철로서의 대물적 제시 방식은 언어적 제시 방식과 부분-전체의 관계를 맺고, 둘 사이의 연결은 언어적 제시 방식을 경유하는 선택적·화용론적 제유<sup>synecdoche</sup>를 통해 확립된다(DR:91). 제유는 어떤 대상을 통해 그것과 연관이 깊은 다른 사물을 지시하는 수사법인 환유<sup>metonymy</sup>의 일종으로, 부분을 통해서 그것이 속한 전체를 지시하는, 혹은 전체를 통해 그에 속하는 부분을 지시하는 수사법이다. 언어적 제시 방식은 심적 자료철에 축적된 정보로서 심적 자료철의 부분이며, 따라서 언어적 제시 방식을 통해 심적 자료철에 대해 접근하는 것은 제유이다.

자료철을 지배하는 정보의 유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자료철의 유형이 분류된다. 지각, 혹은 대상과의 지속적인 정보적인 고리가 자료철의 지배적인 착상이 된다면(VR5.1:122), 자료철은 직시적인 대상 관념으로서 불안정하고 임시적이다. 르카나티는 이를 임시적 대상 자료철<sup>temporary object files</sup>라고 부른다



(DR7.4).<sup>17)</sup> 반면에 어떤 자료철은 기술가능한, 더 안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 오직 그런 정보만을 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사전항<sup>encyclopedia entry</sup>’이라고 불린다(DR7.4). 자기중심적인 자료철이 사전항과 결합하여 지각적 정보와 기술적 정보를 모두 담게 되는 경우 자료철은 복합적인 대상 관념이 된다. 자아 관념 또한 이러한 복합적인 대상 관념에 해당한다(VR:208-209). 정보를 모아서 하나의 다발로 만드는 작업은 재-식별<sup>re-identification</sup>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하나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동일한 근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주체가 판단하여 자료철에 저장하는 처리이다(VR:126).

하나의 자료철 내에서 일어나는 작용 외에, 두 개 이상의 자료철 간에 일어나는 작용 또한 존재한다. 자료철간의 관계를 표상하는 모델로 르카나티는 병합<sup>merge</sup> 모델 대신 연결<sup>link</sup> 모델을 선택한다. 병합 모델에 따르면 정보들의 연합은 자료철 간의 병합에 의해 일어나는데, 병합 이후 원본적 자료철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자료철들만 남게 된다(Recanati, 2014:473-475). 그러나 르카나티에 따르면 이는 오직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료철과 연관된 인지적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일 수 없다. 오히려 정보가 연합된 후에도 자료철들이 여전히 그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보의 연합에 관한 두 인지적 작용이 구별되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자료철의 완전한 병합<sup>merge</sup>을 이루어 이전의 인지적 의의가 사라지는 작업과, 자료철들의 인지적 의의를 보존하면서도 자료철들 간의 연결<sup>link</sup>을 가능하게 하는 좀더 일반적인 작업이다. 에반스에게서도 동일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인지적 작용의 구별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지-기반 식별과 같은 처리를 수반하며, 정보가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유래하였다는 판단 아래에 분해 불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sup>17)</sup> 그것은 대상에 대한 종적인 앎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VR6.5:178). 예를 들어 빨리 날아가는 물체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는 없어도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때 사물에 대한 직시적인 자료철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일반성 제약을 만족하는 적합한 대상관념은 아니다(DR10.2:169).



축적하는 작용이 있다(VR8:292, 296).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들을 분해가능한 decomposable 방식으로 연합하며(VR8.6:296) 복합적 mixed 관념을 형성하는 작용이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연합되기 이전의 정보들의 다발화는 여전히 보존되며,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대한 가정 또한 가능하게 한다.

르카나티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인지적 작업이 각각 동일성 전제 identity presumption(당위적 de jure 동일성 판단)와 동일성 판단 identity judgement(사실적 de facto 동일성 판단)이라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층위의 인식적 작용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Recanati, 2014:475-476). 동일성 전제는 하나의 자료철 내에서의 정보의 축적 혹은 다발화를, 동일성 판단은 자료철 간의 연합과 연관되어 있다. 자료철 간의 작용에 관한 연결 모델은 두 가지의 인지적 작업 모두를 인정한다. 자료철 간의 연합은 분해가능한 decomposable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연결된 자료철들은 복합적 관념으로서 기능하며, 연결된 후에도 자료철들은 여전히 구별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독립된 인지적 의의를 가진다. 르카나티에서 자료철의 연합에 관한 연결 모델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모델 아래에서만 대물적 제시 방식과 자료철의 동일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물적 제시 방식은 인지적 의의 기준에 의해서 개별화된다. 주체는 하나의 대상과 다양한 인식적인 관계를 맺으며 서로 다른 인지적 의의를 가진 각기 다른 대물적 제시 방식을 가질 수 있다. 대상에 대한 동일성 판단 이후에도 대상에 관한 다양한 제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인지적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동일성 판단이 자료철 사이의 병합을 자동적으로 촉발한다면, 대상에 관한 심리적 자료철은 하나일 것이며, 심리적 자료철과 대물적 제시 방식의 동일시는 불가능할 것이다. 병합 모델은, 동일성 판단 이후에도 하나의 대상에 관한 다양한 제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인지적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연결 모델에서 자료철 간의 병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르카나티가 거부하는 것은 병합이 (동일성 판단 이후에 일어나는) 자동적 작용이라는 착상이다.



자료철로서 대물적 제시 방식을 묘사하는 방식은 믿음 보고에 관한 퍼즐의 해명에 편의성을 제공해 준다. 믿음 주체, 믿음 보고 화자, 그리고 청자 간의 정보적 상태의 간극은 믿음에 관한 퍼즐을 발생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적 자료철로서 대물적 제시 방식을 묘사하는 방식은 이러한 정보적 상태의 간극을 포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준다.

### 1.3 르카나티의 진리 조건적 화용론: 말해진 바를 중심으로

그라이스의 의도-기반 의미론에 따르면 화자의 소통-의도<sup>meaning-intention, M-intention</sup>는 화자의 의미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화자의 의미는 전적으로 화자의 소통-의도에 기반한다(Grice, 1989). 화자가 청자-지향적인 소통-의도를 가질 때, 화자는 특정한 상태를 —혹은 명제적 태도를— 청자에게 불러일으키려고 하며, 그 상태의 성립이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알아차림에 적어도 일부분은 근거하기를 의도한다. 이러한 소통-의도는 대화적 상황에서의 화자와 청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라이스는 특히 이러한 의도-기반 의미론을 바탕으로 함의<sup>implicature</sup>에 관한 소통-의도를 통한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Grice, 1989). 르카나티의 ‘풍부화된<sup>enriched</sup>’ 그라이스적 그림에 따르면 화용론적인 소통-의도는 말해진 바<sup>what is said</sup>의 의미적 내용을 풍부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즉 르카나티는 말해진 바에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구성요소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한다(DR:236-240). 예를 들어, “그는 절벽 끝으로 갔고 뛰어내렸다 He ran to the edge of the cliff and jumped”라는 발화는 문장 의미만으로는 ‘그’가 절벽 너머로 뛰어내렸는지 결코 확실하지 않지만, 화자는 아마 그가 절벽 너머로 뛰어내렸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가 절벽 너머로 뛰어내렸다는 내용은 화용론적으로 보충되는 내용이지만, 르카나티에 따르면 화자에 의해서 말해진 바의 진리 조건을 구성한다. 즉 화자의 발화에 의해서 말해진 바는 그가 절벽 너머로



뛰어내렸다면 참이며,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다. 말해진 바에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화용론적으로 보충되도록 소통-의도되는— 구성요소가 존재한다는 르카나티의 입장은 ‘진리조건적 화용론<sup>truth-conditional pragmatics</sup>’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르카나티에게 ‘그리고’ 혹은 ‘또는’과 같은 논리연결사가 전달하는 ‘비관습적 함의<sup>nonconventional implicature</sup>’라고 그라이스에 의해 불렸던 것<sup>18)</sup>은 말해진 바와 분리된 명제를 전달하는 함이라기보다는 화용론적으로 결정되어 말해진 바에 포함되는 구성요소이다. 이는 말해진 바와 함의 간에 선을 긋고, 말해진 바를 관습적 의미를 통해서만 설명하고자 했던 기존의 ‘그라이스적 그림’에서 벗어나, 말해진 바의 해석에도 복잡한 소통-의도가 개입하는 대화적 상황을 전제하여 화용론적 원리들을 호출하는 ‘풍부화된’ 그라이스적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해진 바에 관한 르카나티의 입장은 그라이스의 입장과 비교된다. 그라이스는 함의<sup>implicature</sup>의 발생을 설명하며 화자의 소통-의도를 호출하였고, 함의가 —관습적 의미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말해진 바<sup>what is said</sup>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라이스가 의도-기반 의미론을 제시하면서 함의의 발생에 개입하는 소통-의도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 데에 비해, 말해진 바의 생성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서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라이스는 —의미를 필요 이상으로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수정된 오컴의 면도날의 원리를 도입하여, 의미의 애매성이 존재할 때 그것을 화용론적인 애매성으로

18) 그라이스는 함의의 다양한 종류를 구별하였는데, 함의는 크게 관습적 함의와 비관습적 함의로 나뉜다. 대화적 함의는 비관습적 함의에 해당한다. ‘만약’, ‘그리고’, ‘또는’과 같은 단어가 전달하는 함의 또한 비관습적 함의에 해당한다. 화자는 ‘그리고’와 ‘또는’을 사용하면서 ‘∨’나 ‘∧’와 같은 논리연결사가 전달하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화자는 ‘그리고’를 활용하여, —‘그리고’에 앞선 내용이 후행하는 내용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시간적인 순서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화자는 ‘또는’을 활용하여 두 항이 상호 배타적이라는 정보를 함께 전달할 수 있다. 혹은 ‘또는’을 사용함으로써 더 불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음을 함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Grice, 1989: 44-50).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화자가 논리연결사가 전달하는 정보만큼만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리고’와 ‘또는’에 존재하는 함의를 완전히 관습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라이스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혹은 ‘또는’과 같은 단어가 전달하는 함의를 비관습적 함의라고 불렀다.





상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라이스에게 화용론적인 애매성은 곧 말해진 바와 구별되는 함의의 애매성을 뜻했다. 그라이스는 말해진 바에서의 애매성을 상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말해진 바에도 화용론적 애매성이 존재한다는— 르카나티의 입장과 그라이스의 입장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라이스의 의도-기반 의미론에서 말해진 바 또한 화자의 의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라이스에 따르면, 말해진 바는 화자가 ‘핵심적으로<sup>centrally</sup> 의미한 바’에 해당하며(Grice, 1989:88), 화자의 의미는 화자의 의도로 환원되므로, 그라이스에게 말해진 바 또한 궁극적으로는 화자의 소통-의도로 환원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르카나티의 입장은 여전히 그라이스의 큰 기획 안에 위치한다. 르카나티의 작업은 결국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구성요소가 관여하는 의미의 범위를 더 넓은 것이며, 이는 곧 그라이스적인 그림을 더 ‘풍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르카나티의 진리 조건적 화용론은 해석에 관한 세 층위 이론으로 이어진다(DR:314).<sup>20)</sup> 제일 층위에 문장의 구성요소들의 의미적 합성으로 만들어진 문장 의미의 층위가 있다. 제이 층위로의 이행과 제삼 층위로의 이행은 이전 층위를 입력값으로 받아 일차적인 화용론적 처리<sup>primary pragmatic process</sup>를 이행해 도달하는 층위이다. ‘기본 해석 층위<sup>basic level of interpretation</sup>(최소적 명제<sup>minimal proposition</sup>)’는 “표현의 언어적 의미에 있을 수 있는 필수적 일차 처리들을 적용함으로써 도출되는 해석(DR:314)”의 층위인데, 이는 직접지시적 표현과 한정기술구에서 다르다. 직접지시적 표현이 등장하는 문장에 한해서 기본 해석 층위는 제이 층위이다. 제일 층위에서 제이 층위로의 이행은 직접지시적 표현에 관해 필수적인데, 지시어의 지시 자질이 언어적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시 자질은 기

19) ‘말해진 바’에 관한 보다 풍부한 논의는 3장을 참고하라.

20) 이는 의미의 세 층위(언어적 의미<sup>linguistic meaning</sup>, 말해진 바, 소통된 바의 층위)와는 구별된다. 르카나티는 해석의 세(제일, 제이, 제삼) 층위를 거쳐 화자에 의해 말해진 바(의미의 둘째 층위)에 도달한다고 말하였다.





술적 개념에서 제유적 전이<sup>synecdochic transfer<sup>21)</sup></sup>를 수행하여 그 지시체에 관한 대물적 개념을 형성하기를 청자에게 요구한다. 반면 한정기술구의 기본 해석 층위는 제일 층위이다. 한정기술구는 제유적 전이를 요구하지 않으며, 한정기술구와 관련된 사물에 대한 대물적 개념을 형성하지 않고도 그것이 등장하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소적 명제에서 더 나아가, 부차적인 화용론적 처리를 통해서 도달되는 명제의 층위가 존재한다. 이러한 화용론적 처리는 의미론적인 차원에서는 선택적이다. 그 처리는 문장의 구성요소들에 언어적으로 표시되어 촉발되는 것이 아니며, 순전히 화용론적이다. 다시 말해 그 촉발은 맥락-의존적이고, 화자의 소통-의도에 의존적이다. 르카나티에 따르면 이렇게 화용론적으로 촉발되는 선택적인 처리를 거쳐 도달한 명제가 화자에 의해 말해진 바<sup>what is said</sup>에 해당한다. 제이 층위에서 제삼 층위로의 이 화용론적 처리는 선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화에 의해서 말해진 바인— 표현된 명제의 층위를 구성한다(DR:315). 그러한 화용론적 처리에는 확장<sup>expansion</sup>, 자유 풍부화<sup>free enrichment</sup> 등등이 해당한다(DR:243)<sup>22)</sup>.

함의 뿐만 아니라 말해진 바에도 화용론적 원리를 호출하는 르카나티의 이론은 브라이언-로어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Loar, 1976:357;DR:53). 직접지시적 표현의 정보-호출적인 사용을 활용한 대물적 제시 방식의 소통은 위에서 언급한 화용론적인 소통-의도를 수반한다. 브라이언-로어의 TV-남자 사례에서, 대상에 관한 특정한 정보를 호출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발화의 맥락에서 존재하며, 화자의 발화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 그러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21) 1.2절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제유란 환유<sup>metonymy</sup>의 일종으로, 부분을 통해서 그것이 속한 전체를 지시하는, 혹은 전체를 통해 그에 속하는 부분을 지시하는 수사법이다. 언어적 제시 방식은 심적 자료철에 축적된 정보로서 심적 자료철의 부분이다. 심적 자료철을 형성하는 것은 곧 사물에 대한 대물적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을 경유하여 그것을 포함하는 개념의 형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단어에 언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시 자질(기술적 개념)을 넘어서서 대물적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제유이다.

22) 화용론적 처리의 좀 더 세분화된 범주에 대해서는 3장의 논의를 참고하라.



것이 요구된다. 브라이언-로어의 사례에서 직접지시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스미스의 발화의 이해를 위해 존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은 ‘저 남자’의 대상을 식별하는 것일 뿐이다. 그 직접지시적 표현의 언어적 제시 방식은 지시 자질<sup>reference feature</sup>. REF<sup>을</sup> 가지는데(DR:315), 이는 식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식별하는 대상을 표현된 명제의 진리 조건에 유관한 것으로 만든다. 존스는 스미스의 발화를 이해하는 데 최소한으로 이해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지만 스미스는 발화를 통해 존스가 ‘저 남자’라는 대상을 식별할 때 그러한 최소한의 식별의 방식을 넘어서 ‘저 남자’라는 대상을 좀 더 특정한 방식으로 식별하기를 정보-호출적으로 소통-의도하였다. 스미스는 자신이 호출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존스가 특정한 정보적 상태에 기반한 사고를 가지기를 의도하였다. 스미스는 TV에서 나오는 사람을 지시하며 ‘그는 증권 중개인이다’라고 말하였다. 스미스는 TV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기차에서 보는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 스미스는 자신의 발화를 이해함에 있어 그 대상을 식별할 때 ‘TV에 나오는 그 사람’으로서 식별하기를 소통-의도하였다. 이는 언어의 이해에 관한 의미적 요구가 아니라, 화용론적 요구이다. 이 처리는 언어의 의미에 포함되어 의미적으로 요구되는 처리가 아니며, 의미론에는 부차적이고 선택적으로 요구되는 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화자에 의해서 소통-의도되며, 발화에 의해서 표현된 명제의 진리값에 영향을 미친다. 스미스는 존스가 청자로서 독자적인<sup>literal</sup> 이해를 넘어서 선택적인 화용론 처리를 통해 보충된 내용을 이해하기를 소통-의도한다. 그 제시 방식은 진리 조건적으로 무관하지만 발화의 의미적 내용을 구성하며 발화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요구된다. 브라이언-로어의 사례에서 스미스는 특정한 정보를 호출하여, 그것에 기반한 정보적 상태를 존스에게 불러일으키고자 소통-의도하였다. 스미스가 소통하고자 하였던 대물적 제시 방식에 관해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스미스가 의미한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 1.4 믿음 보고의 투명·불투명 맥락의 구별 : 화자 의미론을 중심으로

앞서 제시된 진리 조건적 화용론을 바탕으로 르카나티는 믿음 보고에 관한 소통 이론을 제시한다. 말해진 바에 관한 르카나티의 입장은 믿음 보고에 관한 그의 이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르카나티는 화자의 소통-의도에 따라 믿음 보고에 관한 두 가지 맥락이 구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곧 믿음 보고의 맥락을 복잡한 소통-의도가 개입하는 대화적 상황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화자는, 믿음 주체의 믿음의 진리 조건적 내용만을 전달하고자 의도할 수 있다(DR18.4:362, DR194). 안긴문장에 의해 표현된 사고를 믿음 주체가 향유함을 함축하지 않는 믿음 보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VR:401). 이 경우에 믿음 보고에 의해 표현된 명제에서 믿음 주체의 제시 방식은 단순히 양화<sup>quantify over</sup>되기만 한다. 화자는 제시 방식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DR:393). 이는 믿음 보고의 투명한<sup>transparent</sup> 맥락으로 불린다. 믿음 보고의 투명한 맥락에서 안긴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는 단칭적이며, 그 명제는 진리 조건적으로 무관한 제시 방식조차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대물적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오직 극단적인 경우일 뿐이다(DR:50). 더 일반적인 경우로 화자는 믿음 주체의 믿음의 진리 조건적 내용뿐만 아니라, 믿음 주체가 사고하는 방식, 즉 그것에 관한 제시 방식 또한 청자와 소통하고자 의도할 수 있다. 이 때 안긴문장의 내용은 진리 조건적으로 무관한 제시 방식 하에서 믿음 주체에 의해 사고되는 준-단칭적 <sup>quasi-singular</sup> 명제이다. 여기서 준-단칭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 주체에 의해 사고되는 명제는 진리 조건적으로 개별화되는 반면에, 그것과 함께 전달되는 대물적 제시 방식은 그 사고에 진리 조건적으로 무관하다는 특성을 표현한다. 그러나 대물적 제시 방식은 믿음 보고의 불투명한 맥락에서 화자에 의해 말해진 바에는 진리 조건적으로 유관한데, 화자는 믿음 주체의 사고의 준-단칭적 특성을 포착하여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 보고의 맥락은 불투명하다고 <sup>opaque</sup> 불린다. 그것은 마치 자기인용적<sup>autonomous</sup> 맥락과 같이 지시적 표현의



대체를 허용하지 않는다(DR17.1:327). 믿음에 관한 어떤 독해가 화자에 의해 의도되었는지는 맥락의존적이다. 따라서 르카나티에게 불투명성은 특정한 유형의 문장의 의미론적 속성이라기보다는 화용론적 현상이다(DR:328). 불투명한 맥락에서 화자는 정보-호출적으로 직접지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선택적인 화용론적 처리를 청자가 수행하여 믿음의 좁은 내용에 관한 특정한 정보적 상태에 도달하기를 소통-의도한다. 르카나티는 믿음 보고의 투명-불투명 맥락에 더해, 화자의 소통적 의도와 청자에게 유발되는 정보적 상태의 차이에 따라 더 세분화된 믿음 보고 또한 구별할 수도 있음을 말한다(DR20.2). 예를 들어, 고유명을 사용한 믿음 보고에 관한 해석의 맥락을 여섯 가닥으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DR20.3).

르카나티의 투명-불투명 맥락의 구별은 청자-중심적 구별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특히 투명한 ‘해석’과 불투명한 ‘해석’을 말하면서 청자의 해석에 관해 중점적으로 말한다. 이 지점이 본고가 전제하면서 옹호하고 있는 화자 중심의 믿음 보고의 분석과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화자 중심적 화용론적 맥락의 구별과 크게 다를 수 없다. 르카나티는 투명-불투명 맥락의 구별이 기본적으로 화용론적 맥락이라고 전제한다. 화용론적 맥락에서 화자의 소통-의도는 청자의 해석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는 형성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청자의 해석도 화자의 소통-의도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화자의 소통 의도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제약된다(SR:270). 만약 어떠한 독해가 화자에 의해 소통-의도된다면 그것은 청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의도되어야 하며, 청자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의도된다면 그것은 소통-의도일 수 없다. 믿음 보고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화자와 청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대화의 상황을 전제로 하여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발화에 해당하며, 믿음 보고의 성공은 이러한 소통-의도의 성공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탈인용 원리와 번역 원리만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크립키식의 믿음 귀속과, 믿음 주체의 대물적 제시 방식을 보존하여 청자에게 소통-의도



하고자 하는 믿음 보고와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크립키의 탈인용 원리는 믿음 주체가 진중한 반성을 통해 'p'에 동의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질 때 그는 p를 믿는다고 귀속하는 것이다(PB: 137). 탈인용 원리는 믿음 주체의 믿음 상태를 확인한다면, 믿음 귀속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리이다. 탈인용 원리에서 고려되는 것은 단지 믿음 주체의 믿음 상태<sup>23)</sup> 뿐이며, 귀속을 행하는 화자와 그것을 듣는 청자의 맥락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믿음 귀속에서 믿음 상태가 확인되었다면, 대물적 제시 방식에 관한 화자의 지시-보존 의도 같은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믿음 보고는 화자의 일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화자의 맥락을 끌어들인다. 믿음 보고에서 요구되는 것은 믿음 주체의 상태뿐만 아니라 화자가 믿음 주체의 대물적 제시 방식을 보존하거나 생략하여 청자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소통-의도이다. 그리고 믿음 보고의 성공은 그러한 소통-의도의 성공이다.

믿음 주체의 대물적 제시 방식에 관한 화자의 투명-불투명한 소통의 맥락의 구별은, 심적 자료철에 관한 르카나티의 연결 모델과도 잘 합치한다. 이는 특히 믿음 주체와 믿음 보고 화자가 서로 다른 동일성 판단을 할 때, 어떻게 믿음 보고 화자가 믿음 주체의 대물적 제시 방식을 고려하여 소통-의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모델을 제시해 준다. 예를 들어, 믿음 주체는 '개밥바라기'와 '셋별'이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을 모르는 반면, 믿음 보고 화자는 '개밥바라기'와 '셋별'이 동일한 대상인 금성을 지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 심적 자료철에 관한 연결 모델에 의하면 동일성 판단은 분리된 두 심적 자료철을 파괴하지 않고, '개밥바라기'와 '셋별'에 관한 인지적 의의를 보존한다. 화자는 '개밥바라기'와 '셋별'에 관한 인지적 의의를 각각 고려하여 믿음 주체의 믿음 내용을 귀속시킬 수 있다. 그는 동일한 대상에 관한 서로 다른 인지적 의의를 이해하므로, 서로 다른 인지적 의의를 수반하는 좁은 내용에 관한 서로 다른 소통-의도를 형성할 수 있다. 동시에 화자는 '개밥바라기'와 '셋별'에 관한 동일성 판

<sup>23)</sup> 믿음 상태에 관해서는 2장 2절의 도입부를 참고하라.



단을 하고 있으므로, 진리 조건적인 내용만을 고려하여 믿음 주체의 사고에 관한 투명한 믿음 보고 또한 할 수 있다.

만약 화자 혹은 청자가 ‘개밥바라기’와 ‘셋별’에 관한 병합된 심적 자료철을 가지고 있다면, 대물적 제시 방식은 화자 혹은 청자에게 오직 하나의 인지적 의의만을 가질 것이다. 그 경우에도 화자와 청자는 믿음 주체의 믿음 상태에 관한 불투명한 보고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심적 자료철에 관한 양상적인 가능성을 경유하여 가능하다. 연결 모델에서, 병합은 자동적인 처리가 아니다. 즉 ‘개밥바라기’와 ‘셋별’에 관해 동일성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에 관한 심적 자료철이 병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결 모델에서 병합은 분해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동일성 판단 이후에 실제로 병합이 되었다고 해서, ‘개밥바라기’와 ‘셋별’에 관한 자료철이 각각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동일성 판단이 이루어질 때 ‘개밥바라기’와 ‘셋별’에 관한 자료철의 병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다. 연결 모델에서는, 화자가 ‘개밥바라기’와 ‘셋별’에 대해 동일성 전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물적 제시 방식이 따로 존재했었을 가능성을 경유하여 믿음 주체의 인지적 의의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병합 모델에서 동일성 판단은 필연적으로 ‘개밥바라기’와 ‘셋별’의 병합을 수반한다. 병합 모델에서는 화자와 믿음 주체가 서로 다른 동일성 판단을 할 때에 믿음 주체의 믿음에 관한 소통의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보다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르카나티는 자신의 이론이 믿음 보고를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DR18.4:362). 다른 이론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특히 말해진 바의 진리값에 관한 직관에 대해 설명해 주지 못한다. 투명한 보고에서 제시 방식은 그저 양화되고, 불투명한 보고에서는 맥락적으로 지시되어 믿음 보고의 구성요소가 된다. 르카나티의 이론은 두 경우를 모두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DR18.4:363).



### 1.5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관한 화용론 : ‘자유 풍부화’ 처리와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믿음은 주체의 지각, 행위, 인지적 구조 그리고 다른 능력들과 복잡한 인과적 관계를 지니는 개별자이다(Crimmins/Perry, 1989:589). 어떤 주체가 사물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떠한 인지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이며(Crimmins/Perry, 1989:695), “주체의 이성작용과 행위를 제약한다(Crimmins/Perry, 1989:689)”.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어떠한 제시 방식 하에 믿는 것이다(Schiffer, 1977:65, 1978:179; Neale, 2016:314). 그리고 믿음의 인지적 의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믿음의 넓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좁은 내용이다. 믿음 보고는 자주 믿음의 원인과 작용에 대한 사실들을 활용한다(Crimmins/Perry, 1989:688). 르카나티가 말했듯이, “믿음 귀속은 다양한 기능 혹은 목적들을 가지고, 이는 믿음 귀속의 내용에 관한 이론을 정립할 때에 무시될 수 없다(DR:341).” 제시 방식에 관한 소통-의도의 형성은 성공적인 믿음 보고의 첫째 조건이다. 그것을 전달할 것인가, 생략할 것인가? 전달하고자 한다면, 믿음의 어떤 부분을 구체화할 것인가? 믿음 보고는 대화적 협력의 상황에서 일어나며, 믿음 보고의 독해에 관한 화자의 소통-의도에 따라 투명한 보고와 불투명한 보고가 나뉜다. 믿음 보고의 화자는 어떤 독해를 소통-의도하는지 명확하게 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청자와 화자는 지각적인 정보를 포함한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 등을 풍부한 맥락적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SR:277).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관한 르카나티의 화용론은 믿음 보고의 화자가 활용하는 정보가 어떻게 그의 소통-의도를 성공시키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르카나티는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이 의미적 내용의 과소결정성 *underdetermination*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DR18.3:355). 과소결정성을 가지는 표현은, 지표사와 달리 맥락이 주어지면 지시체가 거의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다. 대신 청자가 타당성<sup>plausibility</sup>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그 지시체를 결정해야 한다. 타당성은 화자의 소통 의도에 근거하지 않고는 결코 판단될 수 없으므로, 과소결정성은 화자의 의도에 의존한다.<sup>24)</sup>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의 지시체는, 상의하달식<sup>top-down</sup> 제약과 하의상달식<sup>bottom-up</sup> 제약이라는 두 가지의 일반적 제약에 부합하여 문맥 의존적으로 해석된다(DR18.3:356).<sup>25)</sup> 르카나티는 이 ‘해석’의 처리가 표현의 기본적인 의미값에서 더 나아간, 풍부화<sup>enrichment</sup>나 전이<sup>transfer</sup>와 같이 비기본적인 값을 산출하는 선택적 일차 처리를 수반할 있다고 말한다(DR18.3:356). 르카나티에 따르면, 안기게 될 문장인 ‘P’와 ‘Q’가 같은 명제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즉 진리 조건적으로 동일한 단칭적 명제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이 될 때에 반드시 동일한 의미적 내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둘은 서로 다른 화용론적 처리들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의미적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해석에 수반되는 선택적인 화용론적 처리는 안긴문장 바깥에 등장하는 표현들의 변화에도 민감하다. 리차드의 퍼즐은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지시적 표현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믿음 보고의 화자에 의해 말해진 바에 관한 진리 조건적 직관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르카나티에 따르면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의 바깥에 등장하는 지시적 표현의 변화는 화자의 소통-의도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맥락적 전환에 해당한다. 명제 태도 귀속 문장의 태도-단어를 대체하는 것 또한 선택적인 화용론적 처리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전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믿는다’가 ‘주장한다’로 대체된다면 그것은 선택적 처리를 촉발하는 맥락의 전환으로 인정될 수 있다. 화자가 사용하는 단어의 대체는 화자의 소통 의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언어

24) 이러한 과소결정성의 특징에 대해서는 SR11.3을 참고할 것

25)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관한 상의하달식 제약이란, 그것의 지시체는 귀속된 믿음이나 발화 행위의 내용으로서의 지위에 타당한 후보여야 한다는 것이며, 하의상달식 제약이란, 지시체는 안긴문장에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안긴문장을 ‘해석’함으로써 상의하달식 제약을 만족하는 내용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perber&Willson 1986).





적 현상이다. 명제 태도 동사의 변화는 믿음 보고의 화용론적 처리에 관해 화자가 소통-의도를 형성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맥락의 차이로서 간주되고, 화자는 이러한 차이를 이용하여 동일한 안긴문장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의미적 내용을 의도할 수 있다.

르카나티는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의 의미적 내용에 관해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요소가,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sup>unarticulated constituent</sup>’라고 말한다. 이것은 믿음 보고의 발화에서 안긴문장이 표현하는 대물적 사고의 좁은 내용 유형이다. 그것은 대물적 사고에 진리 조건적으로 무관하지만 믿음 보고에 의해서 말해진 바를 구성하여 그것의 진리값에 관한 직관에 영향을 끼친다. 르카나티는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서 대물적 제시 방식이 보충되는 처리가 문장의 구조나 단어들에 의해 요구되는 구문론적·의미론적 처리가 아니라 화용론적이라는 점에서 ‘자유 풍부화<sup>free enrichment</sup>’라고 부른다. 믿음 보고에서 믿음 주체의 대물적 제시 방식에 관한 화자의 소통-의도는 맥락민감하게 변화무쌍할 수 있으며, 처리에 대한 의도가 형성되는 것은 순전히 선택적일 뿐, 문장 차원에서 강제되지 않는다.

또한 르카나티에 따르면 대물적 제시 방식은 언어적 제시 방식과 화용론적 제유<sup>synecdoche</sup>의 과정으로 연결되고 표현된다(DR:90,91,119). 르카나티에 따르면, 지표사와 직시사, 그리고 고유명과 같은 직접지시적 표현은 지시 자질<sup>referential feature</sup>. REF을 언어적 제시 방식으로 가지고 있다. 지시 자질은 청자가 문장 의미를 해석하여 명제를 향유할 때 지시체 자체가 명제에 포함되게 하며 지시체를 식별하는 방식은 명제의 진리 조건적으로 무관하도록 한다(DR:315). 청자가 지시 자질을 가진 표현이 등장하는 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의도한 대상을 식별하여 대상에 관한 대물적인 사고를 형성해야 한다. 즉 기술적 개념에서 대물적 개념으로의 제유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화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대물적 개념을 형성하도록 소통-의도할 수도 있다. 대물



적 개념의 형성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화자가 의도하는지는 순전히 선택적이다. 믿음 보고와 같은 특정한 상황이 그러하다. 만약 화자가 특정한 자료철을 향하는 제유의 처리가 일어나기를 의도하였다면, 심적 자료철과 대물적 제시 방식은 동일시되므로, 그리고 믿음 주체는 같은 사물에 대한 다양한 심적 자료철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철에 관해 소통-의도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소통-의도가 성공적이라면 불투명한 보고의 경우 대물적 제시 방식은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로서 믿음 보고에 의해 말해진 바에 포함될 것이다.

르카나티에 따르면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관한 화용론은 대체 실패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화자의 의도의 형성은 믿음 보고에서 활용되는 단어들의 변화에 맥락민감하게 이루어진다. 믿음 보고에서의 지시어  $t$ 를, 동연적 지시어  $t'$ 로 대체하는 것은 맥락적 변화를 초래한다. 그 맥락적 변화는 특히 믿음 주체의 좁은 내용을 소통하고자 하는 화자의 정보-호출적인 소통-의도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화자가 사용하는 단어의 변화는 화자의 의도의 변화를 감지하게 하는 단서이다. 따라서 믿음 보고에서의 지시어의 대체는 믿음 보고에 의해 표현된 명제의 진리 조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언어적 표현의 대체는 맥락의 전환을 가져온다. 맥락의 전환은 화용론적 처리에 관한 화자의 의도의 형성과 청자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고, 문장의 발화에 의해 말해진 바 또한 달라지게 한다.

르카나티는 또한 이 화용론적 처리를 준-단칭화라고 말한다. 이는 의미의 순수성에 근거한 반론으로부터 르카나티를 변론할 수 있게 해준다. 르카나티는 지시 표현이 다른 의미적 습성을 가진다는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 그 처리는 합성 의미론적으로도 강제되지 않는 화용론적 처리이다. 지시적 표현과는 구별되는 어떤 구성요소가 믿음 보고에 의해서 말해진 바에 화용론적으로 결정되어 추가적으로 기여한다. 그뿐만 아니라, 준-단칭화는 믿음 보고의 퍼즐에 관한 설명에



대한 함의론자들과 신러셀주의자들의 직관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 2. 믿음에 관한 퍼즐 해명

화자와 청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믿음 보고의 맥락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는 화용론적 관점은 믿음에 관한 역설적 퍼즐을 해명할 수 있게 한다. 해명이란, 퍼즐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에 퍼즐이 발생하는 근원을 규명하는 것, 즉 퍼즐의 발생에 개입하는 직관을 설명하는 것이다. 화용론적 관점에 따르면 역설의 감지와 믿음 보고의 성공적 소통에 관련되는 직관이 구별된다. 믿음 보고의 성공적 소통에 개입하는 직관은 소통-의도의 형성과 파악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달리, 역설의 감지에는 사변적 직관이 주관한다. 이러한 직관의 구별은 역설의 상황이 일상적 소통의 직관과 떨어져 있는 인위적인 것임을 깨닫게 한다. 왜냐하면 단순히 다음과 같은 현상은 역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음 주체가 동일한 진리 조건적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믿음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sup>26)</sup> 다시 말해 믿음 주체가 한 사고와 그것의 부정을 동시에 믿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 주체의 합리성\*은 변론 가능하다. 수정된 합리성\*의 원리에 따르면, 믿음 주체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sup>26)</sup> 믿음 상태라는 개념은 페리에게서 빌려온 개념이다. 페리는 믿음 내용과 믿음 상태를 구별하였다(Perry, 1980, 1990, 1997). 두 서로 다른 환경에서 동일한 믿음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믿음 상태—믿음 내용을 믿는 것과 믿음 내용을 믿지 않는 것—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별에 따르면 서로 다른 맥락에서 한 사고와 그것의 부정을 동시에 믿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다. 메리는 아침에 하늘에 뜬 금성을 보고 “저것은 샛별이다”라고 할 것이지만, 저녁에는 하늘에 뜬 금성을 보고 “저것은 샛별이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메리는 금성이라는 대상을 ‘샛별’이라는 이름과 연합된 착상과 결부시킬 것이다. 반면 저녁에 메리는 금성이라는 대상을 ‘샛별’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메리는 명제와 그것의 부정을 동시에 믿지만, 한 명제를 믿는 믿음 상태와 그것의 부정을 믿는 믿음 상태가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믿으므로 메리의 합리성이 변론된다.



시간에 한 명제와 그 부정을 믿을 때 그는 비이성적이다(PAR:22). 그렇다면 믿음 주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한 명제와 그 부정을 각각 믿는 것은 그를 비이성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믿음 주체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한 명제와 그 부정을 믿을 수 있다. 화자가 믿음 주체의 모순되는 믿음 상태를 보고하더라도, 믿음 주체의 믿음 상태에 영향을 끼치는 맥락적 상태를 고려하여 각각의 보고를 한다면 이를 역설적인 믿음 보고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화자는 각각의 믿음 보고를 통해 믿음 주체의 서로 다른 대물적 제시 방식을 수반하도록 소통-의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게, 크립키, 그리고 리차드는 퍼즐을 제시하면서 이런 이러한 합리적\*인 상황을 변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대신에 프레게, 크립키와 리차드의 퍼즐은 믿음에 관한 퍼즐의 역설성 혹은 모순성에 관한 직관에 호소한다. 프레게, 크립키와 리차드는 퍼즐을 제시하면서, 역설적 요소는 믿음을 보고하는 자조차도 당황스럽게 만드는 요소를 가진다고 말한다. 그것은 믿음 보고에 의해 말해진 바의 내용에 관해 발생하는 역설이다. 즉 화자의 의미상의 역설성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역설성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본고는 르카나티의 이론을 도구삼아 프레게, 크립키와 리차드의 퍼즐의 역설성 또한 해명해 볼 것이다.

## 2.1 믿음에 관한 프레게의 퍼즐의 해명

프레게의 퍼즐은 성공적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등장하는 지시어를 동연적 지시어로 대체할 때 발생한다. 본고는 프레게의 퍼즐의 발생의 핵심이 원본적인 불투명한 보고가 담고 있었던 맥락민감한 요소가 문장에 관한 처리를 거치며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믿음 보고의 문장에 관한 처리를 수행할 때 수반되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의 소실은 매우 눈에 띄지 않는 일이다. 문장에 관한 처리는 맥락-전환을 동반하고, 이는 원본적인 믿음 보고에 존재했던, 믿음



주체의 대물적 제시 방식을 보존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통-의도를 소실되게 한다. 여기서 문장의 진리값에 관한 사변적인 직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이에 의해 역설성이 발생한다. 고전적인 예시를 보자. 먼저 다음과 같은 믿음 보고가 존재한다. 직관적으로 그림이 없고 믿음 주체의 믿음의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고자 의도된, 대체로 문제가 없는 불투명한 맥락의 믿음 보고들이 있다. (3)“존은 키케로가 부자라고 믿는다”와, (4)“존은 툴리우스가 가난하다고 믿는다”와 이다.

(3)“존은 키케로가 부자라고 믿는다”

(4)“존은 툴리우스가 가난하다고 믿는다”

여기서 존은 키케로와 툴리우스에 대해 어떠한 동일성 판단도 하지 않고, 키케로와 툴리우스에 관한 존의 심적 자료철은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한다. 화자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화용론적인 처리가 작용하도록 소통-의도하였다. 화자의 (3)과 (4)의 발화에 의해 말해진 바에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3)과 (4)의 발화에 의해 말해진 바는 \*(3)과 \*(4)과 같을 것이다.

\* (3)“존은 툴리우스가 가난하다고 믿는다 + U.C(존의 심적 자료철 ‘툴리우스’)

\* (4)“존은 키케로가 부자라고 믿는다 + U.C(존의 심적 자료철 ‘키케로’)

\* (3)에 존재하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U.C)인 존의 심적 자료철 ‘툴리우스’는 ‘툴리우스’라는 사전항 아래 ‘가난함’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4)에 존재하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인 존의 심적 자료철 ‘키케로’는 ‘키케로’라는 사전항 아래 ‘부자임’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다. 만약 화자가 불투명한 맥락의 발화를 의도하며 진지하게 (12)“존은 키케로가 가난하다고



믿는다”라고 발화한다면 그 발화에 의해서 말해진 바는 거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2)“존은 키케로가 가난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12)에 의해 말해진 바에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2)에 의해 말해진 바는 \*(12)과 같을 것이다.

\*(12)“존은 키케로가 가난하다고 믿는다 + U.C(존의 심적 자료철 ‘키케로’)”

\*(12)이 말하는 것은 키케로에 대한 존의 심적 자료철 ‘키케로’가 ‘키케로’라는 사전항 아래 ‘가난함’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거짓이다. 동시에 화자는 키케로와 툴리우스가 동일 인물인 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진리 조건적인 맥락만을 고려하여 투명한 보고도 할 수 있다: (13)“존은 키케로가 가난하다고 믿는다”.

(13)“존은 키케로가 가난하다고 믿는다”

투명한 믿음 보고이기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자의 발화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대신 화자는 자신의 투명한 보고의 의도가 잘 전달되도록 전략을 취해야만 한다. (13)“존은 그 부유한 키케로가 가난하다고 믿는다”와 같이 부차적인 형용사를 더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화자는 또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문장에 관한 처리를 수반한다. 동일성 판단을 근거로 (3)에서 등장하는 단칭어를 동연적 단칭어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체에 의해 우리는 (5)을 얻을 수 있다: “존은 키케로가 가난하다고 믿는다”.



(5)“존은 키케로가 가난하다고 믿는다”

(3)으로부터 (5)을 얻는 데에 개입하는 직관은 (13)을 얻는 데에 개입하는 직관과 다르다. (5)은 원본적 불투명한 발화의 맥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얻어진다. 그는 (3)의 발화의 소통적 맥락에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화자의 소통-의도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그가 (3)에 등장하는 단칭어를 동연적 단칭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3)에 존재하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에 관한 의도)를 제거하고 난 후에 가능하다. (3)에 관해 존재했던, 믿음 주체에게 귀속되는 의미 내용에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로 존재해야 할 것에 대한 소통-의도는 (5)로의 이행으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고 생략되었다. 그는 대화의 협력자로서 영향을 받는 소통의 맥락에서 벗어나 문장의 의미만을 고려한다. 그러한 작업을 하는 사람은 대화에 참여하는 청자라기보다는, 문장을 독해하는 독자 혹은 논리학자이다. (3)에서 (5)을 얻는 것은 그 목적이 믿음 보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독자의 사변적 직관을 막을 수는 없으며, 그것은 어느정도 타당하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사용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일반적인 관습들과 이름사용의 관습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이러한 사변적 직관이 개입하여 얻어진 (5)을 듣는 청자는, 원본적 소통-의도의 맥락이 훼손된 이 발화를 다시 해석해야 하는데, 대화의 참여자로서 청자는 화용론적 처리를 통해 그 맥락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이다. 청자는 (5)에 관한 화용론적 해석의 후보로, 그 진리값이 거짓인 (12)와, 투명한 믿음 보고로서 진리값이 참인 (13)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소통 의도에 관한 맥락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본고는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등장하는 지시어를 동연적 지시어로 대체하는 것이 원본적인 불투명한 보고의 맥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처음부터 투명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의도와 구별된다고 말하였



다. 그러나 이 의도가 구별된다고 해서 동시에 발현되는 경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본적인 투명한 보고에 대한 의도와, (3)에서 (5)으로의 이행에는 겹치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사고의 진리 조건에 대한 보존의 의도이다. 화자가 진리 조건에 대해서 소통-의도하고자 하는 투명한 보고에 대한 의도의 성립과 (3)에서 (5)으로의 이행은 양립가능하다. 화자는 원본적인 불투명한 맥락에 관한 소통-의도를 생략하여 투명한 보고로 전환하고자 의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원본적인 불투명한 맥락에 관한 소통-의도를 생략하는 것이 반드시 투명한 보고에 대한 의도의 성립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자는 근본적으로 대화에 관한 화용론적 맥락이 제거된 문장 자체에 관한 처리이다. 그 처리에는 의미의 첫째 층위에 관한 직관이 개입한다. 그것은 문장의 의미에 관한 직관이다.<sup>27)</sup> 그 처리는 분명한 소통-의도의 부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믿음 보고의 화용론적 맥락을 흐리게 하여, 문장에 의해 말해진 바에 관한 진리값의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본고는 (3)에서 (5)으로의 이행을 사변적 직관이라고 말하였다. 사변적 직관과 유관한 것은 이름 사용에 관한 관습이다. 그것은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바, 혹은 이름을 담고 있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바를 명시한다.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바는 이름에 관해 형성된 소통망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리고 이름을 담고 있는 문장이 표현하는 사고를 이해하는 데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바는 이름의 지시체를 식별하는 것일 뿐이다. 일상적 화자에 의한 이름의 사용은 사회적 관습에 의존적이며, 이름의 사용에 있어서 화자와 청자가 기술로서 대화에 참여하고 교환할 수 있는 정보의 겹침은 존재하지 않는다(VR:380). 이름 사용의

<sup>27)</sup> 혹은 이를 해석의 제이 층위에 관한 직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문장에 의해 표현된 최소적 명제에 관한 직관이다. 하지만 의미의 첫째 층위 즉 언어적 의미만으로 탈인용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름 사용 관습에 의해 이름이 지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의 첫째 층위에 관한 직관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필요충분조건은 어떤 이름 사용 관습에 참여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VR:384-387). 따라서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름이 지칭하는 사물을 식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르카나티의 화용론이 제시하는 것은, 가끔씩 이름이 등장하는 발화를 한 화자의 사고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 관습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름의 이해를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바와, 실제 발화가 표현하는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바는 다르다. 어떤 경우에 이름의 사용자는 청자에게 정보-기반 사고를 불러일으키고자 하고, 많은 경우에 아주 구체적인 특정한 정보-기반 사고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바보다 더 많은 것들에 관한 소통-의도를 성공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정교한 소통 의도를 수반할 것이다. 프레게의 퍼즐은 이러한 소통-의도의 손실에 의해 발생한다.

## 2.2 믿음에 관한 크립키의 퍼즐의 해명

본고는 르카나티의 이론을 바탕으로 믿음에 관한 퍼즐의 역설성에 대한 기본적인 해명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크립키의 퍼즐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크립키는 퍼즐의 역설성에 대해서 특히 강조한다. 크립키는 믿음 귀속에 관한 충돌하는 직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것은 그가 상황을 묘사하는 방식에 의해서 더욱 두드러진다. “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고 귀속해야 하는가, 혹은 “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지 않는다”고 귀속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본고는 크립키의 퍼즐에 대해 심적 자료철에 관한 연결 모델로부터의 해명, 화자의 의도에 기반한 투명한 맥락-불투명한 맥락의 구별로부터의 해명, 그리고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관한 화용론으로부터 해명을 내놓을 것이다. 본고는 크립키의 퍼즐을 대화적 상황으로 옮겨와 해석할 것이다. 화자와 청자 간의 대화적 상황을 전제하는 믿음



보고의 맥락을 배경에 두고, 성공적 믿음 보고를 위하여 믿음 귀속이 활용되는 상황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믿음 귀속이 활용되는 상황을 구별할 것이다. 이로 부터 크립키의 퍼즐은 대체로 화용론적 직관을 무시한 문장 자체에 관한 직관으로부터 발생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은 의미의 여러 층위 중에서 언어적 의미에 해당하는 첫째 층위<sup>28)</sup>에 관여하는 적법한 직관이기에 크립키의 퍼즐이 퍼즐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본고의 설명이 타당성을 지닌다면, 크립키의 퍼즐은 더 이상 믿음 보고에 관한 이론에서 유의미한 역설이 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 보고의 맥락에서 너무 멀어져 있으며, 대화의 참여자로서의 화용론적 직관을 무시한다. 그 역설은 역설을 위해 만들어진 역설이다.

**심적 자료철에 관한 연결 모델로부터의 해명** : 피에르는 서울에 관해 두 가지의 독립적인 심적 자료철을 가지고 있다. 피에르의 한 자료철에는 그의 “Seoul”이라는 단어의 사용과, 그가 서울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들에 대한 기억에 기반한 정보들, 프랑스에서 서울에 대해 받은 교육들, 간접적 증언들에 기반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 다른 하나의 자료철은 그의 지각과, 그의 “서울”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환경에 관한 기억과 연합된 자료철이다. 아름다움의 개념은 전자와 연결되고 후자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Crimmins/Perry, 1989:696,707) 심적 자료철에 대한 병합 모델은, 피에르가 “Seoul”과 “서울”에 대해서 동일성 판단을 하는 경우를 허락하지 않는다. 피에르가 “Seoul”과 “서울”에 대해 분리된 심적 자료철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Seoul”과 “서울”이 같은 도시를 지시한다는 것을 몰라야 한다. 크립키는 정확

<sup>28)</sup> 혹은 해석의 제이 층위(최소적 해석)에 관여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해석의 제이 층위는 문장의 언어적 의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차적인 화용 처리를 통해 도달한 최소적 해석의 층위이다. 르카나티가 구별한 의미의 세 층위와 해석의 세 층위에 관하여 본고의 2장 1.3절을 참고하라.



히 이런 상황을 설정한다. (PB:145, 147, 149) 피에르는 “Seoul”과 “서울”이 동일한 도시를 지칭한다는 것을 모른다.<sup>29)</sup>

크립키는 피에르의 믿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화자와 청자의 동일성 판단에 의지하여 역설적 퍼즐을 제시한다. 여기서 크립키는, 피에르에 관한 정보교환 행위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가 “서울”에 대해서 하나의 자료철만을 가지고 있다는 상식적인 전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에 관해 두 가지의 분리된 심적 자료철을 가지고 있는 피에르와, 서울에 관해 하나의 심적 자료철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에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의 참여자들 사이에 정보적인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그 자체로 서울이라는 대상에 관한 피에르의 서로 다른 두 믿음을 보고하는 데에 부담이 되지만, 자료철에 관한 연결 모델은 성공적인 믿음 보고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식적 제약을 덜어준다. 연결 모델은 믿음 주체의 믿음 상태에 관한 제약 뿐 아니라, 피에르의 믿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참여자들의 인지적 상태에 대한 제약 또한 덜어준다. 연결 모델에서 하나의 대상에 관해 실제로 하나의 심적 자료철을 가지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대상에 관해 서로 다른 인지적 의의를 가지는 심적 자료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 교환의 참여자는 서울에 관하여 자신의 심적 자료철이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을 경유하여 피에르의 분리된 심적 자료철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병합 모델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서로 분리된 자료철이 존재할 수 없으며, 이미 서울이라는 대상에 대해 동일성 전제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정보 교환의 참여자는 피에르의 분리된 자료철의 인지적 상태에

<sup>29)</sup> 그러나 사실은 그런 역지스러운 설정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연결 모델을 바탕으로 한 묘사였다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분리되어 있는 그의 심적 자료철은, 연결되어 있더라도 각각의 인지적 의의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연결 모델에서, 이 상황이 서울에 관한 피에르의 심적 자료철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는 둘이 병합되어 있지 않는 것일 뿐이다. 연결 모델은 피에르가 “Seoul”과 “서울”에 대해서 동일성 판단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피에르가 설명 “Seoul”과 “서울”에 대해 동일성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심적 자료철은 병합될 필요가 없으며, 서로 분리된 상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연결 모델은 피에르가 “Seoul”이 “서울”을 뜻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인지적 의의를 가지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다.

**화자의 의도에 기반한 믿음 보고 이론으로부터의 해명** : 프레게의 퍼즐에서 적용되었던 방법을 따라 피에르의 믿음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르카나티에 따르면, 피에르의 믿음에 관한 화자의 보고가 직관적으로 참인 경우가 존재한다. 화자는 피에르가 얼마나 서울의 그 동네를 싫어하는지, 얼마나 주변 이웃들의 질이 나쁜지에 관해서 알고 있고, 피에르의 “서울”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환경에 관한 기억을 담고 있는 자료철과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연합되어 있지 않음을 소통하고자 (14)“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지 않다고 믿는다”라는 믿음 보고를 할 수 있다.

(14)“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지 않다고 믿는다”

또한 화자는 피에르의 “Seoul”이라는 단어의 사용과, 그가 서울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들에 대한 기억에 기반한 정보들, 프랑스에서 서울에 대해 받은 교육들, 간접적 증언들에 기반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철과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연합되어 있음을 소통하고자 (15)“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라는 믿음 보고를 할 수 있다.<sup>30)</sup>

(15)“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

여기서 피에르는 “서울”과 “Seoul”에 대해 어떠한 동일성 판단도 하지 않고, “서울”과 “Seoul”에 대한 피에르의 심적 자료철은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한다.

---

30) 서울에 관한 피에르의 두 가지 심적 자료철의 분리는 크림민스와 페리를 참고하였다 (Crimmins/Perry, 1989:696,707).



화자는 서울에 대한 피에르의 분화된 대물적 제시 방식에 관한 화용론적인 처리가 작용하도록 소통-의도하였다. 화자의 (14)과 (15)의 발화에 의해 말해진 바에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14)과 (15)의 발화에 의해 말해진 바는 \*(14)과 \*(15)과 같을 것이다.

\*(14)“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지 않다고 믿는다 + U.C(피에르의 심적 자료철 ‘서울’)”

\*(15)“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 + U.C(피에르의 심적 자료철 ‘Seoul’)”

\*(14)에 존재하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U.C)인 피에르의 심적 자료철 ‘서울’은 ‘서울’이라는 사전항 아래 ‘피죄죄함’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15)에 존재하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인 피에르의 심적 자료철 ‘Seoul’은 ‘Seoul’이라는 사전항 아래 ‘아름다움’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다. 만약 화자의 소통-의도가 성공적이라면, 피에르의 믿음을 주제로 하는 대화의 행위에 참여하는 청자는 (14)과 (15)에 의해서 말해진 바를 참이라고 판단한다. 만약 화자가 ‘서울’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환경에 관한 기억을 담고 있는 자료철과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연합되어 있음을 진지하게 소통하고자 (16)“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라고 발화한다면 그 발화에 의해서 말해진 바는 거짓이다.

(16)“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16)에 의해 말해진 바에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6)에 의해 말해진 바는 \*(16)과 같을 것이다.



\*(16)“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 + U.C(피에르의 심적 자료철 ‘서울’)”

\*(16)이 말하는 것은 서울에 대한 피에르의 심적 자료철 ‘서울’이 ‘서울’이라는 사전항 아래 ‘아름다움’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거짓이다. 한편 그는 불어 화자로서의 피에르의 믿음 상태를 알고 있으므로, 진리 조건적인 맥락만을 고려하여 투명한 보고도 할 수 있다: (17)“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

(17)“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

투명한 믿음 보고이기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자의 발화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대신 화자는 자신의 투명한 보고의 의도가 잘 전달되도록 전략을 취해야만 한다. (17)“피에르는 그 피죄죄한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와 같이 부차적인 형용사를 더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화자는 또 다른 전략을 취할 수 있다. 한국어 화자로서 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피에르의 심적 자료철에 대한 소통-의도 없이* 탈인용 원리만을 이용하여 (7)“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지 않다고 믿는다”를 도출할 수 있다. (만약 피에르의 대물적 제시 방식에 대한 고려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14)로 회귀할 것이다.)

(7)“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지 않다고 믿는다”

또한 프랑스어 화자로서 피에르가 “Seoul est jolie”에 동의하는 것을 바탕으



로, 피에르의 심적 자료철에 대한 소통-의도 없이 탈인용 원리와 번역 원리를 이용하여 (6)“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를 도출할 수 있다.

(6)“피에르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

(6)과 (7)은 서로 충돌하는 진리값을 지닌 듯해 보인다. 청자의 ‘말해진 바’에 대한 직관 또한 이런 맥락에서는 어느 하나가 참이고 거짓이라고 결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크립키의 역설적 퍼즐이 등장한다.

크립키의 퍼즐에 발견되는 충돌은 두 가지이다. 먼저 문장에 관한 처리를 통해 얻어진 (6)의 해석에 관한 충돌이다. 크립키가 피에르의 믿음에 관한 역설적 퍼즐을 구성하는데 사용한 탈인용 원리와 번역 원리는 언어의 사용자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리이다. 이는 화자의 의도에 관해 기술되는 화용론적 원리라기보다는, 르카나티가 첫째 층위라고 칭했던 문장의 언어적 의미와 관련된 원리에 가깝다. 이는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번역 기계도 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고 단순하다. 그것은 소통-의도의 맥락민감한 형성 따위와 관련된 맥락을 제거한다. 하지만 청자는 문장의 의미로부터 화자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6)은 화자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후보로 (16)과 (17) 둘 다 가질 수 있다. (7) 또한 두 가지의 해석의 후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맥락의 제거는 불투명한 믿음 보고와 투명한 믿음 보고 사이에서 화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또다른 충돌은 (6)과 (7) 간에 일어나는 충돌이다. (6)과 (7)은 문장의 의미에서도 충돌한다. 각각의 해석의 후보들이 충돌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와 달리 화자는 정직하게 믿음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는 좀 더 복잡한 소통-의도를 수반한다. 믿음 보고 화자는 믿음 주체의 믿음 상태에 관해 투명한 보고를 의도하는지, 불투명한 보고를



의도하는지를 분명하게 의도할 것이며, 그 의도에 따라 믿음 주체의 대물적 제시 방식의 ‘자유 풍부화’를 의도하거나, 그것을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한 믿음 보고 발화를 듣는 청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문장의 언어적 의미에 관한 최소적 해석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더 나아가 소통-의도의 파악을 통해 화용론적으로 명제를 보충하는, 해석의 제이 층위에서 제삼 층위로 이행하는 작업<sup>31)</sup> 또한 요구된다. 이 소통-의도가 성공한 사례인 (14)와 (15)에 의해 말해진 바는 각각 참이다. (14)와 (15)에 의해 말해진 바가 참이라는 것은, 믿음 보고를 하는 청자에게도 화자에게도 역설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소주의적으로 표현된 명제의 차원에서는 퍼즐이지만, 화자는 청자가 최소주의적으로 표현된 명제를 넘어서서 대물적 제시 방식에 관한 정보를 보충하기를 의도하며, 그러한 맥락적 보충은 서로 다른 믿음 상태가 존재한다는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믿음 보고의 맥락에서 번역 원리와 탈인용 원리의 사용은 믿음의 내용에 관한 정보교환의 목적과 합치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다. 화자는 믿음 주체의 믿음 내용을 탈인용 원리와 번역 원리로 재구성하고, 믿음 내용을 전달하고자 의도할 수도 있다. 성공적인 믿음 보고의 상황에서 탈인용원리와 번역 원리는 활용되지만 그것은 믿음을 보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한에서 활용되는 것이다. 탈인용 원리와 번역 원리를 통해 성공적인 믿음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석을 의도하는지 명확한 소통-의도를 형성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역설이 연출되는 상황은 이와 조금 다르다. 한편으로 화자는 믿음의 내용에 관한 정보 교환의 맥락을 벗어나 문장의 의미에 관한 사변적인 관심만으로 탈인용 원리와 번역 원리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또한 정확히 역설의 상황을 연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탈인용 원리와 번역 원리를 사용하여 믿음 내용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 즉 그 진리 조건적인 내용의 충돌으로

31) 해석의 세 가지 층위에 관해서 2장의 1.3절을 참고하라.





관심을 돌리고 그것에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할 수 있다. 두 경우에서 공통적인 것은, 순수하게 피에르의 믿음에 대한 성공적인 보고를 하고자 하는 진지한 소통-의도를 수반하는 대화적 상황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믿음 보고에 의해 말해진 바를 참으로 만들어 줄 성공적인 믿음 보고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믿음 보고의 맥락과 목적, 그리고 그것에 관한 의도를 형성하게 해 줄 맥락인 대화적 협력의 상황이다. 성공적인 믿음 보고의 상황에서 문장의 최소적 명제와, 문장의 발화에 의해서 실제로 전달하고자 의도된 준-단칭적 명제는 구별될 수 있다. 역설의 상황은, 성공적인 믿음 보고에서 요구되는 분명한 소통-의도가 부재하거나 믿음 보고의 소통-의도가 실패한 와중에, 믿음 보고의 맥락을 벗어나 문장의 의미에 관한 사변적 관심, 역설적 상황을 강조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통-의도가 개입하며 발생한다. 크립키는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활용하여 믿음에 관한 퍼즐을 구성하고 있는 듯해 보인다.

화자로서 크립키는 역설적 상황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크립키는 “우리(화자와 청자) 스스로에게도 모순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PB:146) 이는 이미 분명하게 역설성에 관한 소통 의도의 표명이다. 그 뒤의 내용은 이러하다. “한국어 화자로서의 피에르의 행위에 기반해서, 우리는 그가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지 않는다고 결론내려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어 화자로서의 피에르의 행위에 기반해서, 우리는 그가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는다고 결론내려야 한다.” 크립키는 두 결론이 서로 충돌한다고 말하고 있고, 정확히 그 의도로 인해 다른 화용론적인 처리가 수반될 가능성을 막는다. 논리적, 진리 조건적, 사변적 관심이 맥락적으로 개입하여 모순의 상황을 연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크립키가 말한대로 진정하게 ‘피에르의 발화를 존중’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의심해 볼 수 있다. 한국어 화자로서의, 그리고 프랑스어 화자로서 피에르의 발화를 존중하는 것은 피에르의 믿음 상태를 적절히 보고하는 데에 대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피에르의



믿음에 관한 믿음 보고에 의해 말해진 바가 (14)와 (15)처럼 참이 되려면 그것보다 더 세심하고 명확한 소통-의도가 요구된다.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관한 화용론으로부터의 해명** : 크립키는 퍼즐을 제시하면서 명제 태도 보고의 안긴문장 안팎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한다.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관한 화용론에서, 이는 믿음 보고에 관한 화자의 의도를 변화시키는 맥락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크립키는 또한 믿음 보고 문장 자체를 또 하나의 안긴문장으로 활용하면서, 믿음 보고에 관한 역설을 강조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피에르가 모순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반드시**<sup>must</sup> 말해야 한다”에서와 같이 조동사를 활용하거나(PB:145), “그는 서울이 아름답다고 믿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sup>conclude</sup> 있다(PB:146)” 등등의 다른 표현들을 활용한다. 또한 크립키는 피에르의 믿음에 대한 보고가 축자적으로<sup>literally</sup> 표현하는 바가 서로 충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 축자적 의미가 서로 충돌하는 문장들을 가까이 배치하여 제시한다. 이런 맥락들이 모두 믿음 보고에 관한 화자의 해석을 제약하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 크립키는 일일이 기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맥락의 전환을 많이 하고 있다. 맥락의 이동은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자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공적 믿음 보고에 요구되는 소통-의도의 형성과는 거리가 먼 언어의 활용이다. 크립키는 스스로 안긴문장에 관한 화용론을 활용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설이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개입하는 화용론적 처리들이 또한 성공적인 믿음 보고에 개입하는 처리일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 2.3 믿음에 관한 리처드의 퍼즐의 해명

리처드의 퍼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르카나티의 이론을 적용하여 해명할 수 있다. 빌은 셸리에 관해 분리되어 있는 두 가지의 심적 자료철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의 시야에 관한 지각적 정보를 주로 담고 있으며, 위협 혹은 공포의 개념과 연합되어 있고, 빌이 손을 흔들이라는 그의 행위에 대한 동기를 제공한다. 다른 하나의 자료철은 더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것인데, 빌의 '너'라는 단어의 사용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화의 상대방이라는 개념과 연합되어 있고, 위협 혹은 공포의 개념과는 연합되어 있지 않다(Crimmins/Perry, 1989: 696, 708). 비록 셸리라는 동일한 대상에 관한 믿음이지만, 빌은 그 두 가지 심적 자료철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화자는 빌의 심적 자료철의 이러한 상태를 고려해서 셸리에 관한 그의 믿음 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고자 의도할 수 있다. 퍼즐은 빌이 스스로에게 믿음을 귀속시키는 상황이었다.

(8)“나는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셸리]가 위협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9)“나는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셸리]가 위협에 처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빌이 (9)“나는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셸리]가 위협에 처해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는 발화에 의해서 말해진 바는 참인데, 그의 믿음은 대화의 상대방이라는 개념과 연합되어 있고, 위협 혹은 공포의 개념과는 연합되어 있지 않은 심적 자료철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달하고자 하는 소통-의도가 성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빌은 (10)“나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여자가 위협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보고를 할 수 있다.



(10)“나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여자가 위협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이 발화에 의해서 말해진 바는 참이다. 왜냐하면 빌이 보유하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여자에 관한 심적 자료철이 그의 시야에 관한 지각적 정보를 담고 있으며, 위협·공포의 개념과 연합되어 있어서 손을 흔든이라는 그의 행위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발화를 통해 빌은 그 심적 자료철에 대해 전달하고자 의도하는 것이 분명하다. 한편 빌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여자가 샬리라는 것을 모르고, 두 자료철이 사실은 같은 대상에 관한 것인지 모른다. 빌은 (11)“창문 밖에서 너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은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샬리]가 위협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에 동의한다.

(11)“창문 밖에서 너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은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샬리]가 위협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빌은 “창문 밖에서 샬리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으며, (11)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에 대해 (8)“나는 네[전화 상대방으로서의 샬리]가 위협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라는 믿음 보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빌이 진지하게, 이러한 발화를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말해진 바는 거짓일 것이다. 상대방으로서의 샬리에 대한 개념은 대화의 상대방이라는 개념과 연합되어 있고, 위협 혹은 공포의 개념과는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1)과 (8)에서 안긴문장이 동일하여도, 믿음 보고 화자로서의 빌은 두 문장의 발화에서 주체의 대물적 제시 방식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소통-의도하였으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믿음 보고의 바깥에 등장하는 주어를 변화시켰다. 그것은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자유 풍부화 처리를 통해 보충되는 화용론적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변화로 인정된다. 맥락적 변화는 믿



음 보고의 안긴문장 바깥에 있는 단어의 변화에도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것은 보고되는 바에 맥락에 의해 보충되는 요소의 변화에 원인이 된다 (Crimmins/Perry, 1989:709).

빌의 믿음 보고에서 안긴문장의 바깥에 등장하는 단어의 변화는, 그 단어들이 지시하는 대상이 실제로는 같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이해를 위해서 실제로 요구되는 바에 변화를 가져온다. 해석의 세 층위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을 참조하여 이를 설명해 볼 수 있다.<sup>32)</sup> 해석의 세 층위 이론에 따르면, 직시사와 지표사와 같은 직접지시적 표현은 지시 자질을 언어적 제시 방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 지표사를 통해서 화자가 지시하는 대상을 식별하지 않고서는 그 발화에 의해서 말해진 바를 이해할 수 없다. 지시 자질은 해석의 제일 층위에서 제이 층위의 이행에서 사물의 식별을 강제한다. 하지만 한정기술구와 같은 기술적 표현은 제시 방식이 기술적이기에, 한정기술구가 등장하는 문장을 이해할 때 한정기술구가 지시하는 대상을 식별할 필요는 없다. 이 세 층위 이론을 참고하여 (8)과 (11)의 이해에 요구되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를 밝힐 수 있다. (11)에서 ‘창문 밖에서 너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은 기술적인 제시 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정기술구이며, 따라서 한정기술구의 지시 대상을 식별하지 않아도 문장에 의해 표현된 바를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발화를 하는 자는, 그 기술구가 자기 자신을 지시한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 그것은 문장의 의미 차원에서 강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8)의 안긴문장 바깥에 등장하는 ‘나’라는 표현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반드시 식별할 것을 요구한다. 이 대화의 상황에서 ‘나’가 가리키는 대상은 빌 자기 자신이다. 빌은 (11)에 동의하지만, 그 믿음이 귀속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인 것을 모른다. 빌은 셸리의 믿음 보고를 청자로서 이해하고 옮기며 (8)을 발화하였고, 그 발화의 내용은 ‘창문 밖에서 셸리에게 손을 흔드는 사람’이라는 식별되지 않은 어느 주체의 심적 자료철이 위험이라는 개념과

32) 해석의 세 층위에 관해서 2장 1.3절을 참고하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일 뿐이다. 빌은 그 자료철이 귀속되는 대상을 식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자료철은 (9)에서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심적 자료철과 질적인 차이를 가질 것이다.

(9)와 (10)의 진리값의 차이는 해석의 세 층위 이론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9)와 (10)의 안긴문장 안에서 일어나는 직접지시적 표현은 각각 ‘그녀’와 ‘너’로 서로 다르며, 그 차이가 화자의 발화에 의해서 말해진 바의 진리값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서 화자는 ‘그녀’와 ‘너’라는 직접지시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단지 그 대상을 식별할 것만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식별하도록 의도하였다. ‘그녀’와 ‘너’의 언어적 제시 방식은 지시 자질을 가지므로 그 사물의 식별을 요구한다. 그 사물은 동일하며, 그런 점에서 차이가 없다. 문자 그대로의<sup>literal</sup> 문장의 해석으로는 사물을 식별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그러나 ‘그녀’와 ‘너’에 의해서 표현된 대물적 제시 방식은 서로 다른 심적 자료철과 각각 동일시될 수 있다. 믿음 보고에서 안긴문장이 되면서, 그 대물적 제시 방식은 화용론적 처리로 보충될 것이 화자에 의해 소통-의도되었다. 그것은 해석의 제이 층위에서 제삼 층위로 나아가는 선택적인 ‘자유 풍부화’ 처리이며, 이 화용론적 처리로 보충된 내용은 언표되지 않은 요소로서 화자의 발화에 의해 말해진 바의 진리값에 영향을 끼친다.

#### 2.4 결론 :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 이론의 장점

르카나티의 화용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음 보고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에 장점을 가진다. 첫째, 대물적 제시 방식을 심적 자료철과 동일시하는 그의 이론은 믿음 주체가 믿음의 대상에 가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묶고 분리하여, 그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인지적 구조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심적 자료철 모델은 청자와 화자가 믿음 주체와는 다른 구조의 대물적 제시 방식을 가지



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 주체의 대물적 제시 방식에 관해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도구를 마련해 준다.

둘째, 르카나티의 이론은 믿음 보고에 의해서 말해진 바에 관한 변화무쌍한 직관을 포용할 수 있다. 그 작업의 핵심은 믿음 보고의 해석에 관한 (대화의 참여자로서의) 청자의 해석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는 믿음 보고를 대화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화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화용론적 원리들을 끌어들이어 믿음 보고에 관해 소통-의도를 끌어들이어 화용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르카나티는 화용론적으로 보충되는 구성요소가 실제로 말해진 바의 층위에 포함되는 진리 조건적 화용론을 제시하였다. 진리 조건적 화용론은 화용론적 처리에 의해 보충되는 요소인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어떻게 말해진 바에 관한 진리값의 판단에 유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것은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관한 화용론과 더해져 크립키의 퍼즐과 리처드의 퍼즐의 발생을 해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

르카나티의 이론은 믿음에 관한 퍼즐에 대해 크립키가 지적했던 것처럼 단순히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PB:147)' 이상으로 나아가, 화용론적인 처리들이 어떻게 화자의 의도의 맥락민감한 형성과 청자의 맥락민감한 해석에 실제로 개입하여 말한 바의 진리값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해준다. 르카나티의 틀 안에서는 역설적 퍼즐과 같이 인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과는 다른, 좀 더 직관적이고 실증적이며 합리적\*<sup>33)</sup> 퍼즐의 존재를 인정하여 일상적 믿음 보고를 변호할 수 있게 한다. 믿음에 관한 역설적 퍼즐은 믿음 주체에 대한 믿음 상태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의 소통-의도를 왜곡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역설적 퍼즐은 화용론적 원리들을 호출할 수 있게 하는 대화적 맥락을 제거하고 자연어 문장의 모순성에 주목하는 사변적 직관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변적 직관은, 대화의 참여자로서 화용론적 해석을 수행할 경향성을 가지는 청

<sup>33)</sup> 합리성\*에 관해서는 2절의 도입부를 참고하라.



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실되게 만든다. 그것은 결국 화용론적 층위에서의 애매성에 의해 발생하는 해석에서의 모순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든다. 그러한 사변적 직관에 따르면 화자와 청자는 모순적 언행을 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믿음 보고의 목적을 가지고 대화에 충실하게 협력하며 성공적인 소통을 하는 화자와 청자에게 그러한 역설성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일 것이다. 자연어는 화자와 청자가 소통에 활용하는 수단이며, 화자와 청자가 활용하는 의미의 층위는 언어적 의미의 층위에 제한되지 않는다. 화자와 청자는 화용론적 원리들을 호출하며 언어적 의미를 넘어서 풍부화된 의미를 소통한다. 성공적 믿음 보고의 상황에서, 비록 화자의 믿음 보고가 언어적 의미에서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풍부화된 화자의 의미는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 믿음 보고의 합리성은 변론된다.





### Ⅲ.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 이론의 단점

앞서 2장에서 제시된 르카나티의 믿음 보고에 관한 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보고를 수행하고 믿음 주체의 믿음에 관해 소통하느냐에 관한 소통 이론이다. 비록 믿음 보고의 퍼즐에 대한 해명에 유용한 도구를 제공해 주지만, 그것이 실증적인 소통 이론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검증을 거쳐야 한다. 스티븐 닐에 따르면 소통 이론에 관한 구성적<sup>constitutive</sup>·형이상학적, 인식적<sup>epistemic</sup>·화용론적, 원인론적<sup>aetiological</sup>·형성론<sup>formatics</sup>적 구분이 존재한다(SR:268-281).<sup>34)</sup> 각각의 측면에서 르카나티의 이론을 검토하는 것은 르카나티의 이론이 실증적인 이론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지를 검증하는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번 장에서 본고는 르카나티의 이론이 마주하는 두 가지의 쟁점을 각각의 절에서 다룬다. 두 쟁점은 르카나티의 믿음 보고에 관한 이론에서 특히 문제시되는 환유<sup>metonymy</sup>의 이론과 관련되어 있다. 환유란, 어떤 사물을 지시함을 통해 그 사물과 관련이 있는 다른 사물을 지시하는 수사법이다. 두 가지 쟁점은 각각 믿음 보고에 관한

34) 이 구별은 스티븐 닐에게서 빌려왔다. 닐은 구성적·형이상학적 질문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화자가 x를 발화할 때, 어떤 사실에 의거해서 화자는 의미했다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SR:271).”, “이는 어떤 것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의 질문이며, 화자의 의미 행위의 내용의 구성적 결정에 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화자의 의미 이론이다(SR:271).”

닐(Neale)은 인식적·화용론적 질문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는 어떠한 정보, 원리, 그리고 인지적 상태들이 청자가 화자의 의미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에 기여하는지, 즉 화자의 소통적 의도의 회복에 기여하는지에 관한 것이다(SR:271).”, “그것은 청자에 의한 화자 의미의 식별 혹은 회복, 혹은 인식적 결정에 대한 문제이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발화의 해석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이고, 따라서 인지심리학에 속한다(SR:271).”

마지막으로 닐은 원인론적·형성론적 질문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는 어떠한 정보와 어떠한 원리들, 그리고 어떤 인지적 상태와 처리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화자가 x를 발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SR:271)”, “이는 궁극적으로 인지심리학에서 답해질 영역이지만, 이는 화용론과는 다르게 발화의 계획과 형성과 관련된 형성론의 영역이다. 형성론은 특정한 문장과 특정한 명제를 짝짓게 하는 특정한 종류의 정보와 원칙, 인지적 상황과 과정에 대한 이론이다.”



르카나티 이론의 형이상학적, 인식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한다. 첫째 절에서 본고는 문장에 의해 말해진 바에 관한 르카나티의 입장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본다(1.1). 이후 본고는 논의의 범위를 좁혀 믿음 보고에서 화용론적으로 보충되는 요소—환유의 일종인 제유를 통해 보충되는 대물적 제시 방식—가 말해진 바에 포함되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1.2). 첫째 절의 논의에서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의 의미에 관해 르카나티가 제시한 일원론이다. 둘째 절에서는 명제의 비축자적 해석에서 최소적 명제<sup>minimal proposition</sup>의 계산가능성과 관련된 인식적 문제를 다룬다. 최소적 명제에 관한 바흐의 입장을 먼저 제시한 후(2.1), 그에 대한 르카나티의 대답을 기술한다(2.2). 그리고 르카나티의 입장을 재반박해 본다(2.3).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르카나티의 이론이 실증적인 소통 이론으로서 확립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몇가지의 과제를 도출할 수 있게 한다.

## 1. 말해진 바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의 단점

### 1.1 말해진 바에 관한 바흐의 비판 : ‘대화적 암시’를 중심으로

르카나티는 자신의 이론을 ‘진리 조건적 화용론(DR13)’으로 칭하며 의미에 관한 세 층위 이론을 전개한다. 르카나티에 따르면 의미의 세 층위가 존재한다. 세 층위란 곧 문장의 의미, 말해진 바, 그리고 소통된 바이다(DR:236). 그라이스의 화용론은 셋째 층위에 해당하는 소통된 바에서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였으며, 발화가 애매성을 가지는 현상을 언어적 의미의 애매성 대신 소통된 바에서의 화용론적 애매성을 상정하여 설명하고자 하였



다.<sup>35)</sup> 대신 그라이스의 이론에서 문장의 언어적 의미는 카플란적 ‘성격’과 같이 묘사되어 맥락이 주어지면 말해진 바를 완전히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르카나티에 따르면 이러한 묘사는 잘못되었다. 르카나티는 진리 조건적 화용론을 통해 말해진 바에도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요소가 존재함을 보이고자 하였다(DR:236-237). 그것은 언어적 의미의 과소결정성<sup>underdetermination</sup>으로부터 요인할 수도 있고, 자유 풍부화와 같은 화용론적 작업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르카나티는 칼스톤의 예시를 빌려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DR:258). ①“그는 절벽 끝으로 갔고 뛰어내렸다<sup>He ran to the edge of the cliff and jumped</sup>”, ②“나는 전시를 보러 갔고 존을 마주쳤다<sup>I went to the exhibition and ran into John</sup>”, ③“그녀는 총을 잡았고, 정원으로 가서 그녀의 어머니를 죽였다<sup>She took the gun, walked into the garden and killed her mother</sup>”와 같은 문장들을 해석한다면, ①의 주어가 가리키는 주체는 절벽 너머로 뛰어내렸으며, ②의 주어가 가리키는 주체가 존을 마주친 장소는 전시이며, ③의 주어가 가리키는 주체가 살인에 사용한 흉기는 총임을 자연스럽게 추론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추론된 내용들은 문장의 언어적 의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장의 언어적 의미만을 고려한다면 ①의 주어가 가리키는 주체가 뛰어내린 장소가 절벽이 아닐 수도 있으며, ②의 주어가 가리키는 주체가 존을 마주친 장소는 전시가 아닐 수도 있고, ③의 주어가 가리키는 주체가 살인에 사용한 흉기가 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적<sup>minima</sup>’<sup>36)</sup>(DR13.2:240-244) 해석은 부자연스러우며, ①,②,③을 발화하는 화자가 일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①,②,③을 발화하는 화자는 최소적 해석보다 더 풍부한 내용을 소통-의도한다. 르카나티에 따르면, 문장을

35) 그라이스의 이러한 입장은 독자적 의미의 다양성을 필요 이상으로 상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수정된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원리에 의거한다. 만약 의미의 애매성이 언어적 애매성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고 화용론적 애매성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면, 오캄의 면도날에 의해서 후자의 설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DR:237).

36) 2장 1.3절에서 해석의 세 층위에 관해 참고하라.



통해 표현된 화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은 문장의 언어적 의미에 속하지 않는 내용을 보충하는 화용론적 작업을 동반한다. 보충된 내용은 실제로 말해진 바를 구성하고, 말해진 바의 진리 조건을 구성한다.

바흐는 이러한 르카나티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Bach, 1994). 바흐에 따르면 말해진 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전달되지만 말해진 바에 속하지 않는 암시 *implicature*가 화자의 의미상에 존재한다. 암시가 개입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한편으로 언어적 의미 자체로는 완전한 명제<sup>37)</sup>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문장은 의미적 과소결정성을 가지며, 문장의 언어적 의미에 의해 표상되는 것은 완전한 명제가 아닌 명제 뿌리 *propositional radical*이다. 명제 뿌리는 화용론적 보충 *completion* 작업을 통해 완전한 명제가 되며 과소결정성이 해소된다(Bach, 1994:127). 다른 한편 문장이 언어적 의미상으로는 명제적으로 완전한 뼈대 명제 *skeletal proposition*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화자는 뼈대 명제를 소통하고자 하는 대신 청자가 화용론적 처리인 확장 *expansion*을 수행하여 뼈대 명제와는 구별되는 다른 명제를 이해하기를 소통-의도하는 경우가 있다(Bach, 1994:135). 문장의 언어적 의미에 의해 표현된 내용을 보충하거나 확장하는 암시이다. 그리고 그 암시는 화자의 의미에 속한다. 바흐는 암시를 포함하는 화자의 의미가 비록 말해진 바와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말해진 바를 대체하여 소통된다고 말한다. 그것은 최소주의적으로 문장을 해석했을 때 얻어지는 명제와는 구별되는 비축자적 *nonliteral* 명제이다. 바흐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을 든다(Bach, 1994:159). ④“나는 아무것도 입을 게 없다<sup>l</sup> have nothing to wear.”, ⑤“{이 상처로부터}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sup>You are not going to die {from this cut}</sup>.” 이 경우

37) 명제적 불완전성은 곧 명제적 과소결정성을 말한다. 바흐에 따르면 명제의 과소결정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는 요소적 *constituent* 과소결정성과 구조적 *structural* 과소결정성이다. 명제의 요소적 과소결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념적 요소의 보충이 요구된다. 이와 달리 명제의 구조적 과소결정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범위 *scope*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범위의 보충을 통해 대인, 대물적 해석에 관한 범위의 애매함이 해소되어야 한다(Bach, 1994:127).



암시의 생산은 뼈대 명제에 대한 개념적 강화 처리를 통해 이루어진다.<sup>38)</sup> ④를 발화함으로써 화자는 실제로 아무 것도 입을 것이 없다고 의미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입을 적절한 옷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을 것이다. ⑤를 발화함으로써 화자는 문장의 언어적 의미에 청자가 {이 상처로부터}라는 요소를 개념적으로 확장하기를 소통-의도하였다. 이 문장들은 언어적 의미상으로 완전한 명제—‘말해진 바’—를 표현하지만, 화자는 그것을 대체한 개념적으로 강화된 명제—‘화자의 의미’—를 소통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진리 조건적 화용론에서 르카나티는 말해진 바에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요소가 포함됨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바흐식으로 해석한다면 말해진 바에 암시가 포함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바흐는 르카나티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며 반박한다. 먼저 바흐는 르카나티의 ‘가용성 원리<sup>the availability principle</sup>’(DR13.4)를 비판한다(Bach, 1993:137). 가용성 원리란, 발화의 의미에서 화용론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말해진 바의 일부인지를 결정할 때 전-이론적 직관을 보전해야 한다는 원리이다(DR13:248). 화자가 어떤 것을 말하였다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져야 했을 것이고,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 화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즉 화자에게 가용한 것이었어야 할 것이다.<sup>39)</sup> 어떤 것이 화자에 의해 진정으로 말해진 바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관들이 보전되어야만 할 것이다. 가용성 원리는 문장의 언어적 의미만을 통해서 표현된 최소적 명제와, 그것에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구성요

38) 개념적 강화는 논리적 강화와는 대비되는데, 논리적 강화는 명제를 입력값으로 받고 그것을 함축하는 또다른 명제를 산출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반면, 개념적 강화는 논리적 강화를 포함하여 논리적 약화, 그것의 근접, 그것의 명료화 혹은 구체화, 그리고 그것의 동치를 포함한다(Bach, 1994:135). 명제에 대한 강화가 논리적 강화가 아니라 개념적 강화라는 점은, 화자의 의미를 표현하는 명제가 최소적 명제를 대체한다는 입장의 근거가 된다. 명제에 관한 강화가 논리적 강화라면, 강화된 명제는 이전의 명제를 함축하며 이는 대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개념적 강화는 이전 명제를 반드시 함축하지 않기에 대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

39) 이는 소통-의도의 형성에 관한 형성론적 주장인 것처럼 보인다. 즉 이 주장은 소통-의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보적으로) 가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소를 포함한 명제 —화자의 의미— 사이에서 말해진 바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르카나티가 호소하는 전-이론적 직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첫째, 대화적 상황의 일상적 참가자들이 ①~⑤를 발화하며 진정으로 소통되기를 의도한 것은 최소적 명제가 아니라 화자의 의미이다. 일상적 대화의 참여자는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구성요소를 포함한 명제만을 화자의 의미로 인정할 것이다. 둘째, 화자는 문장의 언어적 의미만으로 표상되는 최소적 명제에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르카나티는 의식적 접근불가능성으로부터 언어적 의미가 표현하는 최소적 명제의 비가용성을 도출한다. 르카나티에 따르자면 가용성 원리를 받아들이고, 두 가지의 전-이론적 직관을 받아들인다면 말해진 바에 해당하는 것은 최소적 명제가 아니라 화자의 의미이다. 그러나 바흐에 따르면 가용성 원리에 대한 호소는 대화의 상황에서 화자의 소통-의도의 파악에 관여하는 청자의 인식적 혹은 화용론적 민감성을 간과하게 한다(Bach, 1993:137). 설령 대화의 일상적 참여자가 문장의 언어적 의미가 표현하는 최소주의 내용에 대해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자는 화자의 소통의도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의도된 명제를 발화된 문장으로부터 화용론적으로 추론해야 하기 때문에 문장의 명시적 내용에 대해서도 민감해야만 한다. 또한 문장의 명시적 내용에 대한 민감성은 교육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⑤와 ⑤' "이 상처로부터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를 비교하도록 상황을 설정할 수 있고, 엄밀하게 말해진 바에 관해 ⑤와 ⑤'가 서로 다르다고 말할 것이다(Bach, 1993:137).

바흐는 또한 르카나티가 '언어적 지도 원리' linguistic direction principle (Carston, 1988:163)'를 거부하면서, 표면적으로만 말해진 바에 관한 직관에 호소할 뿐 사실은 말해진 바에 관한 직관을 잘 해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Bach, 1994:137). 언어적 지도 원리란 말해진 바의 구성요소는 발화의 구성요소에 상응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에 따르면 발화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말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이는 '말하다'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존중한, 무



시될 수 없는 원리인 것처럼 보인다.<sup>40)</sup> 그러나 르카나티는 언어적 지도 원리를 거부하는데, 언어적 지도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①~⑤의 예시에서 화자의 의미가 비축자성을 띠는 것으로 귀결되며, “진정한 의미의 비축자성이란 비유나 은유같은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DR:313).” 바흐는 르카나티를 비판한다. 르카나티는 비축자성을 왜곡하여 기술하였다. 비축자성은 발화에 의해 말해진 바와 화자의 의미가 암시의 개입에 의해 구별된다는 것을 뜻할 뿐 비유나 은유와 동일시될 수 없다. 바흐에 따르면 ①~⑤의 예시에서 표현된 화자의 의미는 비유나 은유가 아니면서도, 암시가 개입한 진정으로 비축자적인 것이다. 바흐에 따르면 화자의 의미는 비록 언어적 지도 원리에 따라 식별되는 ‘말해진 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동일하지 않으며, 암시를 통해 보충 혹은 확장된 비축자적 명제이다.<sup>41)</sup>

언어적 지도 원리를 거부하는 르카나티의 입장은 구문론적 병행론에 대한 거부로 이어진다. 이는 구문론적으로 병행적인 syntactically parallel 문장은 (명시적) 내용상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는 이론이다(Bach, 1994:138). 르카나티는 말해진 바에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구성요소가 포함된다고 함으로써 직관적 의미의 차이가 구문론적 병행론을 압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어떤 요소가 화용론적으로 결정

40)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를 기본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말하다’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일차적 뜻은 음성기호를 발성기관을 사용하여 소리낸다는 것이다(표준국어대사전).

스티븐 닐에 따르면, 발화는 우리가 생산하고, 대면하며, 해석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시간적 경계를 가지고 있는 개별자이며 표현의 분절적-음향적-청각적 articulatory-acoustic-auditory 매개이다. 행위-사물 애매성에 의해서, ‘발화’는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생산된 사물 또한 일컫는다. 그것을 생산하면서, 우리는 뜻한다. 발화의 해석의 목표는 화자가 발화를 생산함으로써 의미하는 바를 식별하는 것이다(SR:264-5).

41) 비축자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제한한다면, 언어적 지도 원리에 관한 르카나티와 바흐의 해석은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즉 언어적 지도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말해진 바’는 최소적 명제를 표현하고, 화자의 의미는 비축자적이라는 것이다. 르카나티는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았지만, 바흐는 그것을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나 언어적 지도 원리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옳은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언어적 지도 원리에 대한 이 해석은, 발화의 구성요소에 맥락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발화의 구성요소로 맥락을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언어적 지도 원리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 후자의 해석에서 맥락은 비록 언표되지는 않지만 발화의 구성요소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말해진 바의 구성요소가 될 수도 있다.





되는 경우, 화용론적으로 결정된 바가 취소되는 경우, 아무것도 화용론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바가 변경되는 경우,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적인 ‘말해진 바’는 동일한 구문적 구조를 가지며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Bach, 1994:139). 함의된 바와 명시적 내용 사이에 존재하는 암시된 바의 층위를 인정한다면, 화자의 의미의 비축자성을 해명할 틀이 마련됨에 따라 구문론적 병행론과 언어적 지도 원리를 구제할 수 있다(Bach, 1994:138).

마지막으로, 축자적으로 표현된 최소적 명제가 논리적으로 포괄적인 경우에 직관은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요소들을 말해진 바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Bach, 1994:139). “책과 질은 결혼하였다”, “존스 씨와 스미스 부인은 결혼하였다”는 문장을 보라(Harnish, 1976). 두 문장은 구문적 구조를 공유하며, 축자적으로 표현된 명제는 논리적으로 {서로에게 결혼함} 혹은 {서로가 아닌 이들에게 결혼함}이라는 내용을 모두 가능한 선택지로 남겨둔다.<sup>42)</sup> 대화적 상황에서 청자는 화자가 의미했을 만한 —발화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여 개념적 강화를 통해 둘 중 하나를 화자의 의미로 선택한다. 이 경우는 문장에 의해 표현된 최소적 명제가 논리적으로 더 넓은 의미의 범위를 가지는 반면에, 개념적 강화를 거치며 회복된 화자의 의미는 논리적으로 더 좁은 경우이다. 이 예시에서 추론된 내용은 화자의 의미에 속할 뿐, 말해진 바에 명시적으로 속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추론된 내용은 화자의 의미로서 추론 가능하지만, 말해진 바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과는 구별되는 진리 조건을 가지는 명제로서 보충된다. 대화의 참가자들은 그것이 명시적으로 말해졌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직관은 말해진 바에 관한 르카나티의 입장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

의미에 관한 르카나티의 세 층위 이론에서는 첫째 층위가 문장의 언어적 의미

---

<sup>42)</sup> 여기서는 명제가 개념적으로 보충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와 완전히 구별되는 명제가 보충되는 것이다. 문장이 표현하는 최소적 명제는 뼈대 명제이며, 어떤 개념적 요소가 보충되는지에 관해서 제한하지 않기에 보충되는 요소가 명제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에 해당하고, 둘째 층위가 말해진 바에 해당하며, 셋째 층위가 소통된 바에 해당한다. 이 이론은 그라이스가 말한 바와 함의 사이에 그었던 불완전한 구별을 새롭게 하여 보완하려는 시도이다(Bach, 1994:161). 그러나 —바흐에 따르면— 르카나티는 말해진 바에 명시적 내용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게 함으로써 말해진 바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라이스의 구별을 완전하게 만들 해결책은 말해진 바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그 해결책은 함의된 바로부터 암시된 바를 추가적으로 구별하여 함의로 설명되지 않는 화용론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Bach, 1994:161). 암시에 관한 바흐의 비판을 받아들인다면, 의미에 관한 세 층위 이론은 적어도 네 층위를 상정하는 이론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별이 도입될 수 있다. 첫째 층위는 문장의 언어적 의미에 해당한다. 둘째 층위는 엄밀하게 말해진 바 혹은 최소적 명제에 해당한다. 셋째 층위는 암시를 포함하는 확장된·보충된 명제 혹은 느슨한 의미에서의 말해진 바, 즉 화자의 의미에 해당한다. 소통된 바는 넷째 층위에 해당한다.<sup>43)</sup> 르카나티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말해진 바에 포함된다고 말하였지만, 암시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면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해진 바에 포함되지 않는다.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엄밀하게 말해진 바의 층위에 포함된다기 보다는, 엄밀하게 말해진 바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전달되지만 그것과는 구별되는 화자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sup>44)</sup>

43) 이러한 네 층위 이론은 암시와 유관한 화용론적 처리에 관해 바흐가 했던 구별을 활용하지 않고, 암시를 하나의 층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바흐가 암시에 했던 구별은 뼈대 명제에 대한 확장과, 명제 뿌리에 대한 보충의 처리 사이의 구별이었다. 여기서 전자와 후자가 다른 층위에 속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수 있다. 전자는 말해진 바에 포함되는 반면 후자는 말해진 바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둘째 층위, 즉 ‘말해진 바’에도 제한된 종류의 암시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44) 바로 이전의 주석과의 연관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뼈대 명제에 대한 확장(혹은 풍부화) 처리를 통해 보충되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만큼은 말해진 바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르카나티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별짓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이 개념에 호소할 때는 명제 뿌리에 대한 보충이 아니라 뼈대 명제에 대한 확장의 처리가 일어날 때이다. 뼈대 명제에 대한 확장이 말해진 바에 포함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믿음 보고에 대한 르카나티의 이론 또한 수정되어야 한다.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에서, 직접지시적 표현을 사용하는 믿음 보고에서 믿음 주체의 대물적 제시 방식은 제유<sup>synecdoche</sup>를 통해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로서 보충되어 믿음 보고에 의해 말해진 바에 속하였다. 그러나 네 층위 이론에서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믿음 보고에 의해 말해진 바에 포함되지 않으며, 믿음 보고 화자가 의미한 바에 속한다. 믿음 주체의 대물적 제시 방식은 믿음 보고 화자가 의미한 바를 구성하며 암시적으로 지시된다. 수정된 믿음 보고 이론은 화자에 의해 암시적으로 지시되는 믿음 주체의 대물적 제시 방식을 수반하는 믿음 보고 이론이 된다. 이렇게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의 설명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암시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믿음 보고의 진리값에 관한 청자의 직관에 대해 여전히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믿음 보고에 의해 엄밀하게 말해진 바에 관한 직관이 아니라, 믿음 보고 화자가 의미한 바에 관한 청자의 직관이다. 수정된 이론은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의 좀 더 정교한 판본이 된다.

## 1.2 믿음 보고의 일원론에 대한 비판

르카나티는 믿음 보고의 해석에서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로서 보충되는 대물적 제시 방식 또한 ‘말해진 바’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DR:372). 르카나티에 따르면,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비가 온다’와 같은 발화의 해석을 맥락의존적으로 풍부화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 맥락의 ‘키케로는 가난하다’와 같은 사례에서도 대물적 제시 방식은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로서 보충되며 말해진 바에 포함된다(DR:372).<sup>45)</sup> 르카나티는 가용성 원리에 호소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sup>45)</sup>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물적 제시 방식은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로서 말해진 바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DR:373).



다. 믿음 보고에 의해 말해진 바에 관한 르카나티의 입장은 믿음 보고에 관한 구성적·형이상학적 주장인 일원론으로 이어진다. 믿음 보고에 관한 일원론에서, ㉔목적어절<sup>that-clause</sup>의 지시체, ㉕안긴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 ㉖믿음 주체에게 귀속되는 믿음 내용은 동일시된다(DR:369). 르카나티는 믿음 보고에서의 목적어절의 지시체가 과소결정성을 가진다고 말하였다. 직시사의 지시체가 ‘합당성 plausibility’를 고려하여 상위하달식-하위상달식 제약을 받으며 화용론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 보고 해석에서 목적어절의 지시체 또한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를 맥락적으로 보충하는 화용론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르카나티는 일원론과의 대척점에 이원론을 세운다. 이원론에 따르면 안긴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단칭명제 이면서, 목적어절의 지시체 혹은 귀속된 믿음 내용은 단칭명제라기보다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좀 더 풍부한 것이다(DR:354, 372). 믿음 보고에 관한 크림민스와 페리의 입장이 이원론에 해당한다. 르카나티에 따르면 이원론적 입장은 믿음 보고에 관한 의미론이 비합성적이라고 주장하였던 크림민스와 페리의 입장과 합치하지 않는다(Crimmins/Perry, 1989:710-11). 크림민스와 페리의 이원론은 오직 믿음 보고 문장에 관해서만 강한 합성성<sup>strong compositionality</sup><sup>46)</sup>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매우 약한 입장으로 이어지며, 이는 임시방편적이다. 만약 크림민스와 페리가 비합성성에 관한 스스로의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믿음 보고의 안은문장뿐만 아니라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관해서도 강한 합성성은 포기되어야 할 것이며, 안긴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가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르카나티는 말한다(DR:374).

46) 문장에 관한 강한 합성성은 문장에 관한 의미론적 입장이다. 복합적 표현의 의미는 그것의 구성요소들과 구조에 의해서 완전하게 결정된다는 것이 그 전통적인 입장이다  
출처 : (<https://plato.stanford.edu/entries/compositionality>, 2020).



그러나 본고는 르카나티의 이원론 반박과 일원론에 대한 옹호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원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하는 두 가지의 과제가 있지만 르카나티는 그것을 건너뛰었다. 첫째는 문장의 의미를 화자의 의미로 환원하려는 그라이스의 과제이다. 그라이스의 기획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단계는 화자의 의미를 화자의 의도로 환원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언어의 의미를 화자의 의미로 환원하는 것이다(Grice. 1989; Sciffer, 2017:56). 두 단계의 기획이 모두 성공해야 문장의 의미는 화자의 의미로 환원된다. 비록 첫째 단계에 관해서는 그라이스주의자들간 이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획의 둘째 단계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는 쉬퍼에 의해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비판된 바 있다(Schiffer, 1987, 2017). 쉬퍼에 따르면 그라이스의 기획의 두 번째 단계의 증명은 모든 그라이스주의자들은 원하겠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업이다.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가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그 사실에 의거해 합성 의미론이 파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문장의 의미의 결정에 화용론적 개입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그라이스의 둘째 기획을 은연중에 끌어들인다. 르카나티에 따르면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의 결정은 화용론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대화적 상황을 설정하여 문장의 발화를 통해 표현되는 화자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 안긴문장의 언어적 의미에 의해 표현되는 명제의 결정은 문장의 의미에 관한 결정이다. 두 결정 간에는 그라이스적 간극이 있다. 화자의 의미로서 결정되는 바를 문장의 의미로서 결정되는 바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 간극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 간극을 해소하는 논증은 르카나티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이 과제가 선결되지 않은 경우 믿음 보고의 해석에 화용론을 호출하는 르카나티의 이론은 오직 화자의 의미의 결정에 관한 이론으로서만 인정되며, —문장의 의미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는— 이원론에 대한 반박이나 일원론에 대한 옹호로 활용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르카나티의 이론은 문장의 언어적 의미의 결정에 관한 이론인 합성 의미론을 파기



할 수도 없다.

둘째로, 설령 그라이스의 기획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여전히 문장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추가적 논증을 통해 문장의 의미에 속할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르카나티는 말해진 바에 관해 화용론적 의미만이 존재한다고 하였다(Recanati, 2001:87). 그렇다면 믿음 보고에 의해 말해진 바 또한 화용론적으로 결정된다. 문장의 해석에 화용론적 원리가 개입하는 순간부터, 그 해석은 대화적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청자가 화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전환된다. 언어적 의미는 화자의 의미의 형성과 해석에 활용되는 정보의 일부일 뿐이다 (SR:277). 화용론적인 원리가 개입한 해석의 결과물은 언제나 화자의 의미이며, 문장의 언어적 의미는 화자의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이다. 이러한 이론의 틀 안에서, 문장의 언어적 의미에 대응하지 않는 부분이 화자의 의미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믿음 보고의 해석에서 대물적 제시 방식이 화용론적 절차에 의하여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로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화자의 의미로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를 문장의 의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적절한 논증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화자의 의미의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문장의 명시적 구성요소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결정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르카나티는 화자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의 간극을 잇는 논증을 제공하는 대신 그 간극이 없다고 단순히 전제하였다.

르카나티에 따르면 믿음 보고에서 믿음 주체에게 귀속되는 믿음 내용은 단칭적 명제와 대물적 제시 방식으로 구성된다. 대물적 제시 방식은 믿음 보고의 해석에서 준-단칭화라는 화용론적 처리를 통해 보충된다. 그것은 믿음 보고 화자의 의미의 일부로서 지시되고, 화자의 의미를 표현하는 명제의 내용에 속할 것이며, 믿음 주체에게 귀속된 믿음 내용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문장의 의미에 속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자의적이다. 믿음 주체에 귀속되는 믿음의 내용에 그것이 속한다는 —화자의 의미에 속한다는— 것에 는 이의가 없지만, 안은문장의 목적어절의 지시체 혹은 안긴문장에 의해서 표현 된 명제에 속한다고 —문장의 의미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르카나티는 문장의 의미에 관한 한 모형으로서 일원론을 제시하였지만, 다른 모형인 이원론과의 경합에서 일원론이 선택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르카나티와 달리, 바흐를 포함한 몇몇 이들은 화자의 의미에 속하지만 발화된 문장에 대응되지 않는 그것이 말해진 바에 속한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문장의 언어적 의미에 의해 표현되는 최소적 명제와 화자의 의미를 구별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믿음 보고의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목적어절의 지 시체 혹은 안긴문장에 의해서 표현된 명제에 속한다기 보다는, 안긴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의 바깥에 있지만 화용론적으로 보충되는 화자의 의미에 속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르카나티는 그저 몇몇 사례들과의 유사성에 호소할 뿐이다. 믿음 보고의 목적 어절은 직시사처럼 과소결정되어있으며, 믿음 내용에서 대물적 제시 방식은 ‘비가 내린다’에서 처소에 관한 정보가 보충되는 것과 유사하게 화용론적으로 보충 된다는 것이다(DR:373). 그러나 믿음 내용에서 보충되는 대물적 제시 방식은 이 러한 사례들과 유사성이 있는 만큼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비가 내리는 장소에 관한 결정은 완전한 명제의 표현을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믿음 보고의 목적어절 에서 대물적 제시 방식의 보충은 완전한 명제를 만드는 데에 필수적이지 않다. ‘비가 내린다’에서 처소에 관한 정보로 보충되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말 해진 바의 진리 조건에 영향을 끼치지만, 믿음 보고에서의 대물적 제시 방식의 보충은 믿음 보고의 목적어절에 진리 조건적으로 무관하다. 게다가 대물적 제시 방식은 언어적 제시 방식과 구별되며 심리적 제시 방식이라 불린다. 르카나티는 심리적 제시 방식을 비-기술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언어적 요



소로 포착되기 어려운 것으로 묘사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언어적 의미 요소들로 구성되는 문장의 의미에 속할 수 있는가? 르카나티가 실제로 한 작업은, 믿음 보고에서 대물적 제시 방식을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로서 화용론적으로 보충하는 작업을 준-단칭화라고 명명하여, 명제의 바깥에 있는 요소와 명제 간에 약한 연결 고리를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준-단칭화라는 명명이야말로 임시적이며 근거가 없다. 진리 조건적으로 개별화되어야 하는 명제에 진리 조건적으로 무관한 요소가 진정으로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것이 화자의 의미라는 명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장에 의해서 표현된 명제에도 포함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문장에 의해서 표현된 명제의 바깥에 존재 하면서 화자가 의미의 소통에 활용하는 정보에 더 가까워 보인다.

르카나티의 일원론이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는 것과는 달리, 이원론은 그 과제로부터 자유롭다. 크림민스와 페리의 이론은 화자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를 구별하는 이원론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들은 믿음 보고의 안긴 문장에 의해서 표현된 명제는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단칭적 명제라고 하면서도, 믿음 보고에 의해 믿음 주체에게 귀속되는 믿음 내용은 그것보다 풍부한 것이라고 하였다. 믿음 보고라는 표현은 화자의 의미를 지시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크림민스와 페리의 이론에서, 관념<sup>notion</sup>과 개념<sup>idea</sup>은 믿음 보고에 속하지만 안긴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Crimmins/Perry, 1989:695, 697-698). 관념과 개념은, “발화와 그 맥락에 의해서 보충된다(Crimmins/Perry, 1989:698).” 여기서 관념과 개념은 믿음에 수반되는 심리적 구조물이다. 즉 관념과 개념은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로서 보충된다. 믿음 보고가 화자의 의미라면,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가 —화자의 의미로서의— 믿음 보고에 의해 표현된 명제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에도 속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원론에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원론은 문장의 의미에 관한 합성성의 원리와도 충돌하지 않는다. 크림민스와 페리는 믿음 보고의 안긴문장에 의해서 표현된 명제를 단칭적 명제라고 하며 문장의 의미에 관한 강한 합성성을 보존하였다. 동시에, 믿음 보고에 의해서 표현된 화자의 의미 결정에 있어 문장의 의미만이 기여하는 것이 아님을 말함으로써 화자의 의미에 관한 (언어적 의미로부터의) 강한 합성성을 거부할 수 있었다. 크림민스와 페리의 믿음 보고에 관한 이론은 화자의 의미에 관한 합성성의 거부 이기에, 문장의 의미에 관한 합성성을 거부할 필요는 없었다. 반면에 르카나티는 일원론을 주장하며 화자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 사이의 간극에서 표류하는 의미적 현상을 근거없이 문장의 의미로 편입시켰다. 만약 그라이스적 기획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화자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 사이의 구별은 명확히 그어져야 한다. 르카나티는 선결되지 않은 문제를 마치 선결된 것처럼 다루면서 화자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믿음 보고의 해석에서 화용론적 처리를 거쳐 언표되지 않은 구성요소로서 보충되는 대물적 제시 방식은 화자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화자가 소통하고자 활용하는 정보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문장의 의미에 속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불명확성은 화자의 의미를 문장의 의미로 환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라이스적 기획이 마주한 어려움과 맞물려 있다. 화자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원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라이스의 기획과 맞물려 있는 이 간극이 해소되어야 했지만 르카나티는 그것을 간과하였다.





## 2. 최소적 명제에 관한 르카나티 이론의 단점

### 2.1 최소적 명제의 심리적 비실재성에 관한 르카나티 이론 비판

르카나티는 바흐의 확장 개념을 ‘구절의 층위에서 작동하는 국소적 처리’의 개념에 호소하며 비판하였다. 바흐의 확장 개념은 화용론적 처리 이전의 명제의 단계를 상정하는 반면, 르카나티는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발화에 의해 표현된 ‘최소적<sup>minimal</sup>’ 명제는<sup>47)</sup>, 계산될 필요가 없으며 심리적인 실재성<sup>psychological reality</sup>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인공물이다”라고 주장하였다(Recanati, 1993:263; Bach, 1994:157). (1) “햄 샌드위치가 점점 더 초조해진다<sup>The ham sandwich is getting restless</sup>”를 보자. 이 문장의 최종적 해석은 햄 샌드위치를 주문한 사람이 초조해지고 있다는 비축자적인 해석이다. 이 해석에서 ‘햄 샌드위치’에 관한 환유적 전이<sup>metonymical transfer</sup>(이하 환유)<sup>48)</sup>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르카나티는 그 환유가 —햄 샌드위치 자체가 초조해진다는, 말이 안되는—최소적 명제를 향유하지 않고 일어난다고 본다. 그 대신에 ‘햄 샌드위치’에 관한 환유는 명제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국소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최소적 명제는 청자가 비축자적<sup>nonliteral</sup> 해석을 도출하는 데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최소적 명제는 심리적 비실재성을 가진다고 르카나티는 결론내린다. 만약 적어도 어떤 발화의 해석에 관여하는 인지적 작업에서 최소적 명제가 심리적으로 실재하지 않는다면 그 해석에 한한 만큼은 바흐의 암시 이론은 실증적이지 않다. 바흐는 화자가 암시된 바를 포함한 의미를 소통할 때 최소적 명제를 바탕으로 보충·확장이 이루어진 바를 소통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최소적 명제가 청자의 해석에

47) 최소적 명제에 관해서는 2장 1.3절에서 해석의 세 층위 이론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라.

48) 환유는 한 사물에 관한 언급을 통해 실제로는 그 사물과 관련 있는 다른 사물을 지시하는 수사법이다.



관한 처리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바흐의 이론은 청자의 화용론적 혹은 심리학적 작용에 관한 왜곡된 진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흐는 최소적 명제의 심리적 실재성을 옹호하고자 한다. 바흐는 최소적 명제의 정보적 가용성에 호소하며 그것의 심리적 실재성을 옹호하고자 한다. 바흐는 (2)“햄 샌드위치가 점점 먹힌다”<sup>The ham sandwich is getting eaten</sup>”는 문장을 제시하며, 이 문장의 해석에는 햄 샌드위치에 관한 환유가 일어나지 않음에 주목한다. (1)에서 환유를 촉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1)에서 환유가 촉발되는 반면에 (2)에서는 환유가 촉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Bach, 1994:158)? (혹은 (2)에서 환유가 촉발되었다가 취소되는 무엇인가?) 바흐에 따르면 청자가 (1)과 (2)에서 화자의 서로 다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sup>literally</sup> 표현된 명제의 차원이 필요하다. (1)과 (2)에서 환유가 촉발되거나 촉발되지 않는, 혹은 촉발되었다가 취소되는 이유는 청자가 문장의 언어적 의미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소적 명제의 정보적 가용성에 대한, 더 나아가 심리적 실재성에 대한 반증이 된다. 여기서 구별되어야 할 것은 정보 처리의 시간적 순서와 정보의 존재 사이의 구별이다. 바흐의 입장은 정보의 존재에 관한 것이며, 정보 처리의 시간적 순서에 관한 것은 아니다(Bach, 1994:158). 다시 말해 명제의 계산이 일어나기 전에 일차 처리가 일어난다는 정보 처리에 관한 시간적 주장에 대한 반론이 아니다. 르카나티의 이론에서 정보 처리의 시간적 순서에 관한 주장은 바흐의 이론과 양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르카나티와 대척하며 바흐가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적 명제의 심리적 실재성이다. 최소적 명제가 비축자적 명제의 이후에 접근되든 이전에 접근되든, 그것은 정보적으로 가용하며 화용론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곧 최소적 명제의 심리적 실재성을 보증하는 것이 된다.

르카나티는 최소적 명제의 심리적 실재성을 거부하는 근거로 대화의 참여자들이 자주 보충된 혹은 확장된 명제를 소통된 바로 인지한다는 점, 반대로 최소적



명제에는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바흐에 따르면 이는 심리적 실재성과는 상관이 없다. 최소적 명제의 심리적 실재성은 의식적 접근가능성과 같은 강한 입장을 함축하지 않는다. 최소적 명제는 대화의 참여자에 의해 반드시 의식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무의식적으로 접근될 수도 있다.<sup>49)</sup> 설령 그것이 접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용할 수 있다. 바흐는 접근성과 가용성을 구별한다(Bach, 1994:158). 대화의 참여자가 정보에 의식적으로 접근하는지의 문제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것이고, 가용성은 정보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청자가 그 정보에 실제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르카나티는 최소적 명제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바흐에 따르면 최소적 명제는 청자의 추론에 관한 일종의 내정값<sup>default value</sup>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Bach, 1994:159). 청자는 최소적 명제의 진리값을 거짓으로 상정하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청자의 추론에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최소적 명제는 가용한 정보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바흐는 말한다(Bach, 1994:159). 최소적 명제는 르카나티가 주장한만큼 심리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지위로 격하될 필요는 없다(Bach, 1994:158).

최소적 명제의 심리적 실재성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떤 경우에 환유가 국소적으로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바흐가 인정했듯이, 앞선 발화에 의해 환유가 소통-의도되었다는 것을 청자가 이해하였고, 청자가 최소적 명제로부터 환유를 한번이라도 했다면, 이어지는 발화에서 환유는 국소적 일차 처리로 일어날 수 있다(Bach, 1993:158). 더 중요한 사실은 최소적 명제가 먼저 계산되든 계산되지 않든, 그리고 그것이 국소적으로 촉발되든 촉발되지 않든,

<sup>49)</sup> 바흐는 무의식적 접근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 추측하자면, 이는 의식 너머에 있는 또다른 의식과 같은 프로이트식의 무의식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프로이트식 무의식성이라기 보다는, 의식을 동반하지 않는 기계적인 접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것은 자동적 인지능력에 의해서 수행되며, 반성적인 능력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적 명제는 화용론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화용론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화자의 의미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비축자적 명제가 최소적 명제보다 먼저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비축자적 명제가 아직 화자의 의미로서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화자의 의미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후속적 작업에 최소적 명제가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화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 비축자적 명제와 최소적 명제가 둘 다 계산하여, 상황적 적합성을 따지는 비교의 작업이 수행될 수도 있다. 비록 후속적인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적 명제로의 접근은 화자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혹은 화자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 최소적 명제로부터 암시를 분리하는 바흐의 작업의 핵심은 최소적 명제라는 정보가 화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화용론적 작업에서 활용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었다. 앞서 3장의 1.1절에서 소개되었듯 바흐가 언어적 지도 원리와 구문론적 병행론은 옹호하면서 보인 작업들은 모두 최소적 명제의 정보적 가용성에 더해 화용론적 역할에 대한 옹호라고 볼 수 있다. 최소적 명제의 정보적 가용성은 화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화용론적 작업을 하기 위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을 때에만 유효할 것이다.

르카나티는 발화의 해석에서 최소적 명제의 역할을 축소하였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바흐는 정보적 가용성이라는 개념에 호소하며 최소적 명제가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바흐는 최소적 명제가 정보적으로 가용하며 심리적으로 실재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화자의 의미의 이해에 화용론적 역할을 수행함을 보였다. 바흐는 화자의 의미를 확정하는 데에 최소적 명제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정보적 가용성이란, 결국 청자가 화자의 의미의 해석을 확정하는 데에 사용될 정보로서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명해 보인다. 청자가 활용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제의 계산 이전에 사용되는 정보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청자가 최소적 명제를 비축자적 명제보다 먼저 계산하든 계산하지 않든, 여전히 그것은 화자의 의미를 확정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 2.2 최소적 명제의 정보적 가용성에 대한 르카나티의 입장

르카나티는 1995년에 다시 한 번 최소적 명제의 우선적 계산가능성을 옹호한다. 1995년에 르카나티는 접근성-기반의<sup>accessibility-based</sup> 해석 모델을 제시하였다 (Recanati, 1995). 르카나티가 제시한 접근성-기반 해석 모델은 확산 활성화 모델<sup>Spreading Activation Model</sup>에 순차적 접근성 변화<sup>Temporal Accessibility Shift</sup>이론을 결합한 모델이다. 확산 활성화 모델은 한 요소의 의미 정점이 외부의 자극을 통해 활성화될 때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의미 정점으로 활성화가 확산된다는 이론이다. 확산 활성화 모델은 인지심리학 모델인 의미망 모델<sup>Semantic Network Model</sup>로, Collins와 Loftus가 1975년에 제시하였다. 의미망 모델은 정점<sup>node</sup>과 간선<sup>edge</sup>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통해 의미들 간의 연결관계를 재현한다. 그래프상에서 정점은 기억에 존재하는 개념<sup>concept</sup>을, 간선은 정점들 간의 연결관계를 나타낸다. 확산 활성화 모델에서 활성화<sup>activation</sup>는 정점의 자극 정도<sup>arousal level</sup>로서, 지각 기관에 제시된 자극<sup>stimulus</sup>이 수용되면서 정점이 자극된다. 한 정점이 활성화되면 간선을 따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망들에게로 활성화가 확산된다. 이러한 확산 활성화는 의미망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추출되는 작용을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개념이 활성화된다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체리’와 ‘배’로 활성화가 확산되어 함께 활성화된다. 순차적 접근성 변화 이론은 이러한 확산 활성화 모델을 바탕으로 한, 국소적 표현의 의미 해석에 관여하는 인지적 처리에 관한 모델이다(Recanati, 1995:220-222). 순차적 접근성 변화 이론은 한 국소적 표현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 국소적 표현들과의 연관 속에서 결정되는지를 보인다. 순차적 접근성 변화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국소적 표현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후보가 존재하며, 각각의 후보는 활성화값<sup>activation level</sup>을 가진다. 다른 국소적 표현들이 순차적으로 자극으로서 수용되면서 자극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의 망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활성화값은 연결망을 따라 해석하고자 하는 국소적 표현에도 확산된다. 이때 해석하고자 하는 국소적 표현의 후보들인 의미 정점들



은, 자극된 의미 정점과 연합된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가중치를 기여받을 수 있다. 가중치를 기여받고 난 시점에 해석하고자 하는 국소적 표현의 후보들인 의미 정점들의 활성화 순위는, 가중치를 기여받기 전에 존재했던 의미 정점들의 활성화 순위와 다르다. 한 자극의 수용 이전에 존재했던 접근성 순위는 이후 단계에서 뒤바뀔 수 있다. 활성화를 기여받은 의미 정점들 중에 가장 활성화값이 큰 의미 정점이 접근<sup>access</sup>되며, 국소적 표현의 의미로서 결정된다. 르카나티의 접근성-기반 해석 모델에 따르면 각 의미 단위의 처리에서 활성화의 기여는 다중적 원천으로부터<sup>multiple sources</sup> 이루어진다. 특정 범주의 명사는 특정 범주의 술어와 결합한다는 스키마와 같은 지식 또한 의미 정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중적 원천 중 하나이다(Recanati, 1995:222-226).

르카나티의 이론을 적용하여 ‘햄 샌드위치가 점점 초조해진다’<sup>The ham sandwich is getting restless</sup>라는 문장에서 ‘햄 샌드위치’에 관한 비축자적 해석이 어떻게 최소적 해석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선택될 수 있는지를 묘사해 볼 수 있다. 먼저 ‘햄 샌드위치’라는 주어의 해석의 후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햄 샌드위치’에 대한 최소적 해석과 ‘햄 샌드위치 주문자’라는 비축자적 해석이 후보로 존재한다. 확산 활성화 모델에 따르면 두 개념 간에 간선이 존재할 것이며 햄 샌드위치라는 개념은 햄 샌드위치 주문자라는 개념 또한 활성화시킬 것이다. 문장의 발화는 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t_1, t_2, t_3, t_4 \dots t_n$ 시점에 문장 요소들이 각각 발화된다. 문장의 해석 또한 발화의 지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자. 발화의 해석의 시점을  $t'_1, t'_2, t'_3, t'_4 \dots t'_n$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_1$ 에서  $t'_n$ 으로 발화의 해석이 진행되면서, ‘햄 샌드위치’라는 표현에 대한 접근성은 순차적으로 변화한다. 여기서 ‘초조해진다’라는 술어는 ‘햄 샌드위치’에 대한 두 해석의 후보에 각각 다른 가중치를 기여함으로써 전체 문장의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초조해진다’라는 단어의 의미 정점은 자극을 수용하여 활성화되며 확산되는데, 이 때 ‘햄 샌드위치’의 최소적 해석보다 비축자적 해석에 더



큰 가중치를 기여한다. ‘햄 샌드위치’의 비축자적 해석(‘햄 샌드위치 주문자’)이 더 큰 접근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비축자적 해석이 최종적으로 선택된다. ‘햄 샌드위치 주문자’라는 해석은 ‘햄 샌드위치가 점점<sup>The ham sandwich is getting</sup>’를 들을 때까지는 접근성 순위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여 억제되어 있다가, ‘초조해진다’를 맞닥뜨리자마자 접근성 순위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선택된다.<sup>50)</sup>

활성화값의 다중적 원천을 인정하는 순차적 접근성 변화 이론은 어떻게 명제 단위에서의 계산이 개입하지 않고도 국소적 요소 단위에서 특정한 해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다중적 원천을 인정하는 확산 활성화 모델은 국소적 의미 처리에서 비축자적 해석이 축자적 해석 대신에 더 큰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국소적 표현의 해석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의 계산과 같이 이루어지며, 한 단계에서의 접근성 순위는 이후 단계에서는 뒤바뀔 수 있다. 가장 작은 요소 단위의 처리 단계에서 도출된 접근성 순위는 이후에 마주치는 의미 단위로부터 가중치를 부여받으며 변할 수 있다.

50) 이러한 묘사는 ‘햄 샌드위치’라는 국소적 표현의 해석에 관한 묘사이며, 문장의 합성 처리에 관한 묘사는 아니다. 르카나티는 문장에 관한 해석은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문장의 합성적 해석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은 간략화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해석에 관한 합성 처리를 응용된 너비-우선 탐색<sup>breadth-first search</sup>의 그래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모델이다. 너비-우선 탐색은 한 정점으로부터 특정한 깊이<sup>depth</sup>까지 그 정점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여 원하는 값을 발견할 때 계산이 종료된다. 문장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요소의 개수를  $n$ 이라고 한다면,  $n$ 개의 요소에 관한 합성 처리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은  $n$ 의 깊이에서 적절한 해석을 탐색하는 너비-우선 탐색이라고 볼 수 있다. 너비-우선 탐색은 큐<sup>queue</sup>라는 자료구조를 사용하는데, 깊이가  $i$ 에서  $i+1$ 으로 이행될 때, 하나의 정점을 큐에서 뽑아내고, 뽑아낸 정점에 대해 추가적 연산을 수행한 뒤에, 도출된 다수의 정점들을 다시 큐에 넣는 작업이 수행된다. 그 작업은 깊이가  $n$ 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문장의 합성적 해석에 관한 병행적 처리의 모델을 구현하는 너비-우선 탐색 알고리즘에서, 뽑아낸 정점에 수행하는 연산은 뽑아낸 큐에 들어가 있는 의미 요소의 한 해석의 후보에 다른 요소의 한 해석의 후보를 더하는 합성의 작업이다. 뽑아낸 정점은  $i$ 개의 요소까지 포함하는 합성적 해석의 한 후보이다. 이 후보에 수행되는 합성의 연산은  $i+1$ 번째 요소에 해당하는 의미의 후보들 각각을 그 후보와 합성시킨다. 그렇게  $i+1$ 번째 깊이에서 도출된 다양한 해석의 후보들은 다시 큐에 들어간다. 이런 탐색의 작업이 깊이  $n$ 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고,  $n$ 의 깊이에서 가장 큰 활성화값을 가진 해석이 최종적으로 접근된다.





이 모델에서, 최소적 명제는 반드시 접근될 필요가 없다. 요소 단위의 처리 단계에서 이미 어떤 표현은 비축자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의 단계에서 접근성의 순위가 뒤바뀌지 않는 한, 요소의 비축자적 해석이 최초의 명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정보적으로 가용한’ 최소적 명제는 이러한 의미의 해석 작용의 모델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의미 처리의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처리에 의거한 존재가 된다.

이어서 르카나티는 최소적 명제의 해석이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한다(Recanati, 1995:227-30). 화자의 비축자적 의미가 먼저 결정되지 않고서는 최소주의 층위의 의미 또한 결정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x의 y’와 같은 표현은 둘 사이의 어떤 관계가 존재함을 표현하지만, 한 명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가 맥락적으로 정해져야만 한다. 그 관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두 관계항<sup>relatum</sup>의 의미의 확정이 요구되는데, 만약 x 혹은 y가 비축자적으로 해석된다면, 관계의 의미의 결정 또한 이러한 비축자적 해석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관계의 의미의 결정이 비축자적 의미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사례에서, 순수한 최소주의 층위에서의 의미는 미결정되어 있다(Recanati, 1995:229). 최소적 명제의 우선적 계산을 주장하는 이론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한다.

르카나티의 이 모델은 최소적 명제에 관한 논쟁에서 한가지 의의를 가진다. 그 의의는 르카나티의 모델에서는 최소적 명제의 계산이 문장의 비축자적 해석에서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비축자적 해석은 반드시 최소적 명제를 거쳐서 계산될 필요는 없다. 최소적 명제가 화용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언제까지나 화자의 의미를 확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러나 르카나티의 모델은 바흐의 논지에 여전히 취약한 것처럼 보인다. 르카나티의 모델이 보여준 것은 비축자적 명제가 때때로 우선적으로 계산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중적인 원천은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맥락적 차이에 의해 최소적 명제가 먼저 계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최소적 명제에 앞서 비축자적 명제가 먼저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화자의 의미 확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최소적 명제를 후속적으로 계산하여 활용할 가능성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르카나티는 최소적 명제의 정보적 가용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최소적 명제가 화자의 의미를 확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박하지 못했다. 즉 최소적 명제의 심리적 실재성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했다.

또한 르카나티의 순차적 접근성 변화 모델은 그다지 실증적이지 않다. 르카나티의 확산 활성화 모델에 따르면 오직 활성화값들 간의 상대적인 우위만이 의미의 접근에 유관하다. 이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힐 수 있다. 왜냐하면, 활성화의 상대적인 우위만으로는 절대적으로 활성화값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를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해석이 화자의 의미로 확실하게 선택되기 위해서 넘어야만 하는 의미 정점 활성화의 절대적인 한계점<sup>threshold</sup>이 존재할 수 있다. ‘햄 샌드위치 주문자가 점점 더 초조해진다’는 비축자적 해석의 활성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하더라도 화자의 의미로서 확정되기에 필요한 절대값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언표된 발화로부터 활성화를 기여받은 것이 아니며, 비축자적 해석은 최소적 해석 이전에 ‘억제되어’ 있었다는 점 등등이 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최소적 해석과 비축자적 해석 간의 비교와 같이 후속적인 작업이 수행될 수 있게 하며, 비교와 추론 등등의 작업을 통해 추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여 화자의 의미로 확정되도록 작업을 수행할 근거가 된다. 그 작업의 수행에는 최소적 명제가 요구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적 명제는 ‘햄 샌드위치’의 사례에서도 화용론적으로 활용되며 정보적으로 가용할 것이다.

르카나티 이론에서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확산 활성화 모델에서 활성화가 다른 정점들에 기여하는 가중치가 양의 값뿐만 아니라 음의 값이 될 수도 있을



경우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결된 망들이 오직 양의 가중치만을 주고받을 거라는 가정은 근거가 없다. 만약 확산 활성화 모델이 의미의 처리에 관한 인지심리학적 모델이라면, 뇌의 신경망에서 존재하는 망들 간의 연결관계를 더 잘 반영해야 한다. 신경망에서 정점 간 혹은 망 간의 연결관계는 흥분적<sup>excitatory</sup>인 관계뿐만 아니라 억제적<sup>inhibitive</sup>인 관계 또한 존재한다. 특히 ‘햄 샌드위치’의 최소적 해석은 ‘햄 샌드위치’의 상위 개념인 비정(非情)적<sup>insentient</sup> 사물의 개념은, ‘햄 샌드위치 주문자’의 상위 개념인 유정(有情)적<sup>sentient</sup> 사물의 개념과 억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음의 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렇다면 ‘햄 샌드위치 주문자’는 더더욱 화자의 의미로서 확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활성화의 한계점을 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 해석에 대응하는 의미 정점은 양의 가중치뿐만 아니라 음의 가중치도 기여받기 때문이다. 화자의 의미 확정을 위해 추가적인 연산을 해야 하는 경우, 즉 최소적 명제가 계산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 2.3 르카나티의 환유 이론에 대한 재반박

르카나티의 이론에는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 그의 이론은 ‘햄 샌드위치가 점점 초조해진다’는 문장의 최소적 명제에 관한 특정한 직관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것은 스키마의 불일치로부터 유발되는 불편함과 관련된 직관이다. ‘햄 샌드위치’는 비정(非情)적<sup>insentient</sup> 사물이며, 비정적 사물의 관념은 일반적으로 유정(有情)적<sup>sentient</sup> 동물에게 해당하는 술어표현인 ‘초조해진다’라는 개념과 조합되지 않는다. 이는 언어적 의미의 층위<sup>51)</sup>에서 발생하는 충돌이다. 언어적 의미의 층

51) 앞서 르카나티는 세 층위 이론을 전개한 바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의 층위가 존재하는데, 바로 언어적 의미의 층위, 말해진 바의 층위, 그리고 소통된 바의 층위이다. 청자는 의미의 여러 층위를 거치면서 발화의 해석에 도달한다.



위에서의 충돌이 존재하는 문장의 비축자적 해석에 개입하는 인식적 작업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문장의 비축자적 해석과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발화의 진리값 판단과 유관하다. 스키마가 충돌하는 문장 발화의 해석에서, 청자는 의층위로 나아가기 전에 이미 언어적 의미의 층위에서의 충돌을 감지하고 불편함을 느낀다. 언어적 의미의 층위에서 특정한 진리값 판단이 이루어진다. 스키마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진리 조건적 내용은 표현되지만, 이는 말이 안되는 상황 그 자체이기에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스키마가 충돌하지 않는 경우와는 다르다. 일반적인 경우 적어도 언어적 의미 층위에서의 불편함은 감지되지 않으며, 최소적 해석은 특정한 진리 조건적 내용을 성립시킨다. 그리고 그 내용의 진리값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참조를 바탕으로 어떠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햄 샌드위치’ 사례는 바흐(1994)가 주목했던 비축자성의 특징과도 또 다른 차이가 있다. 바흐가 주목했던 비축자성의 사례에서 화자의 의미는 문장의 의미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것을 *대체하여* 소통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햄 샌드위치가 점점 초조해진다’의 해석에서 화자의 의미가 최소적 해석을 진정으로 대체하였는가? 만약 정말로 ‘햄 샌드위치 주문자’가 ‘초조해진다’를 맞닥뜨리자마자 순차적 접근성-변화에 의해서 선택된다면, 최소적 해석은 억제되어 의식되지 않아야 하고, 그 불편함 또한 두드러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화자는 비축자적 명제만을 향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청자가 비축자적 해석에 도달하고 난 후에도 최소적 해석의 불편함은 여전히 두드러진다. 뿐만 아니라, ‘햄 샌드위치’에서는 두드러지는 불편함 자체가 소통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화의 참여자가 환유를 수행하는 데 그 두드러지는 불편함이 바탕이 되고 있다. 화자는 스키마의 불일치로부터 유발되는 불편함을 바탕으로 청자가 환유를 적용하도록 소통-의도하며, 청자는 그 불편함을 바탕으로 화자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스키마가 충돌하는 이러한 경우, 최소적 명제는 화자의 의미를 확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경우에, 비축자적 해석이 최소적 해석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화자의 의미에 의해 대체된다기 보다 화자의 의미의 바탕이 된다. 이런 경우에 최소적 명제가 화용론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고는 이 경우 최소적 명제가 비축자적 명제와의 비교의 작업에서 화용론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며, 따라서 비축자적 해석과 최소적 해석에 기반한 화자의 의미가 동시에 향유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2)</sup>

불편함을 바탕으로 화자의 의미를 결정하는 후속적 작업을 다음과 같이 스케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탐색 작업에 의해서 비축자적 해석이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화자의 의미로 확정될 만큼 명백하지 않다. 그것은 언어적 의미의 층위에서 존재하는 충돌로 인해 불편함을 여전히 유발한다. 청자는 화자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최소적 명제와 비축자적 해석을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런 비교 후에야 청자는 화자의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런 작업을 수행한다면 최소적 명제는 화자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 화용론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스키마의 충돌로 인한 불편함의 감지는 다시 한번 최소적 명제의 화용론적 실재성, 더 나아가 심리적 실재성에 대해 옹호할 수 있게 한다.<sup>53)</sup>

52) '햄 샌드위치'의 사례에서 두 명제가 동시에 향유된다는 것은 함의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함의와 이 사례는 차이가 있다. 함의는 말해진 바와 문장의 구문론적 구조를 공유하지 않는 반면에, 최소적 해석과 비축자적 해석은 구문론적 구조를 공유한다.

53) 이러한 스케치를 바탕으로 한다면 문장의 합성적 해석에 관해 우선순위-큐(priority-queue)를 이용한 탐색 알고리즘을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순위-큐 자료구조에서는 큐에 들어간 순서대로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 대신 우선순위-큐는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료는 큐에 삽입됨과 동시에 정렬되며, 다음번 출력 연산에서는 헤드에 있는 자료가 가장 먼저 출력된다. 우선순위-큐를 이용한 탐색은, 문장의 단어의 개수가  $n$ 일 때  $n$ -깊이까지 탐색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일 것이다. 자료에서 큐를 뽑을 때는 정렬된 순서대로 뽑히므로, 해석의 가장 유력한 후보에 관한 합성 작업의 결과들이 가장 먼저 접근될 것이다. 뽑아낸 정점에 수행하는 연산은 뽑아낸 큐에 들어가 있는 의미 요소의 한 해석의 후보에 다른 요소의 한 해석의 후보를 더하는 합성의 작업이다. 뽑아낸 정점은  $i$ 개의 요소까지 포함하는 합성적 해석의 한 후보이다. 이 후보에 수행되는 합성의 연산은  $i+1$ 번째 요소에 해당하는 의미의 후보들 각각을 그 후보와 합성시킨다. 그렇게  $i+1$ 번째 깊이에서 도출된 다양한 해석의 후보들은 다시 큐에 들어간다. 이



햄 샌드위치 사례에서와 같이 언어적 의미에서의 충돌을 통해 전달되는 비축자성을 명시적 비축자성이라고 부르고, 바흐가 주목했던 일반적인 비축자성을 암시적 비축자성이라고 부르자. 암시적 비축자성에서 화자의 의미는 문장의 의미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것을 대체한다. 그리고 언어적 의미의 층위에는 어떠한 충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시적 비축자성에서는 최소적 명제가 화자의 의미와 함께 향유된다. 햄 샌드위치에 관한 환유적 해석의 사례는 명시적 비축자성의 사례이다. 르카나티의 순차적 접근성 변화 모델은 암시적 비축자성에 관한 직관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명시적 비축자적 해석에 관한 직관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점들을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의 이론에 적용시켜볼 수 있다. 믿음 보고의 최소적 해석이란, 대물적 제시 방식이 보충되지 않은 해석이다. 믿음 보고의 투명한 혹은 불투명한 해석은 화자의 의미의 해석이며, 그 중 불투명한 해석은 믿음 보고 문장의 구성요소에 대응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 구성요소는 대물적 제시 방식이며, 이는 순전히 화용론적으로 보충된다. 대물적 제시 방식의 존재는 불투명한 해석에 비축자성의 자질을 귀속시킬 근거가 된다. 믿음 보고의 불투명한 해석은 최소적 명제와 구별되는 비축자적 명제이다. 믿음 보고의 불투명한 해석의 사례에서, 언어적 의미로부터 화자의 의미로 도달하는 방식은, '햄 샌드위치'에서 환유가 일어나는 방식과 동일하지 않다. 그 둘은 차이가 있다. 믿음 보고의 불투명한 해석은, '햄 샌드위치' 사례와는 달리 바탕이

---

는 n깊이까지 계속되고, n깊이에서는 화자의 의미에 관한 연산이 소행될 것이다. '햄 샌드위치가 점점 초조해진다'에서, '햄 샌드위치', '햄 샌드위치가 점점', '햄 샌드위치가 점점 초조해진다' 순으로 순차적으로 접근될 것이다. 방문된 합성적 해석의 값들은 다시 방문되지 않는다. 이 때 n깊이에 도달한 경우에 화자의 의미로 확정되기 위한 한계점을 넘지 못했을 것이므로, 백트래킹에 의해 큐에 들어가 있던 '햄 샌드위치 주문자'가 접근될 것이고, 접근된 '햄 샌드위치 주문자'에 대해 다시 합성의 처리를 한 '햄 샌드위치 주문자가 점점 초조해진다'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알고리즘은 너비-우선 탐색 알고리즘보다 작업 기억에 가하는 부담이 더 적고, 효율적으로 연산을 가능하게 한다.



되는 언어적 의미의 층위에서는 어떠한 충돌도 일어나지 않는다. 언어적 의미의 층위에서 유발되는 불편함도 없다. 불투명한 믿음 보고의 비축자성은 명시적 비축자성의 사례와 같이 최소적 명제가 유발하는 불편함을 통해 환유로 나아가도록 소통-의도된 것이 아니다. 믿음 보고의 불투명한 해석의 사례는 암시적 비축자성의 사례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르카나티의 순차적 접근성 변화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



## 맺음말

본고는 믿음 보고에 관한 르카나티 이론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믿음 보고의 퍼즐이라는 언어철학적 현상을 소개하고, 그에 관해 르카나티의 믿음 보고에 관한 이론이 제시하는 대답을 서술하였다. 그 작업을 통해 알게 된 르카나티의 이론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르카나티의 이론은 믿음 주체의 믿음 내용에 관해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적 도구이다. 둘째, 르카나티의 이론은 화자의 믿음 보고에 의해서 말해진 바에 관한 변화무쌍한 직관을 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첫째, 르카나티가 의미론에서 문제적인 그라이스적 주장을 단순히 전제하고 있으며 그것을 논증하지 않는다. 둘째, 최소적 명제에 관한 르카나티의 입장은 반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기술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문제적인 언어철학적 현상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과 풍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여러 화용론들의 입장 차이를 파악하고 세부적인 논의의 갈래와 익숙해질 수 있다. 믿음에 관한 퍼즐은 화용론의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그리고 형성론적인 부분들이 서로 맞물려 있으며, 언어철학과 심리철학까지 걸쳐 있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으로 밝혀진다. 또한 본고에서 다음과 같은 후행적 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화자의 의미로 발견되는 대물적 제시 방식을 문장의 의미로 포함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 최소적 명제에 관한 논쟁을 해결할 방법론적 연구이다. 두 연구는 르카나티의 이론을 보충하고 정교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르카나티 저서 및 논문

Recanati, François. "The Alleged Priority of Literal Interpretation." *Cognitive science* 19.2 (1995): 207-32.

---. *Direct Reference: From Language to Thought*. Oxford: Blackwell, 1993.

---. *Mental Fil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Mental Files and Identity." *Mind, Values, and Metaphysics*. Springer, 2014. 467-486.

---. "Unarticulated Constitu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5.3 (2002): 299-345.

---. "What is Said." *Synthese* 128.1/2 (2001): 75-91.

### 2. 그 외 저서 및 논문

Bach, Kent. "Conversational Implicature." *Mind and language* 9.2 (1994): 124-62.

Collins, Allan M, and Elizabeth F Loftus.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Processing.” Psychological review 82.6 (1975): 407.

Crane, Tim. Elements of Mind: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Mi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Crimmins, Mark, and John Perry. “The Prince and the Phone Booth: Reporting Puzzling Beliefs.” The Journal of Philosophy 86.12 (1989): 685-711.

Evans, Gareth, and John H. McDowell. The Varieties of Reference. Oxford: Clarendon, 1982.

Grice, Herbert P. "Logic and Conversation." Speech Acts. Brill, 1975.

---. Studies in the Way of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Kripke, Saul A. “Naming and Necessity.”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Springer, 1972.

---. 이름과 필연. [한국어 개정판] ed. 정대현/김영주. 필로소픽. 2014.

---. “A Puzzle about Belief.” Meaning and Use. Springer, 1979. 239-283.

Loar, Brian. “The Semantics of Singular Terms.” Philosophical Studies: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in the Analytic Tradition 30.6 (1976): 353-77.

Neale, Stephen. “Silent Reference.” Meanings and other things: Essays in honor of Stephen Schiffer (2016): 229-344.



Nelson, Michael. "Propositional attitude report."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9/entries/prop-attitude-reports/>. March 21, 2019.

Richard, Mark. "Direct Reference and Ascriptions of Belief."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1983): 425-52.

Schiffer, Stephen. "Belief Ascription." *The Journal of Philosophy* 89.10 (1992): 499-521.



##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François Recanati's theory of belief report and provides a critical review of his theory. "Belief report" is an expression or action by which a speaker reports a subject's belief to another hearer. Recanati's theory of belief report can be used to illuminate the mechanism behind the occurrence of the phenomenon called "the puzzle about belief." This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it seems that a substitution of a referring expression in a belief ascription sentence for another co-referring expression results in a change in the truth value of the sentence. Since Frege's first serious presentation of this phenomenon as problematic, it has long been at the center of a heated discussion between those who sought to provide a substantive theory of language. Behind those discussions lies the rich context of the debate between neo-Fregeans and neo-Russellians on the semantic content of thought, and pragmatics, which flourished on the foundation that Paul Grice had built. For example, Kripke and Richard, who questioned the puzzle's origin, presented their versions of the puzzle about belief, concluding that Frege's strategy for dealing with the puzzle cannot be a final solution. In the first chapter of this paper, each of Frege's, Kripke's, and Richard's puzzles about belief will be presented, followed by a description of an attempt to explain the puzzle by the theorist himself or others. After that, a critical evaluation of each attempt will be provided. Recanati's theory of belief report is introduced in the second chapter of this paper. Recanati's theory exhibits the feature of incorporating both neo-Fregean and neo-Russellian insights on thought content and cognitive significance. Also, his theory is a pragmatics-based speaker-meaning theory that divides the context of successful communication of a subject's belief according to the



speaker's intention.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Recanati's theory, it will be applied to each of Frege's, Kripke's, and Richard's puzzles to test whether his theory is a viable tool for elucidating the puzzles. It turns out that his theory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first, it can explain the communication of a subject's belief between participants in a conversation. Second, it captures the changeable intuition of what is said by belief reports. Third, his theory illuminates the mechanism behind the occurrence of the puzzle about belief. In the third chapter, this paper will critically evaluate his theory. This will allow us to review his theory from metaphysical, and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 **Keywords**

François Recanati, belief report, belief ascription, puzzle about belief, propositional attitude, propositional attitude report, semantics, pragmatics

